

2002學年度
碩士學位請求論文

칼빈의 基督教綱要에 나타난
形式的 原因으로써 믿음에 대해서

安養大學校神學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專攻

林 聖 燦

칼빈의 基督教綱要에 나타난
形式的 原因으로써 믿음에 대해서

指導 金永奎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Th. M)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安養大學校神學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專攻

林 聖 燦

감사의 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의 근본, 어거스틴 그리고 이를 받는 개혁주의는 나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전까지는(제대로 이를 만나기 전에는) 본인은 장로교회 출신이었지만 구원은 나의 전적인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인줄 알았다. 이 부분은 사람이 해야 하는 부분, 사람의 영역이고 그러므로 '구원은 나에게 달렸다'는 의식, 지식을 가졌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 이후의 나의 행보도 '내게 달렸다'는 인식으로 내딛게 하는 첫 걸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어거스틴, 칼빈이 저주하며 평생을 싸웠던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의 사상, 길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길은 나를 불안하게 했으며 내게 참된 확신을 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을, 바탕을 늘 변하는 '나'에게 두었기 때문이었으며 진리가 아니었기에 그러하다. 이러한 과거의 나의 모습이 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점점 보게 된다. 그 당시 종교개혁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의탁하여 이렇게 작은 소고이나마 그때 (상황에서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상황'에서 그들의 심정으로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바로 그 내용을 다시금 이 시대에 외치고자 한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기에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의탁하여 외치고자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기에.

이러한 길로의 인도자, 안내자였던 진리로의 가르침을 주셨던 김영규 목사님께 감사 드린다. 이 논문의 근원적 바탕과 그 내용의 대부분은 개혁주의 성경연구소의 수업에서 김영규 교수님에 의해 강의되었던 강의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근거한 그의 신학과 그의 가르침, 전개, 강의, 그 내용들에 두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의 인용은 전반적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참고 도서는 주로 기독교강요 한글 번역판을 이용하였다. 비록 번역판이라 혹 번역이 완벽치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칼빈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을 드러냄에는,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를 드러냄에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전체에서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증거 되고 있는 바이기에 그 증거로써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밝혀두기를 원한다.

이 교회와 시대를 향한 선물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임 성찬

목 차

I. 서론	1
A. 논문의 동기와 문제 제기	1
B. 논문의 목적과 방향	4
C. 논문의 전개와 그 과정	5
II. 칼빈의 구원론이 근거한 4가지 인과론에 대하여	7
A. 칼빈의 다양한 인과적 이해	7
B. 구원론이 근거한 4가지	10
1. 유효적 원인 (동력인, <i>efficientis causa</i>)	10
2. 질료적 원인 (<i>materialis causa</i>)	11
a. 구원의 유일한 기초되시는 그리스도	12
b. 구원의 수단이 되시는 그리스도	14
(1) 구원의 수단 되심의 내용	14
(2) 구원의 수단 되심의 목적	16
(3) 구원의 수단 되심의 결과	18
(4)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공로의 관계	19
3. 형식적 원인 (<i>formalis causa</i>) : 믿음	21
a. 형식적 원인인 믿음의 기능	22
(1) 그리스도의 받으신 유익을 받는 수단이다	
b. 형식적 원인인 믿음의 성격	23
(1) 구원의 2차 원인이다	
(2) 마음의 어떠한 행위도 배제하는, 선물을 받는 성격으로써의 방식을 취한다	
c. 형식적 원인인 믿음의 근원	25
(1) 하나님의 선택하심	
(2) 믿음의 근원과 적용자 되시는 성령	
d. 형식적 원인인 믿음의 효과	25
4. 목적과 관련해서의 원인(목적인, <i>finalis causa</i>)	26
C. 4가지 인과론의 성경적 근거와 해석	26
1. 4가지 인과론이 드러난 성경구절들	26
a. 요한복음 3:16	
b. 로마서 3:23-26	

c. 에베소서 1:3-14

D. 그 형식은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29
: 모든 사건의 참된 원인은 감추어져 있으며 거기로부터 구원이 말미암았다

III. 형식적 원인으로써 믿음에 대한 칼빈의 이해 33

A.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하신 예정하심, 그리고 그분의 원인되심 35

1.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37
a. 칼빈의 삼위일체론	37
(1) 삼위일체 교리의 근원	37
(2) '삼위일체'라는 용어	38
(3) 하나님의 단일성과 삼위	38
(4) 가장 중요한 개념의 의미	39
(5)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차이	40
(6)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41
(7) 삼위일체 하나님	42
b.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42
(1) 삼위일체 그 존재에 대한 이해	43
① 삼위일체의 구조적 이해	43
㉠ 첫째 구조 -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본질에 대한 것 (secundum substantiam, ad se ipsum, secundum essentiam)	45
㉡ 둘째 구조 -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위격 상호관계에 대한 것 (ad se invicem in Trinitate)	
: 하나님에 대해 말한 어떤 것은 삼위일체 내부의 관계에 대한 말이다.	45
㉢ 셋째 구조 -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것 (ad invicem, aut ad creaturam)	
: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 즉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과 관계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46
(2) 삼위일체의 사역에 대한 이해	48
: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삼위일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2. 삼위일체의 속성(구원의 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속성들)	51
a. 원하는 것을 행하심	52
b. 하나님의 사랑, 자비	53
c. 하나님의 선하심	55
3. 예정론에 대해서	55
a. 예정	56
b. 섭리	57

B. 형식적 원인으로써의 믿음에 대한 칼빈의 이해 61

1.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인되심 62

- a. 하나님께서 최고의 원인이 되신다 62
- b.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82

2. 형식적 원인으로써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원인 되심 88

- a. 하나님은 수단 없이 역사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89
- b.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며 그것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95
- c. 하나님의 구원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96
- d. 선택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인가? 102
- e. 믿음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인가? 103

3. 형식적 원인인 믿음에 대하여 성령의 원인 되심 107

- a. 믿음(형식인)에 대한 성령의 사역 107
 - (1)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107
 - (2)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인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 108
 - (3)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그러한 참된 신앙으로 역사 하시는가? 109
 - (4)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이다 111
 - (5)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암흑이다 113
 - (6) 우리 의지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선을 추구할 수 없다 114
 - (7)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주시는 때로서의 성령 114
 - (8)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어떻게 또 왜 받으셨는가? 115
 - (9)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 115
 - (10) 성령의 역사로서의 믿음 116
 - ① 믿음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이다
 - ② 믿음은 그리스도안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겨난다
 - ③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
 - ④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 ⑤ 성령이 없이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 ⑥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를 누린다
 - (11)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이끄신다 117
 - (12) 보다 고상한 지식으로서의 믿음 118

IV.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구원의 서정과 관련한 믿음에 대한 내용들 119

A. 믿음의 정의와 의미 120

- 1. 하나님에 대한 지식 121

B. 약속과 믿음 123

C. 중생과 믿음	125
D. 믿음에 의한 칭의(이신칭의)	126
E. 믿음과 성화	
: 성화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인이심	127
F. 믿음의 확신	138
1. 확신도 성령으로부터 기인한다	138
2.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를 누린다	139
V. 결 론	141
참고 문헌	145

I. 서론

A. 논문의 동기와 문제 제기

요즈음 교회들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있다. 전도 활성화를 통한 교회 성장을 부르짖기도 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가장 큰 지상명령으로 여기며 전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도에 힘쓰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많은 것을 오해하고 본질을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본다. “지금 믿으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결정하면 당신이 구원을 얻을 수(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해 놓으셨소. 이제 믿는 것은 당신에게 남겨진 몫이요. 이제 결정하십시오!”¹⁾ 이러한 전파와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직접 겪게 된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란 말인가! 그것은 마치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바로 그 순간의 결정에 의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듯이 인식되고 전해진다는 데에 진리의 왜곡이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 왜곡에 대한 싸움은 어제 오늘의 싸움이 아니었음을 본다. 즉, 기독교 역사속에 계속 있어왔던 진리와 비진리의 긴 싸움임을 의미한다.²⁾ 그것이 왜 진리에

1) 칼빈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에서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피기우스(Pighius, Albert(1490-1542), 게오르기우스)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들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있는 은혜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들의 자유이다. 누가 선택 되고 누가 버림 받느냐 하는 것은 신의(神意)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은 자기의 의지여하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밖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각 사람의 개인적 의지에 의하여** 이같은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한다.”(「존 칼빈의 神學論文」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 315. - Johannes Calvinu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VIII: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1552)* (Brunsvigae, 1870), p. 259 :Quum autem in evertenda praedestinatione consentiant ambo, postea tamen in commentis suis sunt diversi. Fingunt ambo, in libertate nostra positum esse, ut se quisque in adoptionis gratiam electi sint vel reprobis: sed singulos sibi utramvis fortunam suo arbitrio statuere. Quod alii credunt evangelio, alii increduli manent, non ex gratuita Dei electione, vel ex arcano eius consilio, sed ex privata tantum cuiusque voluntate provenire hoc discrimen.)

2) 칼빈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대한 왜곡인가? 그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기여를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돌려보려는 것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오려는 공로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그러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그러한 행위들, 열매들마저도 역시 자신에게로 돌리는 공로주의로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바로 교회의 타락이 있고, 교회의 본질로부터의 이탈이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시대가 갈수록 교회들은 초대형 교회를 지향하게 되었고, 성장위주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와 동기 때문에 신앙의 근본문제에 대한 개혁사상인 칼빈의 구원과 거기에 관련된 인과론을 다룰 필요가 있었다.³⁾

의 서론중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우리들은 오늘날까지 신중하게 깊이 냉정하게 또한 진실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최근에 이르러 모든 소란의 원흉인 사탄은 오설(誤說)을 광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출(發出)한 바 우리들의 가르침을 흔들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동요시키려고 하였다... 놈들에게 그토록 추구하는 대담부적(大膽不敵)한 모독(冒瀆)의 상여(賞與)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놈들의 이름을 매장하는 편이 좋을런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놈들이 우리에게 가하려고 노력한 귀찮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도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결과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의 많은 중상을 단호히 용감하게 경멸하고 차버려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전부를 사람들의 눈에 공개하여 사람들의 손에 맡기도록 계획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인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리석고 경박하고 부정(不正)한 저 패거리들이 말한 것이 허위란 것이 밝혀지며 또한 동시에 민중의 뿌리도 잎도 없는 악담을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여러 비방에 대하여 그것들이 소멸되기까지 경멸과 정신의 평안한 관용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당당하고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기에 또 다른면으로는 우리들이 고려(顧慮)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동요되지 말도록 문제의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1552년 1월1일”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p. 253-6.)

3)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이 천적출생(天的出生)의 기원(起源)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구실로 하나님의 선택을 말살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도리어 저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어디서 유래하였는가를 잘 생각해야 했다.”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p. 253-4: Ac digna est materia, ad quam studia sua intendant filii Dei, ne coelestis suae geniturae originem ignorent. Stulte enim quidam, quia evangelium potentia Dei vocatur in salutem omni credenti, hoc praetextu Dei electionem oblitterant. Atqui venire illis in mentem debuerat, unde oriatur fides.)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의 이 믿음을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의 ‘형식적 원인’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구원의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한다. 그 원인으로서, 첫째,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며 이것을 유효적 원인(동력인, *efficientis causa*)이라 한다. 둘째 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즉 그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에 의하면 이것을 질료적 원인(*materialis causa*)이라 한다. 셋째는, 인간의 의지의 결정에 의한 믿음, 즉 형식적 원인(기구적 원인, *formalis vel instrumentalis causa*)이라 하며, 넷째는 목적과 관련해서의 원인, 목적인이라(*finalis causa*)한다.

그 중에서 칼빈의 원인론에 따르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마치 인간의 의지의 결정에 의한 믿음, 즉 형식적 원인이 그 자신의 구원의 절대적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믿음의 방식조차도 사실상은 그 방식, **형식적 원인으로서 있는 것이지, 더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아서는 안된다⁴⁾는 말이다. 즉, 구원은 어느 시기에 부르심에 비로소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머니 배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만세 전에 그 분의 뜻 안에 있었고, 삼위일체 안에 있었다는 것으로 소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요, 인간의 공로, 인간이 하는 역할은 근원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결국 예정, 영원 전의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언약인 것이다.⁵⁾

4) “성경은 여러곳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독생자에게 주시며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고(*vocare quos elegit*) 당신의 자녀로 된 자들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시는 또한 최후에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가르치며 그의 팔로 붙들어 주는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였다. 나아가서 또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자유로 자녀로 삼으신 지불금이나 담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신적(神的) 선택의 영원하신 원천(源泉)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p. 253-4: *Passim autem scriptura clamat, Deum filio suo dare qui sui erant, vocare quos elegit, et quos sibi adoptavit in filios, spiritu suo regnare: credere denique homines quos ipse intus docuit, et quibus patefactum est eius brachium. Porro quisquis fidem arram esse et pignus tenebit adoptionis gratuita, ex aeterno divinae electionis fonte manare fatebitur.*)

5)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결국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위의 원인들에 대해서 논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그렇게 우리 밖에 있음’(omnes salutis nostrae particulas ita extra nos constare)⁶⁾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⁷⁾ 이의 전제 아래에서 구원의 원인 중 하나인 형식적 원인도 역시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음을,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B. 논문의 목적과 방향

본 논문의 목적은 이렇게 성경에 절대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⁸⁾ 그리고 어거스틴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⁹⁾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최종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즉, 형식적 원인인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의지에 근원하지 않고 (사람의 이해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절대적 원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종의 원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두며(유효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질료인이 되어 성령의 역사에 의해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정된 자가 이 믿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그 절대적 기반을 두고 있는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¹⁰⁾

강의 (2001년 3월 19일) 내용 중에서 인용.

6) Johannes Calvinu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II: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Brunsvigae, 1864), III, xiv, 17.

7)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8) “이 점(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신 바 그 이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70: Nunc quod praecipuum est, agamus: nihil hac de re a me proditum, nisi quod Deus scripturae oraculis nobis omnibus clare dictat.)

9) “어거스틴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음으로 만일 내가 나의 신앙고백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면 그의 쓴 바 내용과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같은 여러곳에서 내가 어거스틴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의논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들은 이같은 성인(聖人, 어거스틴)의 증언을 되풀이하여 인용하지 않으면 안된다.”(Ibid., pp. 266-70 :Porro Augustinus ipse adeo totus noster est, ut si mihi confessio scribenda sit, ex eius scriptis contextam proferre, abunde mihi sufficiat... ne uno quidem apice me ab ipso differre. ..Nam in continua disputationis serie, huius sancti viri testimoniis subinde utendum erit.)

10) “하나님의 자유하신 선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 교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

그것은 현 시대에 대한 종교개혁이라 하겠다. 이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인 믿음이 듣는 능력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듣는 역사에도 근거하지 않은 성령의 역사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였음이다. 종교개혁의 순수한 원리요, 개혁주의의 개혁정신인 이 사실을 여러 증거들을 들어 증명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요, 이러한 진리에 대해 무지함과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처하게 된 현 실태를 향하여 진리를 진리로서 분명히 드러내고자 함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¹¹⁾

C. 논문의 전개와 그 과정

자는 자기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가.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Ibid., p. 261 :..quam de gratuita electione tradimus doctrinam ornare semper licebit, quod nisi per eam non satis capiunt fideles, quanta in se fuerit Dei bonitas, dum ad salutem efficaciter vocati sunt.)

11) 칼빈은 이 내용의 그 비중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확실한 것은 「기독교 강요」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여기에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독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거기서 충고하고 있는 일을 되풀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듯이 제멋대로 정신을 피곤하게 하는 혹은 적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며 또한 경건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의논이며 신앙을 바르게 수립하고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로운 찬탄으로 인도하여 또한 그와 같은 자비와 은혜로운 찬미에로 자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불변의 은혜로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들의 심령속에 인쳐주시는 저 선택을 듣는 것보다 더 신앙을 형성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폭풍이나 사탄의 공격이나 육신의 동요에 의하여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원인을 발견하게 될 때만이 우리들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60: Non esse, ut quibusdam falso videtur, argutam hanc vel spinosam speculationem, quae absque fructu ingenia fatiget: sed disputationem solidam, et ad pietatis usum maxime accommodam : nempe, quae et fidem probe aedificet, et nos ad humilitatem erudiat, et in admirationem extollat immensae erga nos Dei bonitatis, et ad hanc celebrandam excitet. Nulla aedificandae fidei aptior est ratio, quam dum audimus electionem illam quam spiritus Dei cordibus nostris obsignat, in aeterno et inflexibili Dei beneplacito consistere, ut nullis mundi procellis, nullis Satanae insultibus, nulli carnis vacillationi sit obnoxia. Tunc enim demum nobis certa est nostra salus, quum in Dei pectore causam reperimus.)

그러한 목적을 위한 논문을 전개하기 위하여 먼저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그의 구원론이 근거한 4가지 인과론에 대해서 살펴며 그 성경적 근거와 해석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형식적 원인으로써 믿음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사람의 구원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즉, 구원의 형식적원인). 그것의 근본원인, 최종원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하심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를 위해 먼저 칼빈의 삼위일체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아울러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하심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그에 바탕하여서, 형식적 원인으로써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원인되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하심에 대해서 살펴하고자 한다. 그로 인해 인간의 이해의 영역에서 볼 때, 가장 큰 구원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형식적 원인으로서는 믿음에 대하여 바른 자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이후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열매맺음의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원인도 역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II. 칼빈의 구원론이 근거한 4가지 인과론에 대하여

A. 칼빈의 다양한 인과적 이해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제 III권 14장 17항에서 그의 구원의 원인으로써의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철학자들은 사물이 형성되는 데는 네 가지 원인이 관계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원인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도 행위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동력인**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선언한다. 물론 **질료인**은 그리스도인데, 그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 오셨다. **형상인**은 믿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요한은 이 세 가지 원인을 한 문장에 포함시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목적인**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증거와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같은 곳에서 다른 세 가지도 명백하게 말한다. 그는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 엡 1:6 참조)고 말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자비로 우리를 포용하신 것을 **제일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한다.(롬 3:24)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준 **질료인**이 여기에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롬 3:25)라고 한 말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형상인**이 나타나 있다. 끝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롬 3:26)고 부언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인**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의는 화목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바울은 화목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실현되며, **믿음**으로 받게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빛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엡 1:3-14)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그 모든 부분이 우리의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우

리는 여전히 행위를 믿거나 사랑하는가?’¹²⁾

칼빈에 따르면 성경의 어디에서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네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한다. 이렇게 그의 기독교강요의 구원론 부분인 제3권 14장, 15장에 보면 인과론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는 유효적 원인(동력인), 질료적 원인, 형식적 원인(또는 기구적 원인), 목적인 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¹³⁾

위에서 칼빈이 설명하듯이, 구원을 위한 유효적 원인(efficientis causa)은 하늘 아버지의 긍휼과 우리에게 대한 자비로우신 사랑이며 질료적 원인(materialis causa)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의 형식적 혹은 기구적 원인(formalis vel instrumentalis causa)은 믿음이라고 한다. 즉 믿음은 형식적 혹은 기구적 원인을 가리킨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로 성경에는 그것의 목적인(finalis causa)이 신적 의의 증명과 선의 찬양이라고 증거되어 있다는 것이다.¹⁴⁾

칼빈이 말하는 구원의 원인의 네가지 원인들 중 유효적 원인(efficientis causa)은 하늘 아버지의 긍휼과 우리에게 대한 자비로우신 사랑인데, 이것을 왜 유효적 원인이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우리가 말하는 적용전에 구원의 성취를 말했을 때,) 성취와 적용했을 때, 그 인과론 관계. 그러니까 성취가 없으면 ‘구원의 서정이 없다’ ‘부르침이 없다’ 즉, 그런 그 관계를 지금, 인과적 관계로 말할 때, 그것을 질료적 관계라 한다. 질료적 원인(materialis causa)이다. 그래서 기독교론은 늘 우리의 구원에 서정에 있어서 어떤 관계인가 하면 질료적 원인인 것이다.¹⁵⁾

그 다음에 ‘믿음은 형식적, 기구적 원인(formalis vel instrumentalis causa)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은 구원의 서정의 어떤 단계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대에 와서 발전된 구원과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서정, 어떤 단계로만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칼빈에 있어서는 단계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12) Johannes Calvinu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II: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Brunsvigae, 1864), III, xiv, 17 :“Quum videamus **omnes salutis nostrae particulas ita extra nos constare**, quid est quod iam operibus vel confidamus vel gloriemur?” (약자 : *Institutio 1559* .)

13)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14) Loc. cit.

15)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5월 28일) 내용 중에서 인용.

적으로 모든 것의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이 근거라는 말은 형식적, 기구적 원인이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의 원인과 관련해서 믿음이 기구적 의미이고 형식적 원인으로 되어 있다.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해서 믿음에 의해서였다 할지라도 그때, ‘의해서가’ 정확하게 형식적, 기구적 원인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적인(*finalis causa*)이 있다. 이것은 왜 구원이 되는가? 그 목적이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목적은 목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목적이 원인으로 되어 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 이유가 되가지고 우리 구원이 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개념으로써, 목적은 목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목적이 원인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여기 유효적 원인이라는 것도 적용에서 실제적으로 일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있을 때에, 그 모든 그 원인은 최종적인 원인이라는 말도 된다. 그것이 공홀과 사랑이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¹⁶⁾

칼빈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런 네 가지 원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다고 논증하고 있다. 즉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공홀로부터 은혜 안에 받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증보로 행하되 믿음으로 받아 신적 선의 영광이 완전하게 빛나도록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 그 구절이 가르친다는 것이다.¹⁷⁾ 결국 칼빈이 이 원인들에 대해서 논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그렇게 우리 밖에 있음(*omnes salutis nostrae particulas ita extra nos constare*)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더욱 더 놀랍게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전체(*tota scriptura*)의 그런 증거는 유효적 원인과 목적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질료적 원인과 형식적 원인에 대해서 마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우리의 행위들이 절반의 자리(*dimidiatum ... locum*)를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¹⁸⁾

구원의 원인(*salutis causa*)이란 개념을 처음 1539년에 사용하였을 때도, 우리의

16) Loc. cit.

17)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I, xiv, 17 : “Sic et primo ad Ephesios capite docet nos recipi a Deo gratiam ex mera misericordia: id fieri Christi intercessione: fide apprehendi: omnia in hunc finem, ut divinae bonitatis gloria ad plenum eluceat.”-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에서 재인용.

18) Loc. cit. : “Quum videamus omnes salutis nostrae particulas ita extra nos constare, quid est quod iam operibus vel confidamus vel gloriemur? Nec de efficiente, nec de finali controversiam nobis movere possunt vel coniuratissimi divinae gratiae hostes, nisi totam scripturam abnegare velint. In materiali et formali fucum faciunt, quasi dimidiatum cum fide Christique iustitiae locum opera nostra teneant.”

영혼으로부터 근절하여야 할 두 가지 해독들(pestes)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들은 행위의 의 안에 어떤 신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것에 어떤 영향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⁹⁾ 즉, 우리의 구원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그렇게 우리 밖에 있다(omnes salutis nostrae particulas ita extra nos constare)는 것이다. 이는 어떤 사람은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전해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또한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다양성에서 하나님 심판의 놀랄만한 깊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결코 충분하고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절하신다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조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 원칙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손상시켰으며, 진정한 겸손을 얼마나 소멸시켰는가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경외함으로써 찬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²⁰⁾

B. 구원론이 근거한 4가지

1. 유효적 원인 (동력인, efficientis causa)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효적 원인(동력인)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다.²¹⁾

19) *Institutio 1559*, III, xiiii, 16 : “Duae sunt potissimum nobis abigendae hac parte ex animis pestes: ne quid in operum iustitia fiducia ponant, ne quid illis gloriae adscribant.”-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에서 재인용.

20) *Ibid.*, III, xxi, 1.

21) *Institutio 1559*, III, xiv, 21.

하나님 나라의 문을 성도들에게 열어주고, 하나님나라에서 그들이 설 영원한 자리를 마련하는 제일 원인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비하신 주께서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고 계속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유효적 원인(동력인)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선언한다.²²⁾ 이러한 구분은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추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일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본다. 말하자면 **최고의 원인 또는 기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²³⁾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 엡 1:6 참조)고 말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자비로 우리를 포용하신 것을 제일 원인이라고 지적한다.²⁴⁾

에베소서 1장에서도 최고의 원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실현되며(질료인), 믿음으로 받게 되고(형식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완전히 빛나도록 하기 위한 것(목적인)이라고 하였다(엡 1:3-14).²⁵⁾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일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본다. 말하자면 최고의 원인 또는 기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질료적 원인 (materialis causa)

우리의 용서의 원인, 구원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의존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신 것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질료적 원인이라 부른다. (질료적 원인은 원인에 어디에 있고 어디에 의존하는가에 대한 인과론임을 의미한다.)

22) Ibid., III, xiv, 17.

23) Ibid., II, xvii, 2.

24) Ibid., III, xiv, 17.

25) Loc. cit.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와 수단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 유일한 기초되심을 여러번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다.

a. 구원의 유일한 기초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디서도 구원을 발견할 수 없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준 질료인이 여기에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에게 의지하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의를 얻게 되는 만큼 우리의 구원 문제는 당연히 그로부터 구해야 한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 4:10)”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라.”(요일 2:2)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1:20)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니라”(엡1:6)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한 해석은 에베소서 1장에서 찾아야 한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고 가르치고 난 후에 동시에 이어서 그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엡 1:4-5)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한 자들이 그의 은혜를 어떻게 자기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했을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와 우리를 화해시키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의의 원천이시다.²⁶⁾

이와같이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자비와 인자를 발견하려면 우리는 우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 위에 머무신다. (마 3:17 참조)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이 없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인자로서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만 한다. **중보자만이** 타락한 인간을 도우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통하여 구속자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이 일반적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떠난 모든 불경된 자들과 불신

26) *Institutio 1559*, II, xvii, 2.

자들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한층 더 우매하고 사악한 것이다. 요한은 **태초부터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며(요1:4) 또 모든 세계가 그로부터 떨어졌다고(요1:10)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²⁷⁾

또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증보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는 옛 언약도 **증보자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증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며**, 또 지금까지 은총의 소망도 준 일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수행하는 구속을 떠난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²⁸⁾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바 그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 자신으로서 정죄를 받아 죽고 멸한 바 되었음으로 베드로가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라는 유명한 말이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의와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그에게만 구해야** 한다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이 되었고 그의 손은 우리를 멸하려고 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²⁹⁾

이렇게 우리의 구원 전체와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행 4:12). 구원의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다른 곳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예수라는 바로 그 이름에 의해서** 배웠던 것이다.(고전 1:30)³⁰⁾

그리스도는 **완전한 보속**을 제공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한 **유일한 제물**이시고 유일한 화목제물이시며, 유일한 보속이시다.³¹⁾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어떠한 협력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기초이시며 **창시자이며, 완성자 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

27) Ibid., II, vi, 1.

28) Ibid., II, i, 2.

29) Ibid., II, xvi, 2.

30) Ibid., II, xvi, 19.

31) Ibid., III, iii, 26.

든든하게 터를 닦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의를 얻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고전 1:30)³²⁾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14:6) 아무도 생명의 원천이신(시 36:9) 아버지께 이를 수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알고 계시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만이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³³⁾

b. 구원의 수단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교회의 구원자가 되신다. 다윗에게 언약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교회의 구원자가 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선민을 택정함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의 계약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³⁴⁾

(1) 구원의 수단 되심의 내용

① 그리스도의 성육신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의 벌어진 틈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어야 할 분이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위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사태는 참으로 절망적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³⁵⁾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고, **땅에 내려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다.³⁶⁾

32) Ibid., III, xv, 5.

33) Ibid., III, ii, 1.

34) Ibid., II, vi, 4.

35) Ibid., II, xii, 1.

36) Ibid., IV, xvii, 2.

②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 우리의 죄과를 짊어지심, 죽음을 취하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 전체에 걸쳐 행하신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의 순종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종의 형체를 취하신 때부터 그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유의 피값을 치루기 시작한 것이다.³⁷⁾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됐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고 그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보상물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7)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마 26:28; 눅22:20)³⁸⁾ 피는 성경 어디에서나 구속의 방식을 논할 때 나오곤 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만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주는 세숫대야의 역할을 하였다.³⁹⁾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명백히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롬 3:24,2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다.(엡5:2)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그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으셨느니라.”(롬 4:25)고 하였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의 죽음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의 영생을 주셨고, **우리의 약함을 받으심으로**써 그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셨고, 우리의 **가난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의 풍요함을 주셨고, 무거운 **우리의 죄과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는 그의 의를 옷입혀 주셨다.⁴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고 공로를 얻었다. 화목이란 하나님의 진노가 선행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

37) Ibid., II, xvi, 5.

38) Ibid., II, xvii, 4.

39) Ibid., II, xvi, 6.

40) Ibid., IV, xvii, 2.

그러므로 그 의미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증오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진정되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이다.⁴¹⁾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질료인은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며, 형상인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고, 목적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2) 구원의 수단되심의 목적

① 속죄주가 되려 하심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증거하고 있다. “피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히9:22)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히9:26)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드리신 바 되셨느니라”(히9:28)⁴³⁾

그는 새 언약의 중보로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었다.(히 9:15)⁴⁴⁾

모든 성경은 그가 **우리의 속죄주가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선포하므로 그 이외의 **이유**나 목적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일이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약속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친히 나타났을 때에 그가 강림하신 이유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일이라고 선포했다.⁴⁵⁾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음을 따르셨다. 그 목적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하므로 일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었던 것이다(히 2:14-15)⁴⁶⁾

41) Ibid., II, xvii, 3.

42) Ibid., III, iv, 21.

43) Ibid., II, xvii, 4.

44) Loc. cit.

45) *Institutio 1559*, II, xii, 4.

46) Ibid., II, xvi, 7.

② 저주를 제거하려 하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는 자신을 저주에 내맡겼다는 뜻이 된다. 그것도 그래야 했던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니 오히려 우리 위에 임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옮겨짐**으로서 우리로부터 제거되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율법에도 예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죄를 드리는 제물과 보상을 **חַטָּאת** (히브리어의 원어는 죄 그 자체)라고 불렀다. 이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경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정화의 제물과 같은 것임을 암시하려 했다. 모세의 제사에서 비유적으로 묘사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완전한 보상을 치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חַטָּאת**, 즉 선지자들의 말 그대로(사 53:10, 5), 죄를 위한 보상의 제물로 드렸는데 그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과 형벌은 제거되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그치게 된다. 사도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고 가르침으로서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였다. 바울이 죄에 관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느니라.”(롬 8:3)고 한 것도 같은 의미이다. 아버지께서는 죄에 대한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옮겨질 때 죄의 세력을 말하셨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보상을 다 치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상의 제물로서의 죽음을 아버지께 드리셨다”는 것이다. 이로 선지자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라는 말의 의미는 분명해진다. 즉 불의로 인한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서는 이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다**. 사도의 증거와 같이 그리스도가 못박힌 십자가가 이를 상징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갈3:13-14, 신21:23) 베드로 역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벧전 2:24)고 함으로써 같은 것을 말하였다. 이는 저주의 바로 그 상징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던 짐을 그가 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⁴⁷⁾

47) Ibid., II, xvi, 6.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 값을 치룸으로써 그들에게 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가 저주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익할 것이며, 모순이기도 하다. 또 이사야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라는 증거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부과된 형벌을 그가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시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24의 말씀은 모호한 점을 제거해주시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그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저주의 짐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였던 것이다.⁴⁸⁾

(3) 구원의 수단되심의 결과

①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칼빈은 계속해서 그의 기독교강요 3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죽음을 따르셨다. 그 목적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하므로 일생에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었던 것이다.(히 2:14-15) 이것이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첫열매**인 것이다.⁴⁹⁾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죽음이 소멸되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되살아나 그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효력을 나타내게 되었다.⁵⁰⁾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25)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⁵¹⁾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됐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의 피

48) Ibid., II, xvii, 4.

49) Ibid., II, xvi, 7.

50) Ibid., II, xvi, 13.

51) Ibid., II, xvii, 5.

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고 그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보상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7)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마26:28; 눅22:20) 만약 그리스도의 피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 값으로 만족함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 점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상의 모든 희생을 그리스도와 대치시켜 전에 상징으로 보여 준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세가 “불의는 속죄될 것이요 죄는 도말하고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출 34:7; 레 16:34)라고 자주 말한 것을 안다. 요컨대 구약의 상징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과 효력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피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히9:22)라고 하여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결론하기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히9:26)고 결론지었다. 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드리신 바 되셨느니라”(히9:28)고 하였다. 그보다 앞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하였다.(히 9:12)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논한다. “..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3-14) 우리는 만약 우리가 그의 희생이 보상과 진정과 속죄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우 약화될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조금 후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9:15)고 한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다.(사53:5)⁵²⁾

(4)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공로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52) Ibid., II, xvii, 4.

합당하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제거하지는 않으나, 그것에 선행한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가 은총의 기반**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는 공로의 시작이 그가 아닌 하나님의 작정으로까지 소급하여 올라가서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유독 **그를 증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공훈과 대치한다는 것은 무지한 짓이다. 한 일의 하위(下位)에 있는 것은 그 일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거저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보다 하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도 우리를 위해서 중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순종은 각각 그 입장으로 볼 때 우리의 행함과 대립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떠나서 그리스도께는 다른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이요, 또 그렇게 한 것은 그가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그의 순종으로써 우리의 범죄를 도말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위하여 이런 방식의 **구원을 주시도록** 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적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대립시키는 것과 같이 합당하다.⁵³⁾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공적을 결합시킨다. 이러한 구분은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추론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3:16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일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본다. 말하자면, 최고의 원인 또는 기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제 이위 및 후속적인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는 형상인(形相因)에 불과하다고 항의한다면, 그럴 경우에 그는 여기 인용된 말씀이 뜻하는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축소하는 것이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의 질료(質料)를 그에게서 구해야 한다. 여러 성경 구절이 이 점을 분명히 증명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 4:10)⁵⁴⁾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고 가르치고 난 후에 동시에 이어서 그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엡1:4-

53) Ibid., II, xvii, 1.

54) Ibid., II, xvii, 2..

5)55)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 자들을 어떻게 은혜로 받아 주시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그와 화해케 되었을 때 나타난 그의 사랑에 의해서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의의 원천이시다. 따라서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원수와 심판자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설명하듯이, 사랑의 시초는 의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이 뜻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엡2:3)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노역을 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 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는 때마다 이 구별이 나타난다.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얻으신 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로부터 나온다는 찬미를 아버지와는 별도로 그에게 돌리는 것이 타당치 않기 때문이다.⁵⁶⁾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결과 중생을 위해서 아버지에게서는 원인을, 아들에게서는 질료(質料)를, 그리고 성령에게서는 효력을 얻고 말하자면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다.⁵⁷⁾

3. 형식적 원인 (기구적 원인, *formalis vel instrumentalis causa*)

: 믿음

위에서 보듯이 칼빈에 의하면, 우리의 죄로부터의 용서의 원인, 구원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기독교론과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택으로 참여자가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교제를 통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형식적 원인인 **믿음으로** 그에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55) Loc. cit.

56) Loc. cit.

57) *Institutio 1559*, IV, xv, 6.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참여자가 되는가?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그 자신과 아울러 그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의 몸이 죽음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말은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다.⁵⁸⁾

즉, 우리는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은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칼빈은 그 믿음을 구원의 형식적 원인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형식인으로써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칼빈에 따라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a. 형식적 원인인 믿음의 기능

(1) 그리스도의 받으신 유익을 받는 수단이다.

성부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사적인 용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에게 주신 그 유익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밖에 머물고 계시고 우리가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모든 고난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 여전히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우리의 “머리”(엡4:15)이며, “많은 형제 중에서 맡아들”(롬 8:29)이며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되며(롬 11:17)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갈3:27)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기까지 자라나지 않는 한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⁵⁹⁾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의 기능이라고 하겠다.

형상인은 믿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롬3:25) 라고 한 말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형상인**이 나타나 있다. 에베소서 1

58) Ibid., IV, xvii, 5.

59) Ibid., III, I, 1.

장에서도 그는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실현되며, **믿음으로 받게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완전히 빛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엡 1:3-14)⁶⁰⁾

그러나 복음을 통해 제공된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건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들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더 높은 견지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주시는 띠(bend)인 것이다.⁶¹⁾

b. 형식적 원인인 믿음의 성격

(1) 구원의 2차 원인이다.

칼빈은 형식적 원인인 믿음을 제 2위 또는 후속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일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본다. 말하자면 최고의 원인 또는 기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제 이위 및 후속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다.⁶²⁾

(2) 마음의 어떠한 행위도 배제하는, 선물을 받는 성격으로써의 방식을 취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로마서 9:11,16)

16절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인격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의지가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60) Ibid., III, xiv, 17.

61) Ibid., III, I, 1.

62) Ibid., II, xvii, 2.

최소한도로, ‘믿음으로 된다’고 했을 때의 그것은 아무런 값없이, 사람의 활동이 전혀 개입함이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한것은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거저 받는다’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선물을 받는다**는 성격에서의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행위가 개입되어서 구원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너희 믿음으로 되었다는 말을 결국,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고 했을 때, 그 예표로서 예수께서 과거의 표상을 들어, 구리 뱀을 본 자라고 하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 3:14) 그 모세 시대는 구리 뱀을 본 자는 병이 낫는다.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이다. 그 선물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단지 보기만 하라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준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말했다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서의 좀더 깊게 확대하면, 의지로 말미암지 않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마음의 행위도 사실상은 부정하는 의미라고 하겠다.** 그러면 그것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최소한대로, 참된 믿음이라 했을 때는, 지식이 개혁주의적 의미로 들어있다고 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감정이, 그리고 의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면, 그러면 그렇지 않는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칼빈 말대로 결국 형식적인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통과, 그런 방식으로 통과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런 개념,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 원인, 기구적 원인(formal cause, instrumental cause)인 것이다. 믿음이란 그렇게 인간 자체로 볼 때는 그렇게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fiducia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인(formal) 원인(causa)밖에 아니라는 것이다.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령이 모든 작업을 하시고 믿음의 형식의 방식만 통하게 하신다는 것이다.⁶³⁾

우리는 기독교강요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형식인인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능동적 의미(‘기여한다’)라기 보다는 수동적 의미(‘받는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63)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2001년) 강의 내용 중에서 인용.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믿어야만 양심이 평안하며 기도에 기쁨이 있다. 칭의에 관한 한 믿음은 수동적인에 불과하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무엇을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이다.⁶⁴⁾

c. 형식적 원인인 믿음의 근원

(1) 하나님의 선택하심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형식적 원인인 믿음의 근본적 원인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

믿음은 선택의 역사이지만,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까지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떤 이유로 선택을 믿음에 의존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라야 선택이 효과를 나타내며 여기서 그 타당성을 얻는 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실 때, 우리는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며 결과가 원인을 압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⁶⁵⁾

(2) 믿음의 근원과 적용자 되시는 성령

칼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질료인은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며, 형상인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고 목적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형상인은 그냥 믿음이 아닌, 성령의 조명으로서의 믿음이라는 사실이다.⁶⁶⁾

d. 형식적 원인인 믿음의 효과

64) *Institutio 1559*, III, xiii, 5.

65) *Ibid.*, III, xxiv, 3.

66) *Ibid.*, III, xiv, 21.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를 얻는 능력이나 구원을 얻는 능력뿐만 아니라, 의와 구원 모두 다 받는다.⁶⁷⁾

4. 목적과 관련해서의 원인(목적인, finalis causa)

구원의 원인으로써의 목적인(finalis causa)은 신적 의의 증명과 선의 찬양이라고 증거되어 있다. 목적인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증거와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된다고 증거한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롬 3:26) 고 부언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인을 가리킨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는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이 일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실현되며, 믿음으로 받게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완전히 빛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엡 1:3-14)⁶⁸⁾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질료인은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며, 형상인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고, 목적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⁶⁹⁾

C. 4가지 인과론의 성경적 근거와 해석

1. 4가지 인과론이 드러난 성경구절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서정에서 인과론과 관련해서 원인론에 있어서의 가

67) Ibid., III, xv, 6.

68) Ibid., III, xiv, 17.

69) Ibid., III, xiv, 21.

장 중요한 효력적인 원인, 또는 질료적인 원인, 그 다음에 형식적인 원인, 기구적인 원인, 그 다음에 결과적 원인, 이런 인과론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3가지가 들어있는 본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과론이 4가지를 다 포함하는 로마서 3장이든지 또한 에베소서에는 가장 사실적으로 그 인과론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으로 그렇게 칼빈은 해석하고 있다.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동력인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선언한다. 물론 질료인은 그리스도인데, 그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 오셨다. 형상인은 믿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요한은 이 세가지 원인을 한 문장에 포함시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⁷⁰⁾

a.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3가지 원인을 한 문장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요한복음 3:16절은 주로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구절은 전도용으로 사용되어지기 보다는 훨씬 더 인과적인 그러한 중요한 구절이다. 칼빈선에서 이해된 것은 인과적으로 이해됐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웨슬레파에서 전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오히려 이 구절은 인과론의 3가지 중요한 원인이 들어있는 구절인 것이다.⁷¹⁾

즉, “이 구절(요3:16)에서의 믿음은 형식적 혹은 기구적 원인을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한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도 3:16을 보면, 물론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 그 구절을 해석해야하는 당위성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3:16은 특별히 바로 뒤의 문맥을 봐도 절대 그렇게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⁷²⁾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믿음의 조건, 그러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어떻게 믿게 되는가에 관련해서, ‘은혜로 받는다.’ 이런 방식과 관련해서의 문맥인 것이다.⁷³⁾

70) Ibid., III, xiv, 17.

71)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5월 28일) 내용 중에서 인용.

72) Loc. cit.

b. 로마서 3:23-26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에서는 앞선 세 가지 원인들 이외에도 즉, 그것을 포함해서 네 번째 원인 즉, 목적인까지 포함되어 있다.

목적인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증거와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된다고 증거하고, 같은 곳에서 다른 세 가지도 명백하게 말한다. 그는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 엡 1:6)⁷⁴⁾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자비로 우리를 포용하신 것을 제일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한다.(롬 3:24)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준 질료인이 여기에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롬3:25) 라고 한 말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형상인이 나타나 있다. 끝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롬 3:26)고 부언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인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의는 화목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바울은 화목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언급한다.⁷⁵⁾

c. 에베소서 1:3-14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는 이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⁷⁶⁾ 이 일은 그리스도의 중재로 실현되며, 믿음으로 받게

73) Loc. cit.

74)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질료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형식인)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인)

75) *Institutio 1559*, III, xiv, 17.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완전히 빛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엡 1:3-14) 즉,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공휼로부터 은혜 안에 받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중보로 행하되 믿음으로 받아 신적 선의 영광이 완전하게 빛나도록 모든 것을 행한다(nos recipi a Deo in gratiam ex mera misericordia: id fieri Christi intercessione: fide apprehendi: omnia in hunc finem, ut divinae bonitatis gloria ad plenum)”는 것이다. 이곳에 네 가지 원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증거되고 있다.⁷⁷⁾

그래서 원인을 말할 때는 지금 3절에서 14절에서 나오는 이 표현으로 요약된 이런 내용으로 소위 우리 구원의 인과론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D. 그 형식인은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 모든 사건의 참된 원인은 감추어져 있으며 거기로부터 구원이 말미암았다.

에베소서 1:3-14.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공휼로부터 은혜 안에 받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중보로 행하되 믿음으로 받아 신적 선의 영광이 완전하게 빛나도록 모든 것을 행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휼로부터 은혜안에’ 라고 했을 때, 이 공휼로부터가 바로 예정론이라 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1:3-14을 우리가 인간으로 따진다면

76) 믿는 자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걸려 있다는 일 및 그같은 **이유가 하나님의 자유하신 계획** (beneplacium 본래는 <특별은혜>를 의미한다) **이외에서 구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은 바울이 에베소서 제 1장에서 분명하게 논술하고 있는 일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엡 1:3-5)라고 하였다.(Johannes Calvinu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VIII: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1552) (Brunsvigae, 1870), p. 270: Quod ex aeterna Dei electione pendeat salus fidelium, cuius nulla praeter **gratuitum** eius **beneplacitum causa** reddi potest, disertata sunt Pauli verba primo ad Ephesios capite. Benedictus, inquit Deus, qui nos benedixit in Christo: sicuti nos in eo elegerat ante mundi creationem.)

77) *Institutio* 1559, III, xiv, 17. -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에서 재인용.

위의 4가지 원인이지만, 의미와 어떤 그 내용은 실제로 예정론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정론 이든지, 이런 모든 내용은 인과론적인 면에서 원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원인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은, ‘지금 내가 결정해서 그냥 구원이 이루어졌다.’ ‘믿음도 자기가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됐다.’든지 ‘의지의 어떤 결정이든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지금 구원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즉, 아르미니안 주의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당신이 **지금 이 시간에** 결정 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한 이러한 것을 어떤 신학적인 중심내용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인과론에서 아주 정면적으로 부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적도 원인이다.’ 라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도 인과론으로 관계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성취된 그 내용은, 단지 그 내용은 있는 그대로, 원인으로 있는 것이다. 질료적 원인으로 있는 것이다. 그것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든지, 모든 시대를 통해서 그러한 그 이루어진 내용, 성취된 내용은 질료적 원인을 갖는 것이다. 그런 원인 없이 하나님앞에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없는 것이다.⁷⁸⁾

그러므로 칼빈이 이 원인들에 대해서 논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그렇게 우리 밖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그 모든 부분이 우리의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행위를 믿거나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반대하는 원수라도, 만일 성경 전체를 부인할 생각이 없다면, 동력인이나 목적인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과 어떤 논쟁도 일으킬 수 없다. 그들은 질료인과 형상인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졌고, **마치 우리의 행위가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는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생각에 대해서도 크게 반대한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신 동시에 생명이시며, 의라는 이 은혜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가르칠 뿐이다.⁷⁹⁾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 은혜인 이유는 무엇인가?

칼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질료인은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며, 형상인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고, 목적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께서 영생을 상속하도록 자비로 예정하신**

78)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5월 28일) 내용 중에서 인용.

79)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III, xiv, 17.

사람들을 인도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할 때, 그의 일반적 경륜을 따라 선행을 수단으로 하여 그렇게 하신다. 주님의 경륜의 순서에서 앞서는 것을 따르는 것의 원인이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간혹 영생이 행위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영생이 행위의 결과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의롭다 하기 때문에(롬8:30), 처음 은혜를 다음에 오는 은혜의 원인으로 삼는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을 찾아야 할 때에는, 행위에서 해답을 구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⁸⁰⁾ 사도 바울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롬 6:23) 고 가르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는 왜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키는 것처럼, 의와 죄를 대조시키지 않는가? 왜 죄를 죽음의 원인으로 보는 것처럼, 의를 생명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가? 그것은 죽음은 사람의 행위에서 오는 결과이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렸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들은 원인보다도 전후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시오 앞에 있는 은혜를, 다음에 따르는 은혜의 원인으로 삼고, 그의 종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어느 것도 간과하지 않으신다.⁸¹⁾ 그리고 그 너그러우신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근원이며 시작인 값없이 주신 그의 선택을 항상 주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선물을 사랑하지만, 그 선물들의 근원은 선택에 있으므로 우리는 값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선물들을 저 제일 원인에 종속시키며, 그 선물들이 선택의 가치를 결코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⁸²⁾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80) Ibid., III, xiv, 21 : “nempe quos sua misericordia aeternae vitae haereditati destinavit, eos ordinaria sua dispensatione per bona opera inducit in eius possessionem. Quod in ordine dispensationis praecedat, posterioris causam nominat. Hac ratione ab operibus interdum vitam aeternam deducit; non quod illis referenda sit accepta; sed quia quos elegit, iustificat, ut demum glorificet (Rom 8, 30), priorem gratiam, quae gradus est ad sequentem, causam quodammodo facit. At quoties assignanda est vera causa, non ad opera iubet confugere, sed in sola misericordiae cogitatione nos retinet.”

81) Loc. cit. : “Denique istis loquutionibus series magis notatur quam causa: quia Deus gratias gratiis cumulando, ex prioribus causam sumit secundas addendi, ne quid ad locupletandos servos suos omittat;”

82) Loc. cit.

말한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일은 그가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다.⁸³⁾

또한 모든 사건의 참된 원인은 감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만사는 확실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우리들이 보기에 그것은 우연적이다.⁸⁴⁾ 대부분의 사건의 질서, 이유, 목적 및 필연성은 하나님의 뜻(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을 다스리시며 그 목적을 향해 운명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선견하시지 않은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 부동한 신념으로 남아있는 것이다.⁸⁵⁾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의 고삐로 모든 사건을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시는가? 우리에게서는 우연으로 보이는 것(contingentia)도 신앙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secretum Dei impulsum)이었다고 인정한다.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은밀한 역사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⁸⁶⁾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체의 변동이 하나님의 손의 은밀한 활동에서 온다는 것은 분명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⁸⁷⁾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거스틴은 선택에 관한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요 6:37),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6:39)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증과 보호를 받게 되는 출발은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혹 어떤 사람은 여기서 논의의 방향을 돌려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한 자들만이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된다고 항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무수한 군중이 배도하여 전세계를

83) *Institutio 1559*, III, xxiii, 2, 3.

84) *Ibid.*, I, xvi, 9 : “Dicam igitur, utcunque ordinentur omnia Dei consilio certa dispensatione, nobis tamen esse fortuita.”

85) *Loc. cit.* : “Manet tamen nihilominus cordibus nostris infixum, nihil eventurum quod non Dominus iam providerit.”

86) *Loc. cit.* : “..sed quae nobis videtur contingentia, **secretum Dei impulsum** fuisse agnoscet fides. Non semper quidem appaert similis ratio; sed indubie sic habendum est, quaecunque cernuntur in mundo conversiones, ex secreta manus Dei agitatione prodire.”

87) *Institutio 1559*, I, xvi, 9.

뒤흔들지라도 선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 하늘보다도 더 견고할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요 6:44-45)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이라”고 하신다.(요 13:18)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어야만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때에, 인류가운데서 특별한 일부분, 곧 그의 덕의 성실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결정에 의해서 구별되는 일부의 사람들을 가리키신다.**⁸⁸⁾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까운 원인에서 뿐만 아니라, 먼 원인에서까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가 그 원인을 알지도 못하는 때, 원인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측 못할 때, 그 결과의 모든 것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친히 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III. 형식적 원인으로써 믿음에 대한 칼빈의 이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앞에서 칼빈의 구원론이 근거한 4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중 하나인 형식적 원인에 대해서 이곳에서 더욱 중점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점들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마치 인간의 의지의 결정에 의한 믿음, 즉 형식적 원인이 그 자신의 구원의 절대적 원인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믿음의 방식조차도 사실상은 그 방식, **형식적 원인으로써 있는 것이지, 더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

88) Ibid., III, xxii, 7, 9.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느 시기에 부르심에 비로소 있는 것이 아니며, 또는 어머니 배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 바로 만세 전에 그분의 뜻 안에 있었고, 삼위일체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요, 인간의 공로라든지, 인간이 하는 역할은 근원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예정이요, 영원 전의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언약인 것이다.⁸⁹⁾ 이러한 사실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즉, 그는 구원의 원인중 하나인 형식적 원인 또한 역시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음이요, 그 또한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형식적 원인인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의지에 근원하지 않으며(사람의 이해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절대적 원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최종의 원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그 원인이 있으며(유효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질료적 원인이 되어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정된 자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의 형식적 원인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절대적 기반을 두고 있는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인식되며, 또한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 즉, 구원의 형식적 원인의 그 근본적 원인, 최종적 원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하심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근거하여서, 그의 삼위일체론과 그가 신학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살펴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아울러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하심과 섭리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의 형식인으로써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인되심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그에 바탕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원인되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89)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3월 19일) 내용 중에서 인용.

그러한 확인으로 인해 인간의 이해의 영역에서 볼 때, 가장 큰 구원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그 형식적 원인으로써의 믿음에 대하여 바른 자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진행해 가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어거스틴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그 최종원인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다. 그를 위해 필자는 기독교강요에서 기술되는 ‘형식적 원인으로써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은 논지를 도출하고, 그것을 서술해 나가고자 한다.

1. 형식적 원인인 믿음은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2. 형식적 원인인 믿음은 구원의 전적인,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그것은 구원의 4가지 원인중의 한 원인(형식적 원인)으로써 있다.

그러면 형식적 원인인 믿음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그것은 첫째, 사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에 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원인이 되신다.

둘째,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 형식인 즉,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나로부터 발원하는 의지의 결단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위의 내용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근거로 하여 밝히고자 하여 필자는 본장에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하신 예정하심, 그리고 그분의 원인되심에 대하여 다루고, 둘째로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인되심과 형식적 원인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인되심 그리고 성령의 원인되심에 대하여 이어서 셋째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구원의 서정과 관련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A.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하신 예정하심, 그리고 그분의 원인되심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그분의 예정하심 즉,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언약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드러내고 있는 구원의 원인중 하나인 형식적 원인, 그것도 역시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임을, 그리고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을 근거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람의 구원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구원의 형식적 원인인 믿음의 그 근본원인, 최종원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하심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 여기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위한 **삼위일체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아울러 삼위일체의 속성에 대해 정리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구원의 성취, 그 서정에 대해 다루면서 왜 삼위일체에 대하여 다루어야 하고, 예정에 대하여 다루어야 하는 것인가 물을 수 있겠다. 즉, 삼위일체론, 예정론은 구원의 성취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리고 구원의 서정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이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 모든 내용과 체계가 성경론으로 시작해서 삼위일체론, 그리고 이어서 삼위일체와 창조와 섭리와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이 예정론에 어떤 뿌리를 두고 있고, 그것과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서정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어떤 조그만 선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의 그 신인 협동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위의 개혁주의 신학의 체계 자체가, 전 체계 자체가 그것을 부정하게 하기 위한 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⁹⁰⁾

삼위일체론은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하신 것이라는 이유로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계시의 최고 정점에 있다는 점에서 특히 삼위일체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삼위일체론은 하나의 론(論)이 아니다. 모든 역사를 보는 시각과 같이 또는 조직신학 전체에 있어서의 가장 뿌리가 되는 밑바닥이요 토대로서의 삼위일체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여기에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근거하여서, 먼저 칼빈의 삼위일체론을 살펴보고, 칼빈이 그의 신학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교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살펴보고,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아울러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하심과 섭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90)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4월 2일) 내용 중에서 인용.

1.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a. 칼빈의 삼위일체론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의 원인에 있어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질료인은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며, 형상인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고 목적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⁹¹⁾ ‘우리는 우리의 정결과 중생을 위해서 아버지에게서는 원인(하나님의 원인되심)을, 아들에게서는 질료(質料)(성자의 질료인)를, 그리고 성령에게서는 효력(성령의 원인되심)을 얻고 말하자면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한다.’⁹²⁾

이와 같이 구원의 원인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칼빈은 성경에 근거해서 삼위일체의 통일성과 동등성을 말하는데 이는 칼빈이 원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1) 삼위일체 교리의 근원

① 성경이 삼위일체 교리의 유일하고 독특한 근원이다. 성경은 창조이래 삼위를 포함하는 하나님 한 본질을 가르쳐 준다.⁹³⁾ 무한하시며 영적인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보편적인 미혹을 제거할 뿐 아니라 세속 철학의 교묘성을 논박하기에 충분하다.⁹⁴⁾

② 하나님의 무한성은 우리의 감각으로 감히 그를 측량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그의 신령성은 그에 관하여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상상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신인동형론자들이(anthropomorphites) 성경이 자주 하나님의 입과 귀와 눈과 손과 발을 표현한 사실을 들어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을 상상해내지만 이는 쉽사리 반박될 수 있는 것이다.⁹⁵⁾

91)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I, xiv, 21.

92) Ibid., IV, xv, 6.

93) Ibid., I, xiii, 1. Unicam Dei essentiam ab ipsa creatione tradi in scripturis, quae tres in se personas continet.

94) Loc. cit.

95) Loc. cit.

(2) ‘삼위일체’라는 용어

① 다만 성경에 의해서 증거되며 입증될 뿐인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⁹⁶⁾

② “삼위일체”, “위”(位)등과 같은 표현은 성경 해석에 도움을 주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에 대한 확실한 규칙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과 일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해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명료한 말로 설명하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그 설명은 경건되게 그리고 신실하게 성경의 진리 자체에 봉사하며 되도록 적고 신중하며 적당한 기회에 사용된다. 교회가 절대적 필요에 의하여 “삼위일체”와 “위”(位)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⁹⁷⁾

③ 교회는 거짓 교사들(아리우스나 사벨리우스와 같은)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필요한 “삼위일체”, “위”와 같은 표현에 주시해 왔다.⁹⁸⁾

(3) 하나님의 단일성과 삼위

① 경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은 인간의 사악한 이론을 분쇄하기 위하여 진실로 한 하나님 속에서 세 고유성(固有性)이 인식될 수 있다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로 사악한 계략에 대항하여 그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한 분 하나님(the one God) 속에 위(位)의 삼일성(a trinity of persons)이 존재하며, 혹은(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유일성(the unity of God)속에 위의 삼일성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확언하였다.⁹⁹⁾

②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천명하심으로서 자신의 삼위(三位)안에서 명료하게 명상되도록 제시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중(三重)으로 되었다거나, 하나님의 한 본질이 삼위로 나뉘었다고 할 수 없다. 사도는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 성부께서 성자와 구별되는 실재(subsistence)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였다¹⁰⁰⁾. 그러므로 ‘본체’

96) *Institutio 1559*, I, xiii, 3.

97) Loc. cit.

98) *Ibid.*, I, xiii, 4.

99) Loc.cit. ..in uno Deo subsistere, seu (quod idem erat) in Dei unitate subsistere personarum trinitatem.

100) *Institutio 1559*, I, xiii, 2. ... haud dubie aliquam patris subsistentiam assignat in qua differat a filio.

혹은 ‘위격’(hypostasis)을 ‘본질’(essence)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란 단일하고 분할될 수가 없으며 그 안에 부분이나 파생없이 총체적인 완전성 속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¹⁰¹⁾이기 때문이다.

한 위가 다른 위와 구별되는 세 실재(subsistence,), 위격(hypostasis)이 있다. 실제로, 이것은 본질의 구별(distinction, 이 아니다. 본질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다.¹⁰²⁾ 그러므로 만약 사도의 증언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삼위(휘포스타시스)가 있다 (tres in Deo esse hypostases)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③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면서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고, 각각 특유한 자질을 갖고 계시다.¹⁰³⁾ 즉, 한 하나님의 본질이 단일하고 분해할 수 없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속한다는 사실과 반면에 어떤 특성에 있어서(by a certain characteristic) 성부는 성자와 다르고, 성자는 성령과 다르다는 사실이 성경으로부터 입증되고 있다.¹⁰⁴⁾

(4) 가장 중요한 개념의 의미

① “위격”(person)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있는 “실재”(subsistence)를 뜻하는 것이다.¹⁰⁵⁾

② “실재”(subsistence)는 “본질”(essence)과는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요, 그 나름의 특유한 표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요 1:1)고 한 요한의 말은 잘못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곧 이어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덧붙여 우리에게 본질의 유일성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므로 여기서 실재(subsistence)의 개념이 명백해진다. 즉 이 실재는 본질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지만 또 동시에 그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표시를 지닌다.¹⁰⁶⁾ 그러므로 세 실재는 각각 나머지 실재와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101) Loc. cit. :Nam quum simplex et individua sit essentia Dei, qui totam in se continet, neque portione aut deflexu, sed integra perfectione,

102) Loc. cit. :Haec porro distinctio non est essentiae, quam nefas est facere multiplicem.

103) *Institutio 1559*, I, xiii, 5.

104) *Ibid.*, I, xiii, 22. .. simplicem et individuum esse essentiam unius Dei, quae ad patrem et filium et spiritum pertineat; rursus patrem proprietate aliqua differre a filio, et filium a spiritu.

105) *Ibid.*, I, xiii, 6. Personam igitur voco subsistentiam in Dei essentia.

특별한 자질(a special quality)에 의해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다.¹⁰⁷⁾

③ 여기서 “관계”라는 말이 명백하게 표현되는데, 하나님을 단순하고 무한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름은 성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비교되자마자 양자는 고유한 자질에 의해 서로서로 구분한다.¹⁰⁸⁾

④ 또한 각자에게 고유한 것은 무엇이든 서로 교류할 수 없다. 이는 구별되는 표시에 의해 성부에게 돌릴 수 있는 것 가운데 어느 것도 성자와 일치하거나 옮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안에는 본질의 유일성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 일종의 분배와 경륜(dispositionem vel oeconomiam)이 있다.¹⁰⁹⁾

(5)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차이

① 성경에서 표현된 차이는 이런 것이다. 즉 활동의 시초 및 만물의 원천과 기원은 성부에게 돌려지고, 지혜와 모략 및 만사의 지배권은 성자에게 귀착되고, 그러한 활동의 힘과 효능은 성령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힘이 분리된 채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고로, 성부의 영원성은 동시에 성자와 성령의 영원성이다.¹¹⁰⁾

② 우리는 영원에서 ‘먼저’나 ‘나중’의 개념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서(次序)를 고려해 보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일은 아니다. 즉 성부가 제1위로 간주되고, 다음에 그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왜냐하면 각 인간의 마음은 천성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다음에 그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획의 결정을 수행하는 능력을 생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자는 성부로부터만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말한 것이다.¹¹¹⁾

106) Loc. cit. : ... hinc emergit illa subsistentia, quae etsi individuo nexu cum essentia coniuncta est, nec potest separari, specialem tamen habet notam qua ab ipsa differat.

107) Loc. cit.

108) Loc. cit.

109) Tertullian, 「Against Praxeas」 ii, ix(CCL Tertullianus II. 1160, 1168f.; 번역. ANF III. 598,603f.).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xiii, 6. p. 249에서 재인용.

110)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I, xiii, 18.

111) Loc. cit.

(6)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차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일성을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자는 성부와 함께 전혀 동일한 성령을 공유하고 계시므로 성부와 더불어 한 하나님인 것과 또 성령도 성부와 성자의 영인 까닭에 성부, 성자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왜냐하면 각 위격(hypostasis)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특질이 각 위격에 속한다는 이러한 특질부여와 더불어 전체적인 신적 속성이 이해된다.¹¹²⁾

② 어거스틴은 본질의 어떤 차이에 의하여 하나가 다른 하나와 분리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말하기를 차이를 나타내는 이러한 칭호들이 뜻하는 바는 그들의 상호관계이고, 그들을 하나로 규정하는 바로 그 본질은 아니다.¹¹³⁾ 이같은 의미에서, 고대인들은 때로 성부를 성자의 기원이라고 가르치고 때로 성자가 그 자신에게서 기인한 신성과 본질을 갖고 있고 따라서 성부와 동일한 기원을 갖고 있다고 선언한다.¹¹⁴⁾

③ 어거스틴이 밝힌 대로,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며 성부에 대해서는 아들이라고 불리운다. 또한 성부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고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라 불리운다. 그가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한, 그는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불리우며 또한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한에 있어서 그는 동일한 하나님이다.¹¹⁵⁾

④ 그러므로 성부와 상관없이 단순히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를 독립적 기원이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성부와 그의 관계를 주목할 때 우리는 성부가 성자의 기원이라고 말해도 옳다. 「On the Trinity」의 제15권 전체에서 어거스틴은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관심을 보인다. 실로, 우리는 너무 민감하게 숭고한 신비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공허한 사색 속에서 방황하는 것보다는 어거스틴이 제시한 관계로 만족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¹¹⁶⁾

112) *Institutio 1559*, I, xiii, 19. Siquidem in unaquaque hypostasi tota intelligitur natura, cum hoc, quod subest sua unicuique proprietas.

113) Loc. cit. His appellationibus quae distinctionem denotant, inquit Augustinus, hoc significatur quod ad se invicem referuntur; non ipsa substantia qua unum sunt.

114) Loc. cit.

115) Augustine, 「Psalms」, 시 109: 13(MPL 37.1457; 번역. NPNF [시 110편] VIII. 524f.); John's Gospel」 i-v (MPL 35. 1682f.; 번역. NPNF VII. 222); 「Psalms」, 시 68.5(MPL36.895; 번역. NPNF [시 69편] VIII. 30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I, xiii, 19. p. 278에서 재인용.

116)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I, xiii, 19.

(7) 삼위일체 하나님

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란 이름에는 유일하고 단순한 본질이 함축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세 분의 위(persons) 혹은 위격(hypostasis)을 이해한다.¹¹⁷⁾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개별화되지 않고 언급될 때에는 언제나 성부를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자와 성령도 가리키는 것이다.¹¹⁸⁾

② 그러나 위격들에 있는 독자적인 특질들에는 순서가 있다. 예를 들면 성부 안에 시작과 근원이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또는 성부와 성령이 함께 언급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특히 성부에게 적용된다.¹¹⁹⁾

③ 이같이 본질의 동일성(unity of essence)은 보유하고 합리적인 순위는 보존된다. 그러면서 성자와 성령의 신성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¹²⁰⁾

b.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우리는 칼빈의 삼위일체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에게 있어서의 어거스틴의 영향은 지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그의 신학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의 기독교강요를 보면, 그 구조가 마치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사도신경에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며,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구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 강요인 것이다. 단순히 사도신경에 있어서 성부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성자를 다루고 성령을 다루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어거스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칼빈이 그의 삼위일체론에서 언급하기를,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숭고한 신비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공허한 사색 속에서 방황하는 것보다는 어거스틴이 제시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그에게 있어서 어거스틴

117) Ibid., I, xiii, 20. nempe quum profiteamur nos credere in unum Deum, sub Dei nomine intelligi unicam et simplicem essentiam, in qua comprehendimus tres personas vel hypostaseis.

118) Loc. cit.

119) Loc. cit.

120) Loc. cit.

의 영향을 알 수 있다.¹²¹⁾

그러면, 칼빈이 근거하고 있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 어떤 것인가?

그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삼위일체론」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²²⁾

(1) 삼위일체 그 존재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¹²³⁾ 하나님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한 분 하나님이시다.”¹²⁴⁾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말하는 것이다.¹²⁵⁾ 어거스틴의 이러한 입장은 성경의 문자적 모든 말씀들을 버리지 않으려는 정신에서 생긴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그의 가르침이 비성경적 사색으로 일괄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여러 이단적인 사고를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존재론적인 사고나 그의 인식론적인 기본입장들이 뒤섞여서 산출된 성경해석의 산물이라는 것이다.¹²⁶⁾

① 삼위일체의 구조적 이해

먼저 이러한 바탕위에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서의 그 진술 방식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구조화에 있음을 보게된다.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각 위격의 다양한 사역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¹²⁷⁾ 그러면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서 이해하였는가?

121) *Institutio 1559*, I, xiii, 19.

122) Augustinus, *Aurelii Augustini Opera*, Pars XVI, I: *De Trinitate* (Turnholt, 1968).

123) Ibid., VI, vii, 9: Nec quoniam trinitas est ideo triplex putandus est;

124) Ibid., XV, xxiii, 43: ... in illa unus Deus et dicatur et sit, nec in uno Deo sit illa Trinitas, sed unus Deus.

125) Ibid., VI, v, 7: Sicut autem substantia simul cum Patre et Filio, ita simul magna, et simul bona, et simul sancta, et quidquid aliud ad se dicitur.

126)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년. p. 38.

127) Ibid., pp. 24-40.

어거스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그들은 분리할 수 없이(inseparabiliter)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범교회의 고백으로 인정하고 있다.¹²⁸⁾ 그래서 어거스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이 역사한다¹²⁹⁾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는 성경전체를 해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자체에 관해서(ad se ipsa) 혹은 실체적으로(substantialiter)가 아니라, 상호간에 혹은 피조물과의 관계해서(ad invicem, aut ad creaturam) 상대적으로(relative) 각 위격들의 개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¹³⁰⁾ 그것이 바로 실체에 따른 것(secundum substantiam, secundum essentiam)과 우연에 따른 것(secundum accidens), 혹은 그 자체에 따른 것(ad se ipsum)과 상호관계에 따른 것(secundum relativum, ad invicem atque ad alterutrum) 사이에 구분하고 있다¹³¹⁾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별되는 세 가지 개념에 따라,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도 구조화를 이루게 된다.¹³²⁾ 물론 하나님에게는 변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없는대로 우연¹³³⁾한 것이 없기¹³⁴⁾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에 따라서 말하지 못한다¹³⁵⁾고 하였다. 그렇다고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실체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서(secundum relativum)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같이 어거스틴은 그의 「삼위일체론」의 5장에서 다음의 세 가지의 구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 첫째 구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삼위일체 자체에 관한 것이요, 둘째 구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들 중 어떤 것은 삼위간의 상호 관계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과 관계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8) Augustinus, *De Trinitate*, I, iv, 7: “이것이 정통 신앙이므로 또한 나의 신앙이다.”(Haec et mea fides est quando *haec est catholica fides*.)

129) Ibid., V, v, 8.

130)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년. p. 2.

131) Augustinus, *De Trinitate*, V, v, 6; V, vi, 7.

132) 김영규, p. 2.

133) Augustinus, *De Trinitate*, V, iv, 5 : “우연한 것은 그것이 속해 있는 존재가 변할 때에 흔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34) Loc. cit. : “Nihil itaque accidens in Deo, quia nihil mutabile aut amissibile”.

135) *De Trinitate*, V, v, 6.

㉠ 첫째 구조 -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본질에 대한 것.

(secundum substantiam, ad se ipsum, secundum essentiam)

어거스틴은 무엇보다도 굳게 지켜야 할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가장 우월하시고 거룩하시고 숭고하신 분 그 자신에 관해서 하는 말은 모두 본체(또는 본질)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¹³⁶⁾ 이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구조의 첫 번째로 삼위일체 자체에 관해서(ad se ipsa)이다. 예컨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또는 ‘위대하시다’고 할 때나, 그 밖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은 삼위일체로서 그 한 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어서 서술하기를, 그러나 어떤 것에 관해서 하는 말은 그 본체가 아니라 관계에 관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고 있다.¹³⁷⁾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다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을 근거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이성을 근거로 삼는 이단자들이 주장하기를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같지 않다고 말한다. ‘낳는다는 난다, 또는 난다는 나지 않는다는 서로 다르며 서로 다른 본질이므로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말은 모두 그의 본질에 대한 말이다.’라는 것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반박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말은 모두가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니다.’¹³⁸⁾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 둘째 구조 -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위격 상호관계에 대한 것.

(ad se invicem in Trinitate)

: 하나님에 대해 말한 어떤 것은 삼위일체 내부의 관계에 대한 말이다.

“같은 삼위일체 안에서 어느 한 분에 대해서 하는 말은 그 분 자신(ad se ipsa)만을

136) Ibid., V, viii, 9 : “최고의 탁월성과 신적 숭고성이라 하는 자신에 관해서 하는 말은 실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년. p. 31.

137) Loc. cit. : quod autem *ad aliquid* non substantialiter sed relatiue;

138) *De Trinitate*, V, iv, 6 : nec tamen omne quod dicitur secundum substantiam dicitur.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과의 상호 관련하에서, 또는 피조물에 관련해서(ad invicem, aut ad creaturam)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말은 실체적으로(substantialiter)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relative) 하는 것이 분명하다.”¹³⁹⁾

이와 같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말이 그 모두가 그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고 관계에 따라서 말할 수도 있다고 한다. 즉 성자에 대한 성부의 관계나 성부에 대한 성자의 관계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¹⁴⁰⁾

성부는 전신성의 근원(totius deitatis principium, totius divinitatis principium)이다.¹⁴¹⁾ 이는 삼위일체 안에 상호 자신과 관계해서(ad se invicem in Trinitate) 성부라는 이름이 성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성부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부는 상대적으로 성자에 대해서 근원(principium)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¹⁴²⁾ 오직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성부라고 부르며, 따라서 아들도 오직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성자라고 부르는 것이므로, 이 명칭들은 본질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닌 것이다. 어느 이름도 그 자신에 관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상호 관계에 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부라고 부르는 분이나 성자라고 부르는 분은 그 자신들이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부이신 것과 성자이신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성부와 성자라는 이름은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고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⁴³⁾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은 상호관계에 있어서만 쓰는 것이다. 즉 서로 관계해서 필수적으로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㉔ 셋째 구조 -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것.

(ad invicem, aut ad creaturam)

: 어떤 변화와 관련해서, 즉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과 관계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님 자신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과의 관계

139) Ibid., V, xi, 12 : Quod autem proprie singula in eadem trinitate dicuntur nullo modo ad se ipsa sed ad inuicem aut ad creaturam dicuntur, et ideo relatiue non substantialiter ea dici manifestum est.

140) Ibid., V, v, : Dicitur enim *ad aliquid* sicut pater ad filium et filius ad patrem,

141) Ibid., IV, xx, 27, 29.

142) Ibid., V, xiv, 15.

143) Loc. cit. : non secundum substantiam haec dicuntur quia non quisque eorum ad se ipsum sed ad inuicem atque ad alterutrum ista dicuntur;

를 말하는 말들이 있다. 즉 피조물과 관계 관련해서 하는 말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 이러한 것은 다 관계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본질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를 맺게 된 피조물에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¹⁴⁴⁾ 그러므로 위치와 상태와 장소와 시간등은 하나님 안에서 고유하게 언급된 것이 아니라, 바꿈으로(translate) 혹은 비유에 의해서 언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하여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시편 102:27)라고 하여 마치 시간에 구애를 받는 듯이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그의 본성이나 본질적 존재에는 변함이 없으시다.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삼위 하나님이 한 실체이시며, 주체가심으로 수동적이신 때가 없으시다. 그러나 피조 세계의 특징인 시간성과 공간성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여 질 때,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고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이며 비유적으로 말하여 지는 것이다.¹⁴⁵⁾

이상과 같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석과 논의 및 표현에 있어서 삼위일체 자체에 관한 것과 위격 상호간 혹은 피조물에 관한 것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그는 실체에 따른 것(secundum substantiam, ad se ipsum, secundum essentiam)¹⁴⁶⁾과 우연에 따른(secundum accidens, secundum relativum, ad unvicem atque ad alterutrum)것으로 구분한다.¹⁴⁷⁾

위의 내용들이 바로 어거스틴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어거스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구조를 아는 것이다. 즉, 구조를 드러내는 일이 그의 작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삼위일체 사상인 것이다.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가 그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144) *De Trinitate*, V, xvi, 17.

145) *Ibid.*, V, viii, 9 : *Situs uero et habitus et loca et tempora non proprie sed translate ac per similitudines dicuntur in deo.*

146) *Ibid.*, V, vi, 7 : *"et ideo si quidquid ad se ipsum dicitur, secundum substantiam dicitur"*(그러므로 자신에 관계해서 하는 말은 본질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년. p. 31에서 재인용.

147) *Ibid.*, V, v, 6. p. 31에서 재인용.

것이 그의 삼위일체론을 쓴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고 내용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어거스틴의 배경은 모든 역사적으로 전제된 내용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것 없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삼위일체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시 말해서 어거스틴의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어거스틴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의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이며, 위와 같이 과연 그 구조가 무엇인가 하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나, 위격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러한 구조가 없이는 전혀 이해가 안된다는 말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구조가 반드시 모든 사역에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말할 때도 본질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서는 안될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전체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구조가 필연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필연적인 구조가 모든 곳에, 매 사역에 적용이 되어야 될 그러한 성격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구조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전제되는 것이며, 어떤 사건의 경우에도 전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라는 것에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 뒤에 종속이 되는 것이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단지 신학에 있어 그 순서 중 앞에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기초인 것이다. 즉, 모든 매사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기초이며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2) 삼위일체의 사역에 대한 이해

: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삼위일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구조에 따라서 삼위일체의 자체에 관한, 첫째로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할 수 없이 존재하신 대로, 그렇게 분리할 수 없이 역사하시고(*quamvis pater et Filius, Spiritus sanctus; sicut inseparabiles sunt, ita inseparabiliter operentur*)”¹⁴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삼위일체는 분리할 수 없이 역사한다 (*inseparabiliter operari Trinitatem in omni re quam Deus operatur*)”¹⁴⁹⁾는 것이다. 이

148) Augustinus, *De Trinitate*, I, iv, 7.

149) *Ibid.*, I, v, 8.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글에서 어거스틴이 기본적으로 물었던 중심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¹⁵⁰⁾

즉, 이는 어거스틴이 성경해석의 산물로써, 그리고 전체 성경(*tota scriptura*)의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였던 그의 삼위일체론에서 핵심적으로 증명되는 내용이자 중심테제 이었던 바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으신다 (*Trinitatis inseparabiliter operatur*)”¹⁵¹⁾는 것이다.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이 존재하는대로, 분리할 수 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범교회의 신앙(*catholica fides*)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⁵²⁾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되지 않은 채 역사하신다(*pater et filius et spiritus sanctus sicut inseparabiles sunt, ita inseparabiliter operentur*)”는 삼위일체 어거스틴의 핵심적인 이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외적인 사역들(창조, 섭리, 구속 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외적 사역들이 위격에 따라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을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되지 않은 채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각기 특유하게 계시한다고 하는 이 모든 일도 그 하나 하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됨 없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고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성부만이 계획하시고, 성자만이 구속하시고, 성령만이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구분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언제든지 한 하나님의 분리할 수 없는 사역이면서도, 성경에서 각 위격에게만 돌려지는 사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삼위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인 것이다.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령은 피조세계에 대해서 한 창조주와 한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한 근원¹⁵³⁾이시라고 하였다.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구조 때문에 하나님의 외적사역으로서 창조와 섭리, 구원의 역사등이 삼위일체의 동시적 통일경륜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랜 전통적인 입장이 되었다.¹⁵⁴⁾

결론적으로 어거스틴에게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속성에 있어서도 결코 분리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확고히 하였다.

150)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년. p. 36.

151) Augustinus, *De Trinitate*, I, iv, 7, 8; II, x, 18.

152) 김영규, p. 36.

153) Augustinus, *De Trinitate*, V, xiv, 15.

154)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년. p. 33.

이와 같이 어거스틴은 전 성경을 해석할 때, 나눌 수 없으며,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삼위 동시적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확고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서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어거스틴의 입장에 따라 개혁주의자들도 하나의 공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는 은혜에 있어서나 자연에 있어서나 성령없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신다. 혹은 같은 신성안에 세 위격들의 존재의 질서를 요구한다”,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의 역사는 나누어지지 않는다(*opera Trinitatis ad extra sunt indivisa*)”, “외부를 향한 역사는 삼위일체의 세 위격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opera ad extra sunt communia tribus personis S. Trinitatis*)”이라고 하였다.¹⁵⁵⁾ 즉 이 점은 개혁주의 내에 일찍이 Ursinus 뿐만 아니라 Bucanus, Polanus 등으로 시작하여, 루터주의자들을 포함한 그 후 거의 모든 신학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내용이다. J.Ussher의 말대로, “하나님의 본질은 첫째나 마지막도 없고 전에 오거나 뒤에 오는 것도 없다. 이들 모두가 영원한 대로 그들 모두가 동시 순간적이다(*so they are all at once instant*)”는 말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¹⁵⁶⁾

이와같이 위격들 상호간에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관계해서도 하나요 동일한 실체의 성부, 성자, 성령이시요 창조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거스틴은 “공간적으로 같지 않고 특별히 물질적인 피조물 형태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계시될 수 밖에 없다... 그 자체에 있어서(*in se ipsa*) 분리할 수 없는 삼위일체는 볼 수 있는 피조물 형태에 의해서 분리되어 계시되지만, 삼위일체의 역사(*Trinitatis operatio*)는 성부나 성자, 혹은 성령에 고유하게 속한 것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분리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⁵⁷⁾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이러한 구조와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의 원인에 있어서

155) Melchior Leydecker, *Dissertationes Historico-Theologicae/ de / Spiritus S. Operatione/ in Origine Universi.....*, Trajecti ad Rhebum 1696, fol. A3.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년. p. 37에서 재인용.

156) J. Ussher, *A Body of Divinitie, or the Summe and Substance of Chrisian Religion*, London 1647, 84.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년. p. 37에서 재인용.

157) Augustinus, *De Trinitate*, IV, xxi, 30.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년. p. 37에서 재인용.

마치 삼위의 각 위격이 분리되어 나뉘어져 제 각각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어느 한 위격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그 원인은 바로 한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전제로 하여 기술해 나감을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에서 기술되는 바, 구원의 유효인으로써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질료인으로써의 성자 하나님의 순종, 형식적 원인인 믿음에 대한 성령의 역사하심등이 이처럼 따로 구별되어 서술이 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의 구조중 “피조물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되어 서술되는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2. 삼위일체의 속성 (구원의 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속성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삼위일체 신앙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은 결코 분할될 수 없다고 하였다. 실체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체는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 늘 함께 역사 하시며 모든 외적인 사역에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실체에 관해서만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에는 언제든지 한 실체로서의 하나님이 선하심을 말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속성과 관련해서는 한 실체에 따라서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다. 물론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성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세 분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이, 성부가 위대하시며, 성자가 위대하시며, 성령이 위대하시다고 하지만, 세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한 위대하신 분이다.¹⁵⁸⁾ 우리는 세 본질(essentias)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세 위대성을 말하지 않는다.¹⁵⁹⁾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서 위대하시다.’ 이러한 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최고의 삼위일체를 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렇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한 하나님의 능력, 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쓰여져야 한다.

“주는 광대하사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시 86:10)라는 말씀을 그들은 성부에 대해서

158) Augustinus, *De Trinitate*, V, viii, 9.

159) Loc. cit.

만 하는 것이라고 곡해하지만,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다. 성부는 선하시고, 성자도 선하시고, 성령도 선하시다. 그러나 선하신 분은 셋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¹⁶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원의 근원적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a. 원하는 것을 행하심.

하나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에 의하여 천지를 다스리시고 만사를 통제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계획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편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시 115:3)라고 말하고 있다. 그때, 거기에는 확실하고도 계획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피조물 안에는 변칙적인 힘이나 작용이나 운동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심과 뜻하심에 의해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 주관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활동의 시작이요 원인이시다.¹⁶¹⁾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고 질문한다면 “당신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너희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느냐?”라고 추궁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적 교만을 억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 구하려고 하지 않도록 하자. 모름지기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마니교도 반박론. 창세기론 1권 3장).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어거스틴의 이같은 말은 진실하며 나도 이것과 똑같은 생각이다. 이전에 내가 논한 것도 이 말과 다를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의 의지(意志)만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실의 최고 최선의 원칙이시다.”¹⁶²⁾

160) Loc. cit.

161)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I, xvi, 3.

162) Johannes Calvinu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VIII: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1552)* (Brunsvigae, 1870), pp. 312f: inquit

b. 하나님의 사랑,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구원의 제일 원인이 되신다. 요한복음 3:16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일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본다. 말하자면, 최고의 원인 또는 기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제 이위 및 후속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다.¹⁶³⁾

이같이 자비는 **선택의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을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전해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또한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다양성에서 하나님 심판의 놀랄만한 깊이가 드러난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결코 충분하고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¹⁶⁴⁾

구원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구원의 진정한 원인을 찾아야 할 때에는, 행위에서 해답을 구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롬 6:23) 고 가르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는 왜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키는 것처럼, 의와 죄를 대조시키지 않는가? 왜 죄를 죽음의 원인으로 보는 것처럼, 의를 생명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가? 그렇게 했더라면 완전했을 대조를 이렇게 변형시켜 기술했으므로 어느 정도 깨뜨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교로 한 가지 진리를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즉, 죽

sanctus(Augustino) cur ita fecerit Deus, respondendum est: Quia voluit. Quod si rogando pergas, cur ita voluerit, maius aliquid quaeris et sublimius Dei voluntate: quod inveniri non potest. Compescat igitur se humana temeritas, et quod non est, ne quaerat: ne forte, quod est, non inveniat. Vere hoc Augustinus, cui subscripsi. Sed ab his verbis nihil dissentaneum continet superior illa sententia: **Quod Dei voluntas optima sit et aequissima omnium quae statuit moderatio.**

163)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II, xvii, 2.

164) *Ibid.*, III, xxi, 1.

음은 사람의 행위에서 오는 결과이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렸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너그러우신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근원이며 시작인 값없이 주신 그의 선택을 항상 주목하게 하신다.¹⁶⁵⁾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구원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고 말한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시 119:76) 이것은 옳은 말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다만 그의 자비 때문이다.¹⁶⁶⁾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의 아버지가 되시며, 어떤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라고 하신다. 이때에, 이 말씀은 어떠한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주와 언약을 맺은 주의 종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¹⁶⁷⁾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성도들에게 열어주고, 하나님나라에서 그들이 설 영원한 자리를 마련하는 제일 원인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비하신** 주께서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고 계속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¹⁶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165) Ibid., III, xiv, 21.

166) Ibid., III, xiii, 4 “*Sic David, antequam salutem sibi ex Dei eloquio postulet, causam primum statuit in eius misericordia . Veniant, inquit (Psal. 119, 76), ad me misericordiae tuae, salus tua secundum eloquium tuum. Et merito: quia non aliunde ad promittendum inducitur Deus nisi ex mera misericordia.*”

167) 칼빈은 이렇게 인간의 의지를 조건으로 삼는 듯한 성경구절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케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1)는 바울의 말씀도 결코 피기우스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논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자기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여 존귀한 그릇이 되는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깨끗한 목적에 부합한자가 될 것인가>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존 칼빈의 神學論文」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 361. -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87: Nec quidquam illi suffragatur Pauli dictum: Si quis se emundaverit ab eiusmodi malis, vas erit in honorem(2 Tim. 2, 21). Neque enim quomodo homines ex sordibus suis eruti vasa fiant honorifica, sed quomodo fideles, **qui electi iam et vocati sunt, se accommodent in puros usus**, illic disseritur.)

하나님의 자비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생명은 계명이나 징벌에 대한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 대한 약속과 너그러운 약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¹⁶⁹⁾

그리고 구원의 원인인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견고한 조건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¹⁷⁰⁾

c.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요. 원천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선의 근원이요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¹⁷¹⁾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지금은 이것들을 보존하시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이유 외에는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¹⁷²⁾

3. 예정론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그들은 분리할 수 없이 (inseparabiliter) 역사하신다” 이는 범교회의 고백(catholicis fides)으로 있다.¹⁷³⁾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예정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칼빈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입장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¹⁷⁴⁾ 그리고 또한 예정론에 있어서도 어거스틴의 입장이 우리의 모

168)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III, xvii, 6.

169) Ibid., III, ii, 29.

170) Ibid., III, ii, 30.

171) Ibid., I, ii, 2.

172) Ibid., I, v, 6.

173) Augustinus, *De Trinitate*, I, iv, 7 : quamuis pater et filius et spiritus sanctus sicut inseparabiles sunt, ita inseparabiliter operentur. / Haec et mea fides est quando haec est catholica fides. (이것이 정통 신앙이므로 또한 나의 신앙이다.)

174)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I, xiii, 19.

든 것(Augustinus ipse noster totus est)¹⁷⁵⁾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다음의 내용 위에 기초한다 할 것이다. 즉, 삼위일체와 예정론에 대한 이해에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에 관해서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란 단수로 말한다는 점이다. 어거스틴 이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의 구조에 있어서 하나님이란 단수에 의한 모든 표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단수에 해당된다. 따라서 창조에 있어서 이런 단수의 성격으로 이해되어 창조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듯이, 또한 예정에 대해서도 같은 단수의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예정에 있어서 성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을 예정하신 것이다.¹⁷⁶⁾

a. 예정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결코 충분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¹⁷⁷⁾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 때 비로서 우리의 구원의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앞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앞서는 것이다. 그 안에 소위 예정이란, 하나님의 대상을 미리 만세 전부터 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하여 그를 결심케하고 회개케하고 그 다음에 성화하는 일 조차도 언제든지 은혜가 앞서도록 해석을 한다는 그런 것이다.¹⁷⁸⁾

칼빈은 신앙, 중생, 회심, 그리스도인의 생활 다음에 칭의와 선택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칭의와 선택을 뒤에서 다뤘다고 해서 그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지. 그 순서 단계에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 졌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칼빈이 출발

175)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66.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년. p. 9에서 재인용.

176) 김영규,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년. p. 5.

177) Johannes Calvinus, III, xxi, 1.

178)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3월 19일) 내용 중에서 인용.

하고 있는 근본사상은 전혀 다른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신앙을 통해서 비로서 선택에 대해서 의식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영원한 결정이다. 다시 말해서 선택이라는 것이 구원의 서정 이후에 다루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즉, ‘신앙 이후에 선택이 결정되다, 이루어지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순서가 됐다고 해서, 신앙에 의해 선택이 좌우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선택이 있었기에 그 근원적 원인이 있었기에 이렇게 신앙하게 된 것이다.¹⁷⁹⁾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결국 예정,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언약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요, 인간의 공로, 인간이 하는 역할은 근원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운명이나 우연 같은 것은 없다고 하였다. 인간의 육적인 이성만이 모든 사건들을, 그것이 다행이든 불행이든 운명의 탓으로 돌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마 10:30)는 사실을 배운 사람은 그 원인을 캐물을 것이며 만사가 하나님의 감취진 계획에 의해서 주관된다고 생각할 것이다.¹⁸⁰⁾

칼빈은 교회론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 근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한 기반위에 서 있으며**, 따라서 세계의 모든 조직이 다 무너지더라도 교회는 흔들리거나 쓰러질 수 없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존립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같이 흔들리거나 파멸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를 구별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¹⁸¹⁾

b. 섭리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인간의 행위로 보이는 구원의

179) 김영규, 2001년 3월 26일.

180)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 xvi, 2.

181) *Ibid.*, IV, I, 3.

원인으로써의 형식인, 믿음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개개 피조물들의 행동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신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 것인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제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주의 체계와 그 각 부분을 일반적인 운동에 의하여 회전시키고 움직이게 하지만 개개 피조물들의 행동은 특별하게 통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오류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용납될 수 없는 오류다. 그들이 보편적인 것이라 일컫는 이러한 섭리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우연히 움직이거나 인간이 자기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구분하여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써 인간 속에 활동력을 불어넣고 인간은 그것에 의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본성에 따라 행동할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의 계획에 의해 자기 행동을 통제하신다. 요컨대, 그들은 우주와 인간사와 인간 자신들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 지배되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지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¹⁸²⁾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개 사건들을 깨어서 주관하시고 또 개개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도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⁸³⁾

그러면 하나님의 충동이 어떻게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변화된다는 솔로몬의 진술(잠21:1)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마치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 속에 품은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에 의해 그가 친히 목적하신 바로 향한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신실한 자에게서 말을, 늙은이로부터 지혜를 빼앗아 가실 것이며(겔 7:26), 땅의 방백들에게서 충명을 빼앗아 그들로 길없는 거친 들로 방황하게 하실 것(욥 12:24; 참조 시 107:40)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¹⁸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되지만, 그 필연은 요긴한 방식이거나 자

182) Ibid., I, xvi, 4.

183) Loc. cit.

184) *Institutio 1559*, I, xviii, 2.

체의 적당한 본성에 따른 필연성이 아니다.’ 즉, 필연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세한 면에서 전부 하나님께서 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섭리에 있어서, 세세한 일에 있어서 그분의 섭리의 모든 내용이 있다는 것이며, 모든 입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다 관리하신다는 의미이다. 성경에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된다고 하였다.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세세한 부분에서의 다 그분의 허락없이 어떤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늘어나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하물며 형식적 원인인 믿음이겠는가! 이것이 칼빈주의가 고백하는 섭리에 대한 내용이다.¹⁸⁵⁾

루터 역시 그의 「노예의지론」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과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변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다면 그 반대로 필연적으로 그리고 변함이 없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뜻은 유효하고 방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¹⁸⁶⁾ 즉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주관한다. 하나님의 아심과 뜻하심에 의해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 주관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¹⁸⁷⁾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개개의 사건을 주관한다. 우리가 활동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지만 만물은 자연의 충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나 우발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면, 세상만사가 다른 자연의 원인들에서 기인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나 심판이 끼어 들 여지가 없어진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은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어 천지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한다.¹⁸⁸⁾ (시 113:5-6)

185)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5월 28일) 내용 중에서 인용.

186) M. Luther, *De Servo arbitrio* (1525), p. 108: “Ex quo sequitur irrefragabiliter: omnia quae facimus, omnia quae fiunt, etsi nobis videntur mutabiliter et continenter fieri, revera tamen fiunt necessario et immutabiliter, si Dei voluntatem spectes” -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에서 재인용.

187)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I, xvi, 3.

188) *Ibid.*, I, xvi, 5.

그렇다고 해서 섭리론은 결코 스토아 학파의 운명론이 아니라고 칼빈은 밝히고 있다.

우리는 스토아 학파와 같이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들의 계속적인 연결과 밀접한 관련으로부터 필연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자신의 지혜에 따라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정하셨고 지금은 그의 권능으로 그가 정하신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만물의 통치자요 지배자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무생물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계획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관되어 정해진 목적을 따라 곧장 향하고 있다**고 단언한다.¹⁸⁹⁾

또한 어거스틴은 만사가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선택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금 후에 **인간들은 섭리 아래에 있고 섭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충분히 논증하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도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다는 것을 그의 입장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일이 **원인도 없이** 일어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또한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는 우발성을 배제한다**. 망대에서 한가하게 휴식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의지는 원인으로 간주될 수는 없을 것이다.¹⁹⁰⁾

만사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인가?

참으로 세 가지 점들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 뿐 아니라 미래와 관련시켜 숙고되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매개물을 통해 때로는 매개물에 반하여 역사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만사의 확정적인 원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¹⁹¹⁾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의하여 통제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판단은 깊은 심연과도 같다(시36:6)고 말하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깊은 심연에 비유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추인 뜻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에 대해 바울도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뇨 누가 그의 모사가

189) Ibid., I, xvi, 8.

190) Loc. cit.

191) *Institutio 1559*, I, xvii, 1.

되었느냐”(롬 11:33-34; 비교, 사 40:13-14)라고 한다. 진실로, 율법과 복음에는 우리의 감각이 미칠 수 없는 신비가 포함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주를 다스리는 권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상 우리는 근신과 온건의 법칙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최고 권위를 정당한 원인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비록 그 원인이 우리에게 감춰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정당한 일만을 흘러내는 만사의 결정적 원리 곧 섭리를 가리키는 것이다.¹⁹²⁾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신자들의 위로가 된다. 우리는 경건의 법을 지시 받아 섭리를 묵상함으로써 최상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일어나며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철저히 믿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만사의 제일 원인으로서 주목할 것이지만, 이차적인 원인들에게도 적절하게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개별적 섭리가 쉬지 않고 자기를 보호해주며 자기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으로 판명된 일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가는 첫째는 인간이고 둘째는 다른 피조물들이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둘을 모두 주관한다는 것을 확신할 것이다. 인간에 관한 한,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사람들의 계획, 의지, 노력 및 능력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며, 그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의 원하시는 때에 제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므로 하나님께서는 큰 관심으로써 우리를 보살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¹⁹³⁾

B. 형식적 원인으로써의 믿음에 대한 칼빈의 이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결국 예정,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언약이다. 그 중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원인 중, 형식적 원인으로써의 믿음에 대하여 원인이 되신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마치 인간의 의지의 결정에 의한 믿음, 즉 형식적 원인이 그 자신의 구원의 절대적 원인으로 보여

192) Ibid., I, xvii, 2.

193) Ibid., I, xvii, 6.

질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 원인인 인간의 믿음의 방식조차도 사실상은 그 방식, 형식적 원인으로서는 있는 것이지, 더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¹⁹⁴⁾

본 장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하여 원인되심을 살피고자 한다.

1.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인되심

a. 하나님께서 최고의 원인이 되신다.

(1)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적 원인이 되신다.

하나님 자신외에는 어떤 원인들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그가 원인들의 원인이 되신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우연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분 자신의 원인으로부터 우연은 조금도 없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본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¹⁹⁵⁾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다. 기원이 없다. 우리 안에는 원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밖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나온, 우리로부터 기원한 어떤 조건이나 내용을 가지는 근거나 전혀 원인이 우리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밖에 있다는 것이다.

‘더욱 더 놀랍게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전체의 그런 증거는 유효적 원인과 목적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질료적 원인과 형식적 원인에 대해서 마치 믿음과 그리스도의

194)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3월 19일) 내용 중에서 인용.

195) Guilelmus Bucanus, *Institutiones theologicae seu locorum communium Christianae Religionis ex Dei verbo et praestantissimorum theologorum orthodoxo consensu expositorum analysis* (Genevae 1609), I, xvi. (“제15장. (그에게) 어떤 원인들이 있는가? - 아니다. 이는 그가 원인들의 원인이기 때문이다.(Non: est enim Causa causarum) / 제16장. 하나님 안에서 어떤 우연이 성립하느냐? - 자신의 원인으로부터 조금도 없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본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Minime, de ipsius ratione, omnia enim in Deo sunt essentialia)”) - 김영규, “Guilelmus Bucanus(?-1603, 로잔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조직신학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p.10에서 재인용.

의와 더불어 우리의 행위들이 절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을 비판하고 있다.¹⁹⁶⁾

즉, 인간의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좀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분명히 그릇된 생각이다라고 하였다.

한 마디로 어거스틴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먼저 활동하시며’ 즉, 소원을 그에게 (두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이다. ‘원하게 된 사람의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뒤를 따르신다.’¹⁹⁷⁾

다시 말해서 결심도 하나님께서 하고 또 헛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다. 즉 ‘얼마나 그분의 은혜가 면밀한가. 세세한가!’라는 말이다. 내가 결심하기 전에 결심의 내용의 모든 것은 그가 다 준비하시고 또 결심한 것을, 또 그것으로 끝나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될 그런 성격이 없도록 계속해서 그 결심이후에 있는 내용도 다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다.¹⁹⁸⁾

‘신앙을 가지면 더구나 우연으로 보이는 것(contingentia)이 모두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secretum Dei impulsum)로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¹⁹⁹⁾ 다시 말해 물론 그런 그 이런 섭리의 내용, 그런 것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다. 대개 우연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칼빈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에게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secretum Dei impulsum)이고,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체의 변동은 하나님의 손의 은밀한 활동에서(exsecreta manus Dei agitatione)온다고 믿었다.²⁰⁰⁾ 이런 인정은 하

196)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I, xiv, 17 :“Quum vide amus **omnes salutis nostrae particulas ita extra nos constare**, quid est quod iam operibus vel confidamus vel gloriemur? Nec de efficiente, nec de finali controversiam nobis movere possunt vel coniuratissimi divinae gratiae hostes, nisi totam scripturam abnegare velint. In materiali et formali fucum faciunt, quasi **dimidiatum cam fide Christique iustitia locum** opera nostra teneant.” -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에서 재인용.

197) Ibid., II, iii, 7 : ‘Dominum praevenire nolentem ut velit: volentem subsequi ne frustra velit’

198)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5월 28일) 내용 중에서 인용.

199)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 xvi, 9 :“..sed quae nobis videtur contingentia, **secretum Dei impulsum** fuisse agnoscat fides.”

나님의 의지 밖에 원인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지가 만물의 최고의 원인이요 제일원인이라는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²⁰¹⁾ 그에게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넘어, 운명(Fortuna)이나 우연(Casus)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용(permissio)이란 말도 하나님의 의지 밖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²⁰²⁾

만사는 확실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우리들이 보기에 그것은 우연적이다.²⁰³⁾ 왜 우리 인간에게 우연처럼 보이는가? 대부분의 사건의 질서, 이유, 목적과 필연성은 대부분 하나님의 의논에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견해로 이해되지 않으므로 분명히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나지만 어떤

200) Loc. cit.

201) Augustinus, *De Trinitate*, III, iv, 9 : “..ex quo et per quem et in quo ... ; ac per hoc uoluntas dei est prima et summa causa omnium corporalium specierum atque motionum.” ;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 xvi, 8 : “ubi Dei voluntatem summam esse probat et primam omnium causam, quia nihil nisi ex iussu eius vel permissione accidit.”

202) “「우리들의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며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모든 행사를 이루신다」 고(시편 115:3) 노래하고 있음이 진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어날 것을 허락하시며 혹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의하여 하시고자 원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악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일어날 것을 허락하므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 계심을 의심할 수 없다. ...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한 일 그 자체에 의하여 저들에게 관한 하나님의 의지가 행하여진다. 왜냐하면 진실로 이같은 이유에 의해서 『주님의 사역은 위대하시며 그의 모든 의지에 의하여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고로 이상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의 의지에 반하고 있는 일까지도 그의 의지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그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그가 싫어서가 아니고 그와 같이 원하시어 허락하시기 때문이다.”(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p. 269ff: quod in Psalmo (115, 3) canitur: Deus noster in coelo, omnia quae voluit, fecit. Quod utique non est verum: si aliqua voluit, et non fecit. Non fit ergo aliquid, nisi omnipotens fieri velit, vel sinendo ut fiat, vel ipse faciendo. Nec dubitandum est, Deum facere bene, sinendo fieri, quaecunque fiunt male. ...Quantum enim ad ipsos pertinet, quod deus noluit, fecerunt. Quantum vero ad omnipotentiam Dei, nullo modo id efficere valuerunt. Hoc quippe ipso quod contra Dei voluntas. Propterea namque magna opera Domini exquisita in omnes voluntates eius, ut miro et ineffabili modo non fiat praeter eius voluntatem, quod etiam contra eius fit voluntatem: quia non fieret, si non sineret: nec utique nolens sinit, sed vlens.)

203)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 xvi, 9 : “Dicam igitur, utcunque ordinentur omnia Dei consilio certa dispensatione, nobis tamen esse fortuita.”

의미로는 우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은 그 자체의 성질로 생각해보든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평가해보든 우연 이외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의 제한된 정신력에 관한 한, 이 모든 것들은 우연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²⁰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적 사건의 결말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우연을 지배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²⁰⁵⁾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높이까지 이르기에는 인간의 우둔한 마음은 너무나 낮은 곳에 있다. 그런 제일 원인(prima causa)은 인간에게 멀리(procul)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²⁰⁶⁾ 사람에게 의지의 원인이 없으며, 하나님의 의지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의지가 만물의 최고 원인이며 제일 원인이 되신다.²⁰⁷⁾

하나님의 의지란 말은 곧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로만 근거한 것을 예정으로 말한 것이다. 그 외(후)에 다른 원인이 없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르트회회가 강하게 주장한 내용이고, 또 어거스틴 이래에 칼빈이나 그 선행자들 또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인데, 거기에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그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만물의 최고 원인이다. 마지막 원인이다. 즉 제일 원인이다.”라는 것이다.²⁰⁸⁾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인이 되신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락 없이는 어떤 사건도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체의 변화마다 하나님의 손의 은밀한 활동에서 오는 것이다.²⁰⁹⁾ 처음부

204) Loc. cit. : “sed quoniam eorum quae eveniunt, ordo, ratio, finis, necessitas, ut plurimum in Dei consilio latet, et humana opinione non apprehenditur, quasi fortuita sunt, quae certum est ex Dei voluntate provenire. Non enim aliam imaginem prae se ferunt, aut in natura sua consideratae, aut secundum votitiam nostram iudiciumque aestimatae.”

205) Loc. cit. : “ut est, reputabit; providentiam tamen Dei praefuisse non dubitabit ad fortunam in suum finem dirigendam.”

206) Loc. cit. : “quia primo intuitu non penetrant homines ad primam causam, quae procul abscondita est.”

207)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 xvi, 8 : “ubi Dei voluntatem summam esse probat et primam omnium causam, quia nihil nisi ex iussu eius vel permissione accidit.” ; Augustinus, *De Trinitate*, III, iv, 9 : “..ex quo et per quem et in quo ... ; ac per hoc uoluntas dei est prima et summa causa omnium corporalium specierum atque motionum.” -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에서 재인용.

208)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5월 28일) 내용 중에서 인용.

터 만물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확실한 분배에 따라서 질서화된 것이다.²¹⁰⁾

그러나 우리는 늘 말하기를 언제든지, 우리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앞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앞서는 것이다. 그 안에 소위 예정이란, 하나님의 대상을 미리 만세전부터 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중생케하시고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해서 내가 결심케하고 회개케하고 그 다음에 성화하는 일 조차도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의 해석을 언제든지 은혜가 앞서도록 해석을 한다는 그런 것이다.²¹¹⁾

(2) ‘하나님의 의지 외에 원인이 없다!’

하나님의 의지 자체가 모든 것들의 규범(regula)과 표준(mensura)이고, 그것과 동일하거나 그것 위에 있는 차원에 있는 원인이나 근거가 없는 최고의 원인이라고 하였다.²¹²⁾ 이는 모든 칼빈주의자들이 기반이 두고 있는 기본 사상이며 또한 알미니안주의를 비판하는 가장 기본적 사상이다. 하나님 의지 이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 다른 규범이 없고 표준이 없다. 최종적인 원인은 그것에 의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원인이 되신다.**’ 하나님의 의지에는 그 이상의 원인이 없다는 것이다. 최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²¹³⁾

“하나님의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지 않으면 안되고 뜻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기 때문에 옳음에 틀림없다.”²¹⁴⁾ 이것이 소위 절대적 의지, 절대적 능력. 그 개념이

209)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 xvi, 9 :“..sed quae nobis videtur contingentia, **secretum Dei impulsum** fuisse agnoscet fides.”

210)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211)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3월 19일) 내용 중에서 인용.

212) M. Luther, *De Servo arbitrio* (1525), p. 208: “Deus est, cuius voluntatis nulla est caussa nec ratio, quae illi ceu regula et mensura praescribatur, cum nihil sit illi aequale aut supeirus, sed ipsa est regula omnium.”-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 (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에서 재인용.

213)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정하신 바 결정을 **모든 원인에 우월하는 최고한 원인으로** 하신 것이다.”(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72 :sed decretum quod in se Deus statuit, **supra causas omnes** in sublimi locat:)

214) M. Luther, *De servo arbitrio*, (1525), p. 208: “Si enim esset illi aliqua regula

맞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창조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조건이 되거나, 그것 없이는 무슨 일을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원리 또는 세계관, 에테르 개념등 자연의 법칙과 관련해서 무슨 법칙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도 그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비판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어나게 하시며 변경하거나 방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의지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도르트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적이라 하는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고백이라 했을 때, 인간의 의지의 불가항력성을 말한다. 이는 어거스틴이 한 말로써 하나님 뜻에 대한 사람의 의지의 불가항력성의 그 역사성이 있다. 어거스틴주의를 좀더 강하게 강조해서 도르트회의에서 규정을 하여서 나오게 된 것이 튜립사상이다. 소위 도르트 회의에서 5개 조항의 주장을 말할 때, 이 불가항력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는 칼빈주의의 도르트회의의 주장이 아니고 오래전에 펠라기우스를 비판하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오래전에 루터의 사상에서도 확실히 된 내용이었으며, 칼빈의 경우에는 당연히, 칼빈주의 역사에서 당연히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칼빈주의와 루터와의 관계의 초기에는 이와 같이, 많은 사상, 이신칭의에서 뿐만 아니라 예정론에 있어서도 소위 1520년대의 루터의 경우는 칼빈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을 만큼 그렇게 루터 주의는 칼빈에 가까운 것이었다.²¹⁵⁾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전반에 걸쳐 일관성있게 하나님의 모든 것의 원인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3)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은밀한 역사로부터 생겨난다.

지혜와 빛, 의와 권능, 공의, 참된 진리 중 어느 하나라도 그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조금도 없으며 그에게 원인을 두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²¹⁶⁾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든 선의 근원이요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vel mensura, aut caussa aut ratio, iam nec Dei voluntas esse posset. Non enim, quia sic debet vel debuit velle, idel rectum est, quod vult. Sed contra, quia ipse sic vult, idel debet rectum esse, quod fit.” -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에서 재인용.

215)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5월 21일) 내용 중에서 인용.

216)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 ii, 1.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²¹⁷⁾라고 하며 또한 성경의 증거를 들어서, 시편 기자는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특히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의 증거들이라고 말하였다고 증거하고 있다.²¹⁸⁾

그는 성경의 증거들을 들어서 모든 선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렘 10:23)라고 부르짖는다. 또한 솔로몬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잠20:24; 16:9) 라고 말한다. 자, 어떤 사람들이 사람은 그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바꾼다고 말한다 하자. 아니,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를 부인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와 솔로몬은 능력뿐 아니라 **선택과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들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 솔로몬은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인도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표를 세우는 인간들의 경솔함을 품위있게 책망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잠 16:1)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말도 제대로 못할 비참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없이 행동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일이다.²¹⁹⁾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결정없이 착수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우연적이라고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또한 선지자도, 어떤 사람은 비천한데 처해 있는데 반해 어떤 사람은 높은 영예의 자리에 올라간 사실을 사람의 노력이나 운수로 돌리는 불경한 자들을 꾸짖는다. 그는 하나님이 심판자의 직분을 벗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높임을 받고 어떤 이들은 비천한 곳에 남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한다.²²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둔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우리의 정신은 너무 우둔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에까지 도달하기가 어렵

217) Ibid., I, ii, 2.

218) Ibid., I, v, 8.

219) Ibid., I, xvi, 6.

220) Loc. cit.

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특이성에 의해 이해해야만 한다. 즉 만사는 확실한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우리들이 보기에 그것은 우연적이다.²²¹⁾ 그것은 우리가 우연이 세계와 인류를 지배하고 만물을 되는대로 내팽개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의 질서, 이유, 목적 및 필연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므로 분명히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나지만 어떤 의미로는 우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은 그 자체의 성질로 생각해보든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평가해보든 우연 이외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²²²⁾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오래 연장될 것인가를 예견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이다.(욥 14:5) 그러나 우리의 제한된 정신력에 관한 한, 이 모든 것들은 우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는 이러한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사실상 우연적인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적 사건의 결말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우연을 지배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²²³⁾ 이러한 관점은 미래 사건의 우발성에도 적용된다. 모든 미래 사건이 우리에게 불확정적인 이상, 마치 그 사건들이 이편 혹은 저편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건들을 미결인 채로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주께서 예견하지 않으신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²²⁴⁾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에는 “우연”이란 말이 종종 나온다(전 2:14-15 ; 3:19 ; 9:2-3,11) 사람들의 피상적인 안목으로는 깊이 감추어진 **제일 원인**을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²²⁵⁾

221) *Institutio 1559*, I, xvi, 9 :“Dicam igitur, utcunque ordinentur omnia Dei consilio certa dispensatione, nobis tamen esse fortuita.”

222) Loc. cit. :“sed quoniam eorum quae eveniunt, ordo, ratio, finis, necessitas, ut plurimum in Dei consilio latet, et humana opinione non apprehenditur, quasi fortuita sunt, quae certum est ex Dei voluntate provenire. Non enim aliam imaginem prae se ferunt, aut in natura sua consideratae, aut secundum votitiam nostram iudiciumque aestimatae.”

223) Loc. cit. :“ut est, reputabit; providentiam tamen Dei praefuisse non dubitabit ad fortunam in suum finem dirigendam.”

224) Loc. cit. :“Manet tamen nihilominus cordibus nostris infixum, nihil eventurum quod non Dominus iam providerit.”

225) Loc. cit. :“quia primo intuitu non penetrant homines ad primam causam, quae procul abscondita est.”

우리에게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contingentia)도 신앙의 눈은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secretum Dei impulsum)으로 보는 것이다. 언제나 똑같은 이유일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은밀한 역사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²²⁶⁾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체의 변동이 하나님의 손의 은밀한 활동에서 온다는 것은 분명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 하나님의 충동은 어떻게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저 은밀한 충동에 관하여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변화된다는 솔로몬의 진술(잠21:1)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마치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 속에 품은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에 의해 그가 친히 목적하신 바로 향한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신실한 자에게서 말을, 늪은이로부터 지혜를 빼앗아가실 것이며(겔 7:26), 땅의 방백들에게서 충명을 빼앗아 그들로 길없는 거친 들로 방황하게 하실 것(욘 12:24; 참조 시 107:40)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²²⁷⁾

그러나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보다 더 명백한 것은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자주 말씀하시길, 자기가 인간의 정신을 눈멀게 하고(사29:14), 현기증이 나게 하고(신 28:28, 슥 12:4) 잠자는 영으로 취케 만들며(사 29:10), 광기로 저들을 채우시고(롬1:28)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신다.(출 14:17)고 하신다. 이러한 실례들도 역시,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내버리어 사단에 의해 눈 멀도록 허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의해 눈 멀고 비정상적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매우 불합리하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고(출 9:12), 또한 완강하고(출10:1) 뻗뻗하게 하셨다(출 10:20, 27 ; 11:10 ; 14:8)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게 트집을 잡음으로써 이러한 표현들을 지나치려 한다. 왜냐하면 그외 다른 곳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고

226) Loc. cit. :“..sed quae nobis videtur contingentia, **secretum Dei impulsum** fuisse agnoscet fides. Non semper quidem appaert similis ratio; sed indubie sic habendum est, quaecunque cernuntur in mundo conversiones, ex secreta manus Dei agitatione prodire.”

227) *Institutio 1559*, I, xviii, 2.

되었는 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원인으로** 단정되기 때문이다.(출 8:15, 32; 9: 34). 마치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인간은 스스로 행동한다**는 두 개의 진술이 몇 가지 점에서 그렇긴 하지만 **완전히 모순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의 반론을 그들에게 되던진다. 왜냐하면 “강박하게 한다.”는 말이 단순히 허락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완강에의 충동 그것은 당연히 바로 속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이것을 마치 바로가 단지 자기 자신을 강박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것도 매우 근거없는 어리석은 해석일 것이다! 게다가 성경은 그러한 트집의 여지를 모조리 제거해 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하리라”(출 4:21)고 말씀하신다. 또한 가나안 주민들에 관하여, 모세는 그들이 싸우러 나온 것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박케 한 까닭이라고 말했다.(수 11:20; 참조, 신 2:30). 같은 사실이 다른 선지자에 의해 반복되어 여호와께서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시105:25)라고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앗수르인들을 보내어 거짓된 국민을 치게 하며 그들을 명하여 “탈취하며 노략하게”하실 것이라 선언하신다(사 10:6) 이것은 그가 불경건하고 완고한 자들을 가르쳐, 마치 그들이 그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거나 한 듯이, 자원하여 그에게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굴복시켜 그의 심판을 수행하시려는 것 때문이다. 여기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확한 결정에 강제되었음이 분명해진다.**²²⁸⁾

실로, 하나님께서 종종 사단의 중재에 의하여 악한 자들 가운데 활동하시지만 그러나 사단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충동에 의해 자기 직분을 수행하고 전진할 수 있음을 나는 고백한다. 또한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한다(고후 4:4). 그렇다면 **진리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도록 만드는 오류의 역사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살후 2:11), 어디로부터 나온단 말인가?** 먼저 번의 이유에 따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겔14:9)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이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롬 1:28), 비열한 욕심 속에 내던지셨다고 한다. (참조, 롬 1:29) 이는 하나님이 그 자신의 공정한 보복을 행하신 장본인이시고 사단은 그 대행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은 만사의 원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인간의 계획과 이들에 대한 결정적 원리이다.** 이는 성령의 다

228) Loc. cit.

스럼을 받는 선택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효력을 발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도 순종케 하기 위함인 것이다.²²⁹⁾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감추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율법으로 공공연히 금지한 것을 그가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두 개의 상반되는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반론은 쉽게 해결된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사람 욥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으므로 그렇게 되었다”(참조 욥1:21)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다. 욥이 도적들에게 약탈당했을 때, 그는 그들이 자기에게 한 부당한 행위와 악행 속에서 하나님의 정당한 응징을 인식하였다. 그의 다른 곳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엘리와 아들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므로 그들의 아버지에게 순종치 않았다(삼상 2:25) 또 다른 선지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시 115:3)라고 선포한다. 비난자들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안일한 허락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주장하려 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이 만사의 창조자라 불리우신다는 사실은 명백히 입증되는 바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선도 짓고 악도 짓는다(사 45:7)고 선언하시고, 자신의 시키심이 아니면 어떤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암 3:6)고 선언하신다.²³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는 스스로 모순을 내포한 것도 아니고 변하거나 그가 뜻하신 것을 뜻하지 않는 채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의지가 그에게는 단일하고 단순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정신적 무능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시거나 뜻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지가 다양한 것처럼 보인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부름받은 것이 “감취었던 비밀”(엡3:9)이라고 말한 후, 이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엡 3:10)가 거기에 드러났다고 간단히 덧붙인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양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가 더디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모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 속에 어떤 변덕스러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금하신 것을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무능 때문임을 기억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빛이 어둠으로 덮혀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빛(딤후 6:16)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유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숙고하도록 해야

229) Loc. cit.

230) *Institutio 1559*, I, xviii, 3.

한다.²³¹⁾

여거스틴은 배반한 천사들과 모든 악한 자들이 변절함으로써 그들의 관점에서 보아 하나님이 원치 않던 일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려 행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 바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와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시111:2)라고 감탄한다.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고는 아무 일도, 심지어 그의 의지에 반(反)하는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음은 놀랍고도 형언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²³²⁾

위의 내용에 따라서, 인간의 의지의 전환은 내적으로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이 행하시는 구속사업에서 나타난다. 이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의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한다.

(5)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한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성의 부패를 교정하고 치료하는 도구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부어 주시므로, 우리 안에 역사한 그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에 반하여 우리들의 궁핍이 즉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1:6)고 했을 때 착한 일의 시작이란 말을 통하여 그가 회심의 기원 자체가 그 의지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음은 의심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의를 위한 사랑과 욕망과 열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의를 향해서 기울이고 형성하여 방향을 잡아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인내에 순응시킴으로 그의 일을 완성시킨다. 어느 누구도 그 자체가 약한 의지를 돕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선을 창조하였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혹자는 자체의 힘이 약한 의지를 돕기 위하여 주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할지 모르나,) 성령께서는 다른 곳에서 의지 그 자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선언한다. “또

231) Loc. cit.

232) Loc. cit.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6-27)²³³⁾

계속하여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임을 성경을 근거로 드러내고 있다.

만일 돌이 부드러워서 어느 정도 굽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도 그 불완전한 점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충하면서 바른 일에 복종하도록 개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는 한 전연 선한 것을 짜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바른 일을 열망하게 만드실 때에 돌이 변하여 살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말살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것을 대신한다. 다시 말해서 의지는 말살된다. 그러나 의지가 의지로서 말살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처음 본성에 속한 것은 사람이 전향할 때에 완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지는 새로 창조된다. 즉 의지가 지금부터 있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변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는 같은 사도바울이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고후 3:5)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의지를 돕거나 부패한 의지를 시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의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신다(“소원을 두신다”)고 한다(빌 2:13). 이것을 볼 때에, 의지에 있는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깊은 뜻으로 사도는 다른 곳에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고전 12:6) 거기서 그는, “모든 것”이라고 함으로써 영적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고 있다. 모든 일의 선한 일의 시초는 둘째 창조에서 오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째 창조를 얻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려고 하였다. (참조, 엡2:5) 그러나 극히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 자신에게서 왔다면 우리도 다소의 공로를 나누어 받겠지만, 바울은 우리의 공로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므로(엡2:10)

233) *Institutio 1559*, II, iii, 6.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논한다. 이말은 선행의 모든 부분은 그 시초의 움직임부터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사람에게는 사랑할 점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²³⁴⁾

(6) 신자가 은혜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의지를 ‘움직인다’.

칼빈은 II권 iii장 7항에서 ‘신자가 은혜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의지를 움직인다.’에서 의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증거한다.

그것은 즉, 신자가 의지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먼저 은혜를 통하여 작동된다.²³⁵⁾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의 의지는 나면서부터 선으로부터 떠나 있고 주님의 권능으로만 의를 향하여 회심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준비가 갖추어진 다음에는 행동으로 줄달음 친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가르친 바와 같이 은혜가 모든 선한 일에 앞서지만, 의지는 은혜의 인도자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종으로 뒤따른다. 그런데 은혜가 의지를 앞지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의지를 “수종자”라고 불러도 좋다. 그러나 의지의 개조는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의지가 수종자가 되어 앞서가는 은혜에 복종하는 것을 사람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크리소스톰의 글에 “의지가 없으면 은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은혜가 없으면 의지 또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바울의 말에서 본 바와 같이(빌2:13), 은혜가 의지까지도 움직인다는 것을 부정하는 생각이다. 인간의 의지를 은혜의 수종자라고 한 어거스틴의 생각은 선행에 있어서 은혜에 다음가는 임무를 의지에 배당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구원의 제일 원인을 사람의 공로로 돌리는 펠라기우스의 극악한 주장을 반박하려는 것뿐이었다. 은총이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주장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먼저 활동하시며 원

234) Loc. cit.

235) 칼빈은 그의 저서, 「성도의 예정에 관하여」 중에서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출생하였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에 선행(先行)한다는 사실, 따라서 그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선행을 시작하고 또한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66: Libro de praedestinatione sanctorum contra eos se disputare profitetur, qui peccato Adae obnoxium nasci genus humanum agnoscunt, ac praeveniri Dei gratia hominum voluntates, nec sibi quemquam ad ullum opus bonum vel inchoandum, vel perficiendum sufficere.)

하게 된 사람의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뒤를 따르신다고 그는 여러 번 말하지만, 모든 선행의 근본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그의 뜻이었다.²³⁶⁾

펠라기우스와 카엘레스티우스에 대한 논박이라는 저서의 제1편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하신 (요6:45)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사람의 선택 능력은 도움을 받아서 마땅히 할 일을 알 뿐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또한 행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의 문자가 아닌 성령의 은총으로 가르치실 때에, 그 결과로 사람은 그 배운 것을 앞으로써 깨달을 뿐 아니라, 원함으로써 구하며 행함으로써 얻는다.²³⁷⁾

(7)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칼빈은 이렇게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으로 증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분명히 선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기원한다고 믿는 데에는 쉽고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 (선행의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그러나 이 선택의 원인은 사람들 밖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인간이 지닌 올바른 의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가 택함을 입은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결론이 나온다.(엡1:4) 여기에 또 하나 비슷한 이유가 있다. 즉, 선한 것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은 믿음에서 유래함으로 우리의 믿음 자체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²³⁸⁾

그러나 성경 전체는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하므로 충심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태어난 우리가 선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회심에 있어서 두 가지 원리 즉, 그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겔 36:26)원리를 제시해 주실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의로 전향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의 것은 제해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하나님이 그 원인이 되신다)을 채우라

236)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 iii, 7.

237) Loc. cit.

238) *Institutio 1559*, II, iii, 8.

는 사실을 널리 증거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한 곳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렘32:40)라고 하였다. 또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몸에서 굳은 아픔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라고 하였다.(겔11:19) 그는 여기서 우리의 회심은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라고 증거 한다. 다른 어떤 사실이 이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의지에 선택하고 바른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을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변화될 때까지는 거기에서 선택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또 중생 한 후에는 선택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또 중생 한 후에는 선택한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로부터 유래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하므로, 나면서부터 전심으로 악을 행하도록 되어있는 우리가 선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라는 말이다.²³⁹⁾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 하시는가?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며, 스스로 그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존재들이다. 인간이 죄의 멍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으로서는 결심을 통해 선을 갈망하거나 노력을 통해 그 선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되었다.²⁴⁰⁾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를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에 비유하고 하나님과 마귀를 기수에 비유하고 있다.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주권 아래 놓여 있으며 그 권세에 의해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는 그 의지가 마귀의 간계에 사로잡혀서 필연적으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른다는 뜻이다.²⁴¹⁾

(8)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심판이시며 또한 찾을 수 없는 길(道)이

239) Lot. cit. :“Nam quum bene volendi et agendi principium sit ex fide, videndum est unde sit ipsa fides. Quum vero gratuitum esse Dei donum clamet tota scriptura, sequitur ex mera gratia esse ubi velle bonum incipimus, qui ad maium toto animo sumus naturaliter propensi.”

240) *Institutio 1559*, II, iv, 1.

241) Loc. cit.

다.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다. “만일 각사람이 어떤 것에 의하여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검토음미하게 된다면 반드시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은혜 또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라고 말할 것이다.²⁴²⁾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인하여 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인이 되신다. 요한복음 3:16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일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본다. 말하자면, 최고의 원인 또는 기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제 이위 및 후속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다.**²⁴³⁾

이와 같이 그 분의 자비가 근거가 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다만 그의 자비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근거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깊고 든든하게 세우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어떤 도움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 행위를 완전히 무시해야 한다.²⁴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는 말씀은 마치 인간이 은혜를 얻을 공적(功績)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들의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에게 앞서는 것처럼 행복의 시원(始源)을 자신들 가운데서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다음에 즉시 정정하여 <곧 그 뜻대로(계획)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이라고 부가하고 있다. 우리들은 거기에서 증오하는 일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도록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특히 **우선(優先)**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²⁴⁵⁾

이와 같이 성경에서 ‘주께서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들의 선

242)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66 :Cur autem istum potius quam illum Deus hinc liberet, inscrutabilia sunt iedicia eius, et viae eius investigabiles. Item: Si discutiatur et quaeratur, unde quisque sit dignus, non desunt qui dicant: Voluntate humana. Nos autem dicimus: **Gratia vel praedestinatione divina.**

243)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 xvii, 2.

244) Ibid., III, xiii, 4.

245)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71 :ne felicitatis suae exordium a se ipsis peterent homines, quasi suo Deum amore ad promerendum tale beneficium praeveniant, correctionis vice mox attexit: Qui secundum propositum vocati sunt. Videmus ut priores Deo partes nominatim vindicet, qui vocatione sua efficit, ut diligere incipiant, qui nihil poterant quam odisse.

행 때문이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이 앞에서 이미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질료인은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며, 형상인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고, 목적인은 신적 의의 증명과 선의 찬양이다. 이 네 가지 원인은 주께서 행위를 종속원인으로 삼으시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주께서 영생을 상속하도록 자비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인도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할 때, 그의 일반적 경륜을 따라 선행을 수단으로 하여 그렇게 하신다. 주님의 경륜의 순서에서 앞서는 것을 따르는 것의 원인이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간혹 영생이 행위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영생이 행위의 결과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의롭다 하기 때문에(롬8:30), 처음 은혜를 다음에 오는 은혜의 원인으로 삼는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을 찾아야 할 때에는, 행위에서 해답을 구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죽음은 사람의 행위에서 오는 결과이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렸다는 것이다라는 진리를 표현하려고 하였다.²⁴⁶⁾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들은 원인보다도 전후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앞에 있는 은혜를, 다음에 따르는 은혜의 원인으로 삼고, 그의 종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어느 것도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너그러우신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근원이며 시작인 값없이 주신 그의 선택을 항상 주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선물을 사랑하지만, 그 선물들의 근원은 선택에 있으므로 우리는 값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선물들을 저 제일 원인에 종속시키며, 그 선물들이 선택의 가치를 결코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²⁴⁷⁾

행위의 공로를 자랑하면 의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구원의 확신을 파괴한다.²⁴⁸⁾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하지 말라든지 행위가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의지하여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닻

246)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I, xiv, 21.

247) Loc. cit.

248) *Institutio 1559*, III, xv.

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도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후사들이 되어, 우리가 홀롭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복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²⁴⁹⁾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성실한 마음으로 주와 언약을 맺은 주의 종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성도들에게 열어주고, 하나님나라에서 그들이 설 영원한 자리를 마련하는 **제일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비하신 주께서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고 계속 보호하시기 때문이다.²⁵⁰⁾

영생을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구절에 있어서 주신 복을 소유하는 것 또는 그것을 소위 “즐기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²⁵¹⁾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결코 충분하고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²⁵²⁾

바울이 “창세 전에”(엡1:4)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칠 때, 그는 **우리 편에 있는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그리스도안에서 그런 고귀한 기업을 받도록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²⁵³⁾

또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 9:16)고 하였다. 왜냐하면 만일 인간의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의 공홀 가운데만 있으며 또한 그 비밀의 자애(慈愛)로 말미암아 사랑한 자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그 무엇 하나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²⁵⁴⁾

249) Ibid., III, xvii, 1.

250) Ibid., III, xvii, 6.

251) Ibid., III, xviii, 3.

252) Ibid., III, xxi, 1.

253) Ibid., III, xxii, 1.

254)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82 :Tandem quod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행위를 근거 삼는 주장을 반박한다. 구원의 원인, 그 기초는 무엇인가? 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이 은혜는 행위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사도의 말이다.²⁵⁵⁾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요 6:37)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증과 보호를 받게 되는 출발은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요 6:44-45)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의의 선택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신다. 이 일의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 자신 안에만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은밀한 뜻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이다.²⁵⁶⁾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일은 그가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이든지 의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것을 찾으려는 것, 그런 것은 결코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 허물도 없을 뿐 아니라, 완전성의 최고 표준이며 모든 법의 법이다.²⁵⁷⁾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소명은 선택에 의존한다.²⁵⁸⁾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면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탐구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출발점과 종점으로 삼아야 한다.²⁵⁹⁾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하신 자를 부르셨고²⁶⁰⁾, 그의 부르심을

necessario ex sententia illa sequitur, Paulus infert: Non esse volentis nec currentis, sed miserentis Dei. Nam si sola Dei misericordia continetur salus hominum, Deus autem non nisi quos arcano suo beneplacito delegit servat, nihil prorsus fit hominibus residuum.

255)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I, xxii, 5.

256) Ibid., III, xxii, 7.

257) Ibid., III, xxiii, 2.

258) Ibid., III, xxiv, 1.

259) Ibid., III, xxiv, 4.

260) 칼빈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에서 “신앙은 특별한 선물

받은 자들은 그들의 정결과 중생을 위해서 아버지에게서는 원인(하나님의 원인되심)을, 아들에게서는 질료(質料)(성자의 질료인)를, 그리고 성령에게서는 효력(성령의 원인되심)을 얻고 말하자면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하기 때문이다.²⁶¹⁾

b.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인간에게 어떤 원인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다!’

그러나 그래도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에서 출발하는 행위, 선행이 개입할 여지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 9:16) 이와 같이 만일 인간의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만 있으며 또한 그 비밀의 자애(慈愛)로 말미암아 사랑한 자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그 무엇 하나도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 「만일 『원하는 자나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양자(兩者)에게서 즉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의지(意志)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거기에 주님의 긍휼이 없어서는 안된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바로 어거스틴이 가장 잘 비판하였던 바이며, 이러한 생각이 헛된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노력과의 일치를 끌어내

인 것이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3)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심이란 주께서 선택한 자들을 「그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신다」**(롬 8:30)는 것 이외에 무엇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선택하신 자를 부르심을 역설하고 있다. (「존 칼빈의 神學論文」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 384.) -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300: Ergo speciale donum est fides, quo rata fit Dei electio. Quo etiam sensu dixerat Paulus, Christum, qui Iudaeis est scandalum et gentibus stultitia, vocatis esse Dei virtutem et sapientiam (1 Cor. 1, 23). **Unde autem vocatio, nisi quia Dominus, quos elegit, secundum propositum suum vocat? (Rom. 8, 30.)**

261)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V, xv, 6.

려는 자들의 비겁한 변명이다²⁶²⁾라는 것이 또한 칼빈의 비판이었던 것이다.

성경이 선언하는 바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것이요. 그분의 은총없이 어느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펠라기우스의 사상이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다. 즉, 인간의 구원에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주어져야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에는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협동사역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의 중요한 원인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만일 죄가 필연적인 것이라면,(즉, 만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죄까지 필연적인 것이라면) 죄는 이제 죄가 아니며, 만일 자원적인 것이라면 인간이 스스로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것이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을 비판하는 주요 초점이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비판하였다. 즉 ‘자유의지가 개입이 되어야 죄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죄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죄가 필연적이라면 죄가 이제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내가 뭐 죄진거 있느냐’는 말이며, 이는 전형적인 펠라기우스의 비판이다. 이러한 회의주의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정신이 있는 것이고, 칼빈의 기독교강요도 그런 정신 아래서 그런 자들을 비판한 것이었다.²⁶³⁾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물음은 보편 인간의 물음이다. 그리고 펠라기우스의 다른 물음이 있는데 그것은 “덕행들과 죄악들이 모두 의지의 자유선택으로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에게 벌이나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즉, 덕행이든, 죄악이든 자유선택이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선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면 사람에게 벌이나 상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책임문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문제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칼빈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한다. 특히 마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귀는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 본질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벌을 받고 있다. 꼭 자유의지라는 것을 꼭 통해야만, 그때 꼭 그것이 책임에 대하여 관련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 벌과 상을 준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자유의지를 전제해야 된다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262)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82.

263)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4월 2일) 내용 중에서 인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칼빈이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다.²⁶⁴⁾ 왜 협력사역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칼빈이 비판하고 있는가? 성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배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펠라기우스에 대한 오래된 대답으로 당연히 이렇게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⁶⁵⁾

저들은 또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편다. 성경에서 “... 하면, ~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적으로 보이는 성구들을 가지고서 “만일 복종할 능력이 죄인에게 없다면, 권고하는 것이 헛되며, 경고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에서 괜히 이렇게 명령하고 권고하고 있겠는가? 그것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칼빈이 늘 머리속에 두고 대답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칼빈이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대답하고자 하는 바였다.²⁶⁶⁾

264) 칼빈은 하나님께서 성화의 원인이요 의지의 원인되심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의지를 자유하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욕구를 일어나도록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토록 많은 또한 이토록 격심한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저들의 의지는 그 자신의 연약성에 굴복하게 되어 그 결과로 도저히 인내할 수가 없게 되고 말 것이다. 저들이 연약한 까닭에 넘어지며 그와 같은 정신이 되지 않던가 혹은 하면 된다는 정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에 도움이 부여되고 의지(意志)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만 절대로 의지하거나 넘어지거나 미혹되거나 하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연약한 까닭에 넘어지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연약과 싸워서 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존 칼빈의 神學論文」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 344. -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76: nec Deus operaretur ut vellent: inter tot et tantas tentationes voluntas ipsa infirmitate sua succumberet, et ideo perseverare non possent: quia deficientes infirmitate, nec vellent, aut non ita vellent ut possent, Subventum ergo est infirmitati voluntatis humanae, ut divina gratia indeclinabiliter et inseparabiliter ageretur, et ideo quamvis infirma non deficeret, nec infirmitate aliqua vinceretur.)

265)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4월 2일) 내용 중에서 인용.

266) Loc. cit. ; 칼빈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라는 성구에 대한 어거스틴의 말을 들고 있다. “어거스틴이 말한 바, 다음과 같은 말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들은 자신들이 그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바 궁핍을 또한 충분히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문을 두드리고 구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견인의 선물에 대하여」)” (「존 칼빈의 神學論文」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 370. -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이런 물음에 대해서 칼빈이 무슨 대답을 하는가? ‘과연 그렇게 풀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자유의지에 생명을 걸고 문제를 풀어서는 안되고,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은혜의 형식(form)으로 생각하되, 더 깊은 의미에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늘 소개하는 것이다.²⁶⁷⁾

이와 같이 공로사상과 신인협동에 대한 문제가 늘 문제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은혜와 인간의 결단(자유의지)의 그 관계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 그 성화의 성격을 섭리일반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어떤 관계를 갖고 또한 신인협동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은총의 형식**이라는 것이다.²⁶⁸⁾

칼빈이 가까운 원인, 먼 원인이라 했을 때, 칼빈이 말하는 가까운 원인은 우리가 늘 목격하고 있는 주변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그러한 것들이다. 그런 것이 갖는 인과 관계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지만, 먼 원인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원인들이다. 그러면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결국 자유의지 역시, 많은 물, 또 호흡하는 공기, 그리고 따듯한 햇빛, 이런 것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같은 형태로서 있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마시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지 자체는 독특한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길이다.**²⁶⁹⁾

믿음과 성화 이 모든 것은 선택의 열매요, 결과이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과 견인과 은혜의 모든 선물들은 선택의 열매이요 결과인 것이다.²⁷⁰⁾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신앙은 선택의 열매요 결과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가까운 원인의 영역이며 인식 가능한 틀인 형식인(믿음)만 보기에, 그 형식인만을 구원의 원인으로 보려고 하고, 거기서 구원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마치 그

p. 292: divinae esse beneficentiae non tantum ut aperiat pulsanibus, **sed etiam ut pulsemus et petamus:**)

267) Loc. cit.

268)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3월 19일) 내용 중에서 인용.

269) Loc. cit.

270)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과 견인과 은혜의 모든 선물들(omniaque gratiae dona)은 선택의 열매이요 결과이다. (행 13:48; 딤후 1:1; 벰전 1:5; prosp. epist. ad Aug.; Aug. de Praedest. Sanct. cap.10, cap.16, cap. 17).” - 김영규, “도르트 회의”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0년. pp. 148-49 에서 재인용.

형식인에 의해 구원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렇게 (형식적 원인으로써의 믿음에 의해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형식인인 믿음을 선택하는가의 여부에 의존하는 것으로, 자유 결정자인 사람에게 달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 사고의 구조이다.²⁷¹⁾ 표면상으로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인간이 100% 일한다’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동등사역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구원은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 하시는 그런 내용에 있어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에 있어서 가까운 원인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틀이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운 그런 이해의 영역은 우리에게 가깝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해 보면, 먼 원인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그분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그런 모든 지식과 또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거기에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은 간접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다.²⁷²⁾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여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인이다. 인간이 자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되는 것은 선악에 대하여 똑같이 자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제가 아닌 의지에 의하여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인간이 역지로 죄를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 그의 의지는 언제나 죄의 착고에 묶여 있다. 인간의 성품은 본래 거짓으로 기울어지므로 그는 장황한 변론으로부터 진리를 얻어 내기보다는 오히려 재빨리 잘못을 끌어 낼 것이다.²⁷³⁾

271) “피기우스는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로운 깊은 성질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였다. 이 경우에 그는 이와 같은 사실은 자유의지(自由意志)없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일 여기서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피기우스는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일 즉 「선택된 사람과 유기된 바 사람들 사이의 구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作定)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인간은 그의 미래의 상태를 지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여하한 운명도 자신의 수중(手中)에 장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94: Quod Deus ad suae bonitatis naturam respiciens, eius capacem facere voluerit rationalem creaturam: quod sine arbitrii libertate fieri potuisse negat.)

272) 김영규, 『Guilelmus Bucanus(?-1603, 로잔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조직신학에 대해서』 개혁주의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5월 21일) 내용 중에서 인용.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는 성령이 없이는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의지를 속박하고 지배하는 정욕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자유의지라는 큰 능력을 받았으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다.²⁷⁴⁾

인간은 초자연적 은사는 박탈당하였고 자연적 은사는 부패되었으나 인간과 짐승을 구별시켜 주는 이성은 남아 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자연적 은사는 죄 때문에 부패되었고, 초자연적 은사는 그로부터 제거되었다. 즉, 어거스틴은 초자연적 은사는 그것이 천상생활과 영생복락을 얻는데 충분한 의 뿐만 아니라 신앙의 빛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 당할 때 그는 동시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은사들을 박탈당한다. 즉, 우리 인간은 이미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빛, 영적 은사를 박탈당한 상태인 것이다. 오성과 판단의 잔재가 의지와 함께 다소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약하여 깊은 흑암에 빠져버린 정신을 완전하고 건전하다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의지의 부패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²⁷⁵⁾ 인간의 ‘믿을 수 있는’ 의지는 이미 부패한 상태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몇몇 계명은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²⁷⁶⁾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견책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들어서거나 돌아오거나 할 때에 누구가 심으며 물을 주는가를 모르게 되며 이것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 이외의 누군가가 저들의 마음에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가 구원하고자 하시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기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늘에 있어서나 땅에 있어서도 원하시는 것을 임의로 하시며 또한 미래에 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意志)에 인간의 의지가 저항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 그것에 관하여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실 때 물질적인 사슬로 인간을 결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적으로 활동하시며 내적으로 마음을 불드시며 내적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 속에 만들어 내는 저들의 의지에 의하여 저들을 인도하고

273)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 ii, 7.

274) Ibid., II, ii, 8.

275) Ibid., II, ii, 12.

276) Ibid., II, v, 8.

있는 것이다.』고 (「견책과 은혜에 대하여」 5장)하였다.²⁷⁷⁾

2. 형식적 원인으로써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원인 되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이 구절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성경 구절로써 믿음이 **마치 인간의 의지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 역시 인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믿어야 할) 의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말씀으로 보아왔다. 성경에는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가 절대적인 것처럼 표현되는 성경구절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구절들이 과연 예정론을 거스르는가, 또는 구원에 이르려면 인간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의지의 결단이 필수적으로 조건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되어야 문제로 있겠다고 하겠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마치 인간의 의지의 결정에 의한 믿음, 즉 형식적 원인이 그 자신의 구원의 절대적 원인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형식적 원인인 인간의 믿음의 방식조차도 사실상은 **그 방식, 형식적 원인으로써 있는 것이지, 더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요, 인간의 공로, 인간이 하는 역할은 근원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²⁷⁸⁾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

277)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p. 327-28: Quum homines per correptionem in viam iustitiae suae veniunt, seu revertuntur: quis operatur in cordibus eorum salutem, nisi ille qui quolibet plantante et rigante dat incrementum? cui volenti salvum facere, nullum hominis resistit liberum arbitrium. Non est itaque dubitandum, voluntati Dei, qui in coelo et in terra quaecunque voluit fecit, et qui etiam quae futura sunt fecit, humanas voluntates non posse resistere, **quominus faciat ipse quod vult, quandoquidem de ipsis hominum voluntatibus, quod vult facit.** Item: Quum vult adducere homines, numquid corporalibus vinculis alligat? **Intus agit, intus corda tenet, intus corda movet:** eosque voluntatibus eorum, quas in illis operatus est, trahit.

278)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

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드러내고 있는 구원의 원인중 하나인 형식적 원인도 역시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음을,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 성경에 절대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어거스틴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통해서 형식적 원인인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의지에 근원하지 않고 (사람의 이해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절대적 원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종의 원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두며(유효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질료인이 되어 성령의 역사에 의해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정된 자가 이 믿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의 구원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즉, 구원의 형식적 원인). 그것의 근본원인, 최종원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하심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 바탕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하심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그로 인해 인간의 이해의 영역에서 볼 때, 가장 큰 구원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형식적 원인으로서의 믿음에 대하여 바른 자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인가? 아니면 인간의 신앙이 먼저 인가?
2. 인간의 신앙(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a. 하나님은 수단 없이 역사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신앙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는 칼빈이 반박하여 싸웠던 피기우스의 주장이다. 피기우스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있는 은혜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들의 자유이다.” 라고 하였다. 즉, 누가 선택되고 누가 버림받느냐 하는 것은 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은 자기의 의지여하의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밖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각 사람의 개인적 의지에 의하여** 이같은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²⁷⁹⁾

의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3월 19일) 내용 중에서 인용.

피기우스는 더 나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전 인류의 선택이 부동한 것으로 되었으며 자기 완매함으로 인하여 자기자신을 생명책에서 말살한 자 외에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게 되어있다. 은혜가 만인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건 간에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비로소 최초로 유효하게 된다.”²⁸⁰⁾

피기우스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만인 구원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부동의 계획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구원 받도록 창조하였으며, 전 인류가 그리스도에게서 선택된 것이며 **누구든지 신앙을 가지고 그를 받아 들인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다.²⁸¹⁾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계속 주께서 구원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자들이 완고하게 최후까지 악심을 품고 계속하여 은혜를 외면할 것을 예지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제외하고 예지에 의하여 저들을 유기하셨다. 요컨대 불신심(不信心)한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거스려서 스스로 선택의 보편적 축복을 상실한 것이 유기 시작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예지하기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고 생명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인간 구원의 결의는 하나님 자신에 있어서 순서상 죽음의 예지에 앞서고 있다. 바울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예정하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저들의 신앙을 고려하여서 선택하였다고 하였다.’²⁸²⁾

결론적으로 피기우스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예정)이 사람의 선택(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다.’**²⁸³⁾라는 것이며, 둘째로, **그 인간의 신앙,**

279)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59 : Quum autem in evertenda praedestinatione consentiant ambo, postea tamen in commentis suis sunt diversi. Fingunt ambo, in libertate nostra positum esse, ut se quisque in adoptionis gratiam electi sint vel reprobis: sed singulos sibi utramvis fortunam suo arbitrio statuere. Quod alii credunt evangelio, alii increduli manent, non ex gratuita Dei electione, vel ex arcano eius consilio, sed ex privata tantum cuiusque voluntate provenire hoc discrimen.

280) Loc. cit.

281)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70: “Audio quid garriat Pighius: Electum esse in Christo genus humanum, ut quicumque eum fide amplexi fuerint, salutem consequantur.” 칼빈에 피기우스의 이러한 말에 대해 ‘허튼 소리’, ‘쓸데없는 소리’(garriat)라고 하고 있다.

282) Ibid., pp. 259-260.

283) Ibid., pp. 255-6: “ubi asserit, fidem ab electione non pendere, quin potius

믿음은 자기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피기우스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서, 첫째로,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을 토대로 하고 있다.’²⁸⁴⁾는 것이며 둘째로, ‘신앙(믿음)은 인간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적 선택의 영원하신 원천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²⁸⁵⁾

즉, 그 심령의 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²⁸⁶⁾ 또한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으로든 신앙을 고려하였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부여된 것(정하여 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²⁸⁷⁾

electionem esse in fide sitam:”

284) Ibid., pp. 270-271 :Non quia credidimus, ipse nos elegit, sed ut nos credamus: ne priores videamur ipsum elegisse.(“..우리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하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 atque ut adoptaret, usque adeo non fuisse eorum fide provocatum, ut fidei causa et principium sit ipsa electio: unde ordine priorem esse constat.(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하더라도 그것은 저들의 신앙에 의하여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택으로 신앙의 원인이 되도록(선택자체가 신앙의 원인과 원리가 되도록) 기초하신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서 선택은 순서에 있어서 신앙에 선행(先行)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

285)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p. 253ff: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독생자에게 주시며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고(vocare quos elegit) 당신의 자녀로 된 자들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시는 또한 최후에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가르치며 그의 팔로 붙들어 주는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였다. 나아가서 또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자유로 자녀로 삼으신 지불금이나 담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신적(神的) 선택의 영원하신 원천(源泉)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Porro quisquis fidem arram esse et pignus tenebit adoptionis gratuita, ex aeterno divinae electionis fonte manare fatebitur.)

286) Ibid., pp. 255-6: “sic nimis crassi stuporis est, non agnoscere, apertos esse nobis mentis oculos a Deo: quia nondum in utero conceptos elegit, ut fideles essemus. Fuise autem hoc impuro nebuloni propositum,”(따라서 또한 우리들 앞에 현재 제공되어 있는 복음의 여러 가지 약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門)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령의 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져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모태에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자가 되도록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더러운 놈은 단지 인간의 영혼이 선택의 지식을 말할할 뿐만 아니라 그 효력까지도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하더라도 그것은 저들의 신앙에 의하여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택으로 신앙의 원인이 되도록(선택자체가 신앙의 원인과 원리가 되도록) 기초하신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서 선택은 순서에 있어서 신앙에 선행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²⁸⁷⁾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에 선행한다고 한다.²⁸⁹⁾ 이와 같이 신앙은 초보의

287) Ibid., p.271 :Multum ergo abest, quin Deus in nobis eligendis aliquem fidei respectum habuerit, quae nulla esse poterat, nisi eam adoptionis suae gratia nobis destinasset. (Et Paulus iterum confirmat, non aliunde inductum fuisse Deum: sed ipsum sibi fuisse autorem et causam, cur nondum creatos eligeret, quibus postea et fidem conferret.: “또한 바울은 단언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으신다. 저들을 창조하기 전부터 선택하셨고 후에 신앙을 부여하였다는 이유(理由)라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원작자(原作者)이시며 원인(原因)이시라고 말한다.**”)

288) Ibid., p. 271 :atque ut adoptaret, usque adeo non fuisse eorum fide provocatum, ut fidei causa et principium sit ipsa electio: unde ordine priorem esse constat.

289) Ibid., p.300 :**Ergo speciale donum est fides, quo rata fit Dei electio.** ... Quod autem in tanta naturae nostrae corruptela et pravitate aliqui tamen evangelio credunt, eorum bonitati adscribere, sacrilegium est: sed potius gratiae semper Deo agenda, ut Paulus monet, qui eos elegit ab initio mundi in salutem, in sanctificatione spiritus et fide veritatis (2 Thess. 2, 13). ... Atqui nominatim Paulus hoc esse spiritus Dei opus asserit. Quum eadem sit **fidei ratio, superest, ut in fidem illuminatos dicamus, quo rata esset Dei electio, et effectum ipso patefieret.** Et sane quum audiamus, neminem ad Christum venire nisi a patre trahatur: hoc quoque Augustini tenendum est: Quis trahitur, si iam volebat? Nemo tamen venit, nisi velit. Trahitur ergo miris modis ut velit, ab illo qui novit intus in ipsis hominum cordibus operari, non ut nolentes credant, quod fieri non potest: **sed ut volentes ex nolentibus fiant.**(Lib. 1 ad Bonif. cap. 19.) (따라서 신앙은 특별한 선물인 것이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본성이 부패타락 가운데 있음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들의 신앙을 저들의 선성(善性)으로 돌리는 것은 모독(冒瀆)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저들을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 2:13)라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바쳐야 하는 것이다.... 신앙의 도리(道理)는 이와 같으니, 즉 <저들이 비추임을 받고 신앙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확인되고 또한 그것이 그러한 효과로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그리스도에게 올 수 없다”라고 들을 때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어거스틴의 말을 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오고저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도 올 수 없다. 그러므로 오려고 생각하는 자는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役事)할 수 있는 분으로부터 신비한 방법으로**

신앙이든 완전한 신앙이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이유를 신앙 때문이라고 하지 말도록 ‘저들이 믿은 까닭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게 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다.’²⁹⁰⁾ 우리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하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²⁹¹⁾ 그러므로 신앙을 선택의 원인으로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것이며(absurdum) 따라서 바울의 말씀에도 반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현명하게 주의하고 있듯이 바울은 <저들이 믿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도록 선택되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⁹²⁾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게서 인도되는 자가 아니라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하셨다. 이는 그에게 주어진 자는 모두 예외 없이 믿는다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날에 다시 살리리라.(요 6:44)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오느니라.”²⁹³⁾

이끌어져야 하는 것이다. 저들은 싫어하면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저들은 믿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겠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다.」 (「페리기우스파의 두 가지 편지에 대한 논박」 1권 19장에서)라고 했다.

290) Ibid., p. 267 :Ac ne quis fidei hoc tribueret, quod alter alteri praeferturu, negat eligi eos qui crediderunt: sed potius, ut credant.

291) Ibid., pp. 270ff :Non quia credidimus, ipse nos elegit, sed ut nos credamus: ne priores videamur ipsum elegisse.

292) Ibid., p. 270 :Fidem vero facere electionis causam, nimis absurdum est, atque a Pauli verbis dissentaneum. Neque enim, quod prudenter animadvertit Augustinus, electos esse pronunciat, quia credituri essent, sed ut crederent:

293) Ibid., p. 273 :Quidquid dederit mihi pater, ad me veniet: et eum qui venit ad me, non eiiciam foras (Ioann. 6, 37). Tria breviter quidem, sed tamen perspicue hic habemus: **Quotquot veniunt ad Christum, prius illi a patre esse datos:** .. Nunc si **fidei principium** quaeritur, respondet Christus: **ideo credere qui credunt, quia sibi donati sunt a pater.** .. Clamat ex adverso Christus, singulare esse Dei donum **lucem illam, qua in salutis viam dirigimur.** Si quis tergiversetur, dari Christo quos pater in elegit: manet tamen istud fixum, donationem non fide modo superiorem esse, sed eius **causam ac originem.** Sed in altero membro longe plus subest ponderis. Neque enim tantum venire ad se alios negat, nisi quibus porrecta fuerit a Deo manus: **sed omnes qui sibi donati sunt, sine exceptione, credere affirmat.**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모두 미리 아버지께서 그(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라”는 것이

앞에서의 피기우스의 주장과 같이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안 주의자들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믿음을 보고, 믿음을 고려해서, 믿음을 미리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지도 있었다.”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고려해서 우리의 믿을 것을 미리 보고 또는 미리 보신 증거를 말하지 았더라도 그것을 고려해서 예정했다.’ 이러한 소위 알미니안주의, 웨슬레의 견해든지 또는 펠라기우스 주의자의 ‘미리 그것을 예지해서 고려해서 정하였다.’라는 그들의 논리는 사실상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그분 친히 의지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에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창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섭리를 넘어서서, 이러한 사고가 될 수 없는 것이다.²⁹⁴⁾ **하나님은 수단을 통하지 았고는 역사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역사의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역사하신 그런 내용이 창조이므로, 그 창조는 역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표현하는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지 마치 그것이 수단을 통하지 았고는 그 자신이 역사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또한 우리 피조물이 갖는 성격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같이 곁들여져서 잘 조화가 될 때 이런 말에 대한 논증에 있어서의

다. **신앙의 토대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道)로 인도하는 바 빛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한 자들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부여(付與)가 단순히 신앙에 선행(先行)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원인**, 따라서 기원(起源)이 된다는 사실은 움직이지 았는다. 그러나 중점은 다른 곳에 놓여 있다. 즉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에게서 인도되는 자가 아니라면 자기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자는 모두 예외 없이 믿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그리스도는 논쟁하는 곳에서 상세하게 주장하고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6:44))

294) 하나님만이 선의 시초이시다. 자신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았고 고려를 하시지 았으셨다(nihil extra se considerasse).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실 때에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신다면, 그 선택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닐 것이라고 분명히 상술하였다.(Institutio 1559, III, xxii, 3.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그 확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다.²⁹⁵⁾

예정론은 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에 있어서 출발점이다.²⁹⁶⁾ 아무리 인간이 신앙을 통해서 비로서 선택에 대해서 의식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영원한 결정인 것이다.²⁹⁷⁾

인간이 늘 생각할 때 생각하기 쉬운 오류는 **모든 원인을 나 자신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찾는 오래된 습관**이라 하겠다. 이는 헬레니즘, 중동의 여러 가지 틀들에 의해서 인간과 신을 둘로 나눠 설명하는 것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 것으로써 즉, 내 자신이 원인이라든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이라 하겠다. 이는 여러 역사적 환경 속에서 또 인간의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다.²⁹⁸⁾

b.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며 그것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은혜의 형태의 그 근원적인 성격은 하나님의 뜻, 원래 세상 짓기 전까지 간다. 그런 것만큼, 그 섭리와 창조를 넘어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받고, 안 받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듣고, 안 듣고 또는 그가 괜히 우회하는 그런 성격을 단순히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준비하는 많은 역사가 있고, 그 언약의 형식(form)도 있고, 또한 그 훨씬 전에 섭리,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까지 가는 문맥이 결국 신구약전체를, 다시 구약을 영적 의미를 다시 확증한, 순전히 구약의 영적 의미를 다시 이렇게 확보해서 글로 쓴 신약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그런 핵심을 이루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구약의 핵심을 신약성경에 가르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전체의 가르

295)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5월 21일) 내용 중에서 인용.

296) Loc. cit.

297)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3월 26일) 내용 중에서 인용.

298) 김영규, 『Guilelmus Bucanus(?-1603, 로잔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조직신학에 대해서』 개혁주의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4월 2일) 내용 중에서 인용.

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결국 영원 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기타 많은 디모테전서나 그러한 되는 것이다.²⁹⁹⁾ 우리는 늘 말하기를 언제든지, 우리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앞서고³⁰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앞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앞서는 것이다³⁰¹⁾. 그러므로 **선택은 믿음의 어머니(mater fidei)요³⁰²⁾ 믿음(신앙)은 선택의 열매요 결과이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과 견인과 은혜의 모든 선물들은 선택의 열매이요 결과인 것이다.³⁰³⁾

c. 하나님의 구원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최고의 심판자시요 주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요 6:37),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6:39)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증과 보호를 받게 되는 출발은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리키심을 주목해야 한다. 혹 어떤 사람은 여기서 논의의 방향을 돌려 여전히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한 자들만이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된다고 항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무수한 군중이 배도하여 전 세계를 뒤흔들지라도 선택은 흔들리지 않을 것

299)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 2001년 3월 19일 강의.

300) 하나님의 의지 자체가 모든 것들의 규범(regula)과 표준(mensura)이고 그것과 동일하거나 그것 위에 있는 차원에 있는 원인이나 근거가 없는 최고의 원인이다. (M. Luther, De servo arbitrio, 208: “Deus est, cuius voluntatis nulla est caussa nec ratio, quae illi ceu regula et mensura praescribatur, cum nihil sit illi aequale aut superius, sed ipsa est regula omnium.”) -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에서 재인용.

301)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에 따라 우리의 것은 죄 이외에 아무 것도 없고(Nostrum nihil nisi peccatum) **하나님이 앞질러 모든 일을 하셨다**(Praevenit te Deus in omnibus)고 고백하고 있다. 기도를 하겠다는 욕망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칼빈은 유의시키고 있다.(Institutio 1559, II, ii, 26.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에서 재인용.)

302)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303)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과 견인과 은혜의 모든 선물들(omniaque gratiae dona)은 선택의 열매이요 결과이다.** (행 13:48; 딤후1:1; 벧전 1:5; prosp. epist. ad Aug.; Aug. de Praedest. Sanct. cap.10, cap.16, cap. 17).” - 김영규, “도르트 회의”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0년. pp. 148-49 에서 재인용.

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 하늘보다도 더 견고할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³⁰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라”고 하신다.(요 13:18)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어야만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때에, 인류 가운데서 특별한 일부분, 곧 그의 덕의 성실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결정에 의해서 구별되는** 일부의 사람들을 가리키시는 것이다.³⁰⁵⁾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결국 예정,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언약에 두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한 에베소서의 주제인 것이다.³⁰⁶⁾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요, 인간의 공로, 인간이 하는 역할은 근원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가 모든 선행에 앞서고 인간의 의지는 인도하는 의지가 아니라 수종하는 의지이며, 앞서가는 의지가 아니라 뒤따르는 의지이다.(omne bonum opus gratiam praecedere, et id comitante, non ducente: pedissequa, non praevia

304) 칼빈은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성자의 피를 통해서 화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우주 창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독생자와 함께 아들들이 되도록 하셨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입은 대상이 되는 일은 우리가 만물 중에 무엇이 되기 전(antequam omnino aliquid essemus)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Institutio 1559, II, xvi, 4.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에서 재인용.)

305)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I, xxii, 7, 9.

306) 믿는 자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걸려 있다는 일 및 그같은 이유가 하나님의 자유하신 계획(beneplacium 본래는 <특별은혜>를 의미한다) 이외에서 구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은 바울이 에베소서 제 1장에서 분명하게 논술하고 있는 일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엡 1:3-5)라고 하였다.(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70: Quod ex aeterna Dei electione pendeat salus fidelium, cuius nulla praeter gratuitum eius beneplacitum causa reddi potest, diserta sunt Pauli verba primo ad Ephesios capite. Benedictus, inquit Deus, qui nos benedixit in Christo: sicuti nos in eo elegerat ante mundi creationem.)

voluntate)”³⁰⁷⁾ 그래서 의지가 있다 하면, 그것은 수종하는 의지이며, 앞서가는 의지가 아니고 뒤따르는 의지이다. 그런데 롬바르두스는 어거스틴의 그 주장을 변형하여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의지가 수종자가 되어 앞서가는 은총을 복종하는 것은 사람의 공로로 돌려야 된다고 하고 있다.³⁰⁸⁾ 이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자리를 두려고 이렇게 같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약간 좀 변경시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지가 수종자가 되어 앞서가는 은총을 복종하는 것은 사람의 공로로 돌려야 된다.’ 즉, 복종하는 의지를 행하면 즉, ‘복종하는 의지를 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몫이다.’ 라는 것이다. 또한 믿음의 방식도 그렇다. 믿음에 의해서 한다 하면 그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예정할 때,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것을 조건으로 미리 보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은 모든 선행 자체의 유일한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라(ipsium boni operis in solidum facit authorm)는 어거스틴의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칼빈은 비판하고 있다. ‘모든 선행 자체의 유일한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있는데, 그런 원인의 뜻을 제거시키고 사람으로 그 말에만 머물게 해서 그 의도를 상실케 하는 그런 변형을 일으킨 것이라 하겠다.³⁰⁹⁾ 칼빈은 은혜의 영속적 효과에 대해서(de perpetuo gratiae effectu) 강조하고 있다. 한 마디로 어거스틴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먼저 활동하시며 원하게 된 사람의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뒤를 따르신다(Dominum praevenire nolentem ut velit: volentem subsequi ne frustra velit)”³¹⁰⁾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은혜의 내용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는 일, 또는 의지의 어떠한 내용도 다 사실상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들어서 자기가 그 듣는 내용이 있게 하셔서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 찬동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전부를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³¹¹⁾ 이

307)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 iii, 7.

308)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309)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5월 28일) 내용 중에서 인용.

310)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 iii, 7.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에서 재인용.

311) 성령께서는 내면적 교사로서 영혼에 생명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면, 선편에 어떤 것

러한 것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신학에 있어서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의 내용으로 들어 가야 하는 것으로 있다 하겠다.³¹²⁾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본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³¹³⁾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본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근거가 됐을 때에, 참으로 좀더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즉 먼 원인은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까운 원인은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해도 그때에도 역시 먼 원인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인 것만큼 가까운 원인도 직접적인 역사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가까운 원인도, 형식적 원인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원인.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뿐이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목될 내용이고 역시 또 성경과 관련해서 이런 변증법적으로 찰라적으로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결국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판명성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

도 유효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성부로부터 듣고 배움을 받지 않는다면, 결코 그에게 이를 수 없다.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할 그 근거들은 무엇인가? 물론 거기에서 성령이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으로 들을 귀와 깨달을 마음을 만드시는 것이다. (... sed nihil efficitur eius praedicatione, nisi interior magister Spiritus viam ad animos patefaciat. Ergo non veniunt ad eum, nisi qui a Patre audierunt et edocti sunt. Quae ista discendi et audiendi ratio? Nempe ubi aures ad audiendum, et mentes ad intelligendum, Spiritus mira et singulari virtute format. (Institutio 1559, II, ii, 20.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에서 재인용.)

312)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313) Guilielmi Bucani, *Institutiones Theologicae, seu Locorum Communium Christianae Religionis* (Genevae M. DC. XXV), I, xvi. (“제15장. (그에게) 어떤 원인들이 있는가? - 아니다. 이는 그가 원인들의 원인이기 때문이다.(Non: est enim Causa causarum) / 제16장. 하나님 안에서 어떤 우연이 성립하느냐? - 자신의 원인으로부터 조금도 없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본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Minime, de ipsius ratione, omnia enim in Deo sunt essentialia)”) -김영규, “Guilelmus Bucanus(?-1603, 로잔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조직신학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p.10에서 재인용.

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도 하나님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자로서 영원히 그런 자로서 서있는 그 인간으로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도 역시 우리가 늘 주목해서 그런 유혹과 시험에 도전을 받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그렇게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 하겠다.³¹⁴⁾

최종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신다.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다. 기원이 없다. 우리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로부터 나온, 우리로부터 기원한 어떠한 조건이나 내용으로 가진 근거나 원인이 우리 안에 전혀 없으며, 언제든지 밖에 있는 것이다.³¹⁵⁾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반(半) 일하시고, 인간이 반(半) 일한다’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동등사역이라는 말하는 이들도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구원은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며, 또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빙크와 같이 ‘하나님이 100퍼센트(%) 일하시고 인간이 100% 일한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동시에 ‘100%-100%’ 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차원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없으면 또 ‘100%-100%’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과 인간의 일이 반-반이라든지 또는 몇 퍼센트(%)는 우리의 행위이고, 또 얼마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했을 때, 그런 사고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³¹⁶⁾ 칼빈은 분명히 ‘구원의 원인’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구원의 원인’이라는 개념을 1539년에 사용하였을 때도,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근절하여야 할 두 가지 해독들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행위의 의안에 어떤 신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그것에 어떤 영광을 돌려서는 안된다는 것에 있었다.³¹⁷⁾

칼빈은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내세운 어거스틴의 유명한 명제들의 핵심을 인용하여, “은혜가 모든 선행에 앞서고 그것은 인도하는 의지가 아니라 수종하는 의지이며, 앞서가는 의지가 아니라 뒤따르는 의지이

314) 김영규, 『Guilelmus Bucanus의 조직신학에 대해서』 2001년 5월 21일 강의.

315)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 2001년 5월 28일 강의.

316) Ibid., 2001년 3월 26일 강의.

317)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I, xiii, 16 :“Duae sunt potissimum nobis abigendae hac parte ex animis pestes: ne quid in operum iustitia fiducia ponant, ne quid illis gloriae adscribant.” -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에서 재인용.

다.”³¹⁸⁾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의지의 전환은 내적으로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고 하였다.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이 행하시는 구속사업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³¹⁹⁾ 이러한 칼빈의 말을 통하여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능력 역시 그 의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1:6)고 했을 때 착한 일의 시작이란 말을 통하여 그가 회심의 기원 자체가 그 의지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음은 의심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의를 위한 사랑과 욕망과 열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의를 향해서 기울이고 형성하여 방향을 잡아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인내에 순응시킴으로 그의 일을 완성시킨다. 어느 누구도 그 자체가 약한 의지를 돕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선을 창조하였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다른 곳에서 의지 그 자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선언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6-27) 인간 의지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할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의지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강해진다고 누가 감히 말할 것인가?³²⁰⁾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6장 45절의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요6:45)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사람의 선택 능력은 도움을 받아서 마땅히 할 일을 알 뿐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또한 행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의 문자가 아닌 성령의 은총으로 가르치실 때에, 그 결과로 사람은 그 배운 것을 앎으로써 깨달을 뿐 아니라, 원함으로써 구하며 행함으로써 얻는다.”³²¹⁾ 여기에서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는 그 선택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18) Ibid., II, iii, 7.

319) Ibid., II, iii, 6.

320) Loc. cit.

321) *Institutio 1559*, II, iii, 7.

d. 선택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인가?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고 있다. 분명히 선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기원한다고 믿는 데에는 쉽고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원인은 사람들 밖에서 찾아야 한다.**³²²⁾ **따라서 인간이 지닌 올바른 의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가 택함을 입은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엡1:4)³²³⁾

또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도가 부르짖기를 ‘오호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11:33) 하였던 것 같이 사도는 “**선택의 시원(始源)을 하나님의 자유하신 의지로부터 나오며 유기(遺棄)를 다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두셨다**”라고 말할 것이다”(페리기우스와의 두가지 편지에 대한 반박론 MSL 44, 617)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들의 구원의 확실성이 다른 곳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³²⁴⁾

322) ‘칼빈이 원인들에 대해서 논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그렇게 **우리 밖에 있음**(omnes salutis nostrae particulas ita extra nos constare)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더욱 더 놀랍게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전체(tota scriptura)의 그런 증거는 유효적 원인과 목적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질료적 원인과 형식적 원인에 대해서 마치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우리의 행위들이 절반의 자리(dimidiatum... locum)를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Institutio 1559, III, xiii, 17.)을 비판하고 있다.’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323) 공로사상에 시발점을 의미하는 선으로 기울어진 의지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다는 칼빈의 말은 구원의 서정이 택자들에게 제한되어 일어난다는 말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런 선택의 원인(electionis causa)과 관련해서 **사람 밖에서** 찾아야 되며 따라서 사람에게 있는 **바른 의지**도 그 자신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흘러왔다(ex eodem beneplacito fluere)는 결론을 칼빈은 내린다.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우리에게 알려지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Institutio 1559, III, xxi, 1:“Nunquam liquido ut decet persuasi erimus salutem nostram ex fonte gratuita misericordiae Dei fluere, donec innotuerit nobis aeterna eius electio”.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324) Johannes Calvinu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VIII: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1552)* (Brunsvigae, 1870), p. 267: Quomodo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다.³²⁵⁾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되는 것은 은혜에 이르도록 예정되는 것의 원인이고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것이 칼빈의 결론이다. 본래 인간의 행위든 다른 피조물의 행위이든, 행위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 못된다.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³²⁶⁾

여기에 또 하나 비슷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선한 것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은 믿음에서 유래함으로 우리의 믿음 자체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e. 믿음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인가?

그러면 **형식적 원인인 믿음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성경 전체는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즉,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태어난 우리가 선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오직 은혜 때문인 것이다.³²⁷⁾

믿음은 선택의 역사³²⁸⁾이다. 소명은 선택에 의존하며 따라서 전적으로 은혜의 사역이며³²⁹⁾, **형식적 원인인 믿음은 소명을 받은 자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vero electionis initium ex gratuita Dei voluntate deducens, reprobationem in mero eius arbitrio statuit :

325)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I, xxii, 3.

326)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327)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 iii, 8.

328) Ibid., III, xxiv, 3. 또한 칼빈은 “**신앙은 특별한 선물이며,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 믿음이 선택의 역사임을 밝히고 있다.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300 :**Ergo speciale donum est fides, quo rata fit Dei electio.**)

329) 칼빈은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전에 자기의 아들이 되도록 한 사람들을 새로 중생시켜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단순히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와 차별하는 일이 없이 회개와 신앙으로 초대된 자들을 지칭하고 있다) <그 뜻대로(계획)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함으로 소명이 선택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존 칼빈의 神學論文」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p. 336-37. -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p. 271-72: Porro minime dubium est, quin efficax hic vocatio notetur, qua regenerat Deus, quos sibi prius in filios adoptavit. Neque enim simpliciter dicit vocatos (quod in reprobos plerumque competit, quos Deus promiscue cum filiis suis ad poenitentiam fidemque invitat) sed vocatos secundum propositum, quod stabile ipso effectu ratumque esse oportet.)

하나님께서서는 선택을 자신 안에 감추어 두시지만, 부르심으로 그 선택을 나타내실 때에는 무차별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라고 일컫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³³⁰⁾

부르시는 방법은 부름이 은혜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꼭 같은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하였다.(행 13:48)³³¹⁾ 이는 부르심의 원인이 은혜임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실에 반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의 사실들을 부정하려 한다. 그러나 그 구절 뒤에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육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난 자라」(1:13)고 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명예를 부여하시지만 그러나 최후에는 하나님은 그 이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 즉 자기의 자녀로서 형조(形造)된 자들을 자기의 것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신앙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재생(再生)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영적종자(靈的種子)의 열매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다음의 어거스틴의 한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구원받는 자들은 다만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멸망될 자들에게서 구별되었다. ..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질 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내시고 있는 것이다.」(「제요(提要)」 99장 MSL 40, 278 「편지」 194 (시크스도우 앞으로) MSL 33, 874f. 「유리아누스 반박론」 5권 3장 MSL 44, 786 그밖에서)³³²⁾

330)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I, xxiv, 1;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72. (칼빈은 이곳에서 소명이 하나님의 선택을 드러내고 확증하는 도구가 되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것을 밝혀지도록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선택을 그렇게 날인하고 그렇게 확증하는 것이 (그처럼) 특별한 부르심인 것이다.”- Est igitur specialis quaedam vocatio, quae aeternam Dei electionem sic obsignat et sancit, ut patefaciat quod prius fuit in Deo absconditum)

331) Ibid., III, xxiv, 2.

332)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80: Nam si filios Dei nos reddit fides, unde ipsa nobis detur, considerandum est. Est enim spiritualis seminis fructus, quo nos Deus in vitae novitatem regnificat. In summa, berissimum est illud Augustini, sola gratia redemptos discerni a perditis, quos ad perditionem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하더라도 그것은 저들의 신앙에 의하여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택으로 신앙의 원인이 되도록**(선택자체가 신앙의 원인과 원리가 되도록) 기초하신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서 **선택은 순서에 있어서 신앙에 선행(先行)**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³³³⁾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한 **신앙도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주어졌다고** 듣게 될 때에 그것은 충분히 신뢰하기에 만족할 만한 것이다. 우리들은 **창세 전에 신앙을 가지도록 예정**하였으며 천적생명(天的生命)을 받아 계승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이다.³³⁴⁾

어거스틴은 “신앙은 초보의 신앙이든 완전한 신앙이든 하나님의 선물이다.”³³⁵⁾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이유를 신앙 때문이라고 하지 말도록 “**저들이 믿은 까닭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³³⁶⁾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고 싶다는 기분이 되도록 만사를 취급한다”라고 하고 있다.³³⁷⁾

그러므로 믿음은 선택의 역사이지만,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떤 사

concreverat ab origine ducta massa communis. Unde sequitur, gratiam Dei praedicari, qua eligendos facit, non invenit: quemadmodum idem saepius inculcat.

333) Ibid., p. 271 :atque ut adoptaret, usque adeo non fuisse eorum fide provocatum, ut fidei causa et principium sit ipsa electio: unde ordine priorem esse constat. (Ibid., p. 270 :Fidem vero facere electionis causam, nimis absurdum est, atque a Pauli verbis dissentaneum. Neque enim, quod prudenter animadvertit Augustinus, electos esse pronunciat, quia credituri essent, sed ut crederent: 신앙을 선택의 원인으로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바보짓이며 따라서 바울의 말씀에도 반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현명하게 주의하고 있듯이 바울은 <저들이 믿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도록 선택되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334) Ibid., p. 260 :Sed haec non parum valida futura est, quum nunc, ut in Christum credamus, audimus nobis divinitus esse datum: quis ante mundi originem tam ad fidem ordinati, quam ad vitae coelestis haereditatem electi eramus.

335) Ibid., p. 266 : Fides igitur, et inchoata, et perfecta, donum Dei est.

336) Ibid., p. 267 :Ac ne quis fidei hoc tribueret, quod alter alteri praefertur, negat eligi eos qui crediderunt: sed potius, ut credant. (Ibid., pp. 270-271 : Non quia credimus, ipse nos elegit, sed ut nos credamus: ne priores videamur ipsum elegerit. -우리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하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337) Ibid., p. 271 : Quod etiam Augustino rite expensum est: qui usque adeo Deum operari omnia interpretatur, ut velle quoque nostrum, quo credimus, efficiat.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까지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떤 이유로 선택을 믿음에 의존시킨다. 그러나 선택은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수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라야 선택이 효과를 나타내며 여기서 그 타당성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³³⁸⁾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실 때, 우리는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며 결과가 원인을 압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³³⁹⁾

신앙은 특별한 선물이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본성이 부패 타락 가운데 있음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들의 신앙을 저들의 선성(善性)으로 돌리는 것은 모독(冒瀆)이 된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의 마음속에 역사(役事)할 수 있는 분으로부터 신비한 방법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믿겠다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겠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³⁴⁰⁾

그러므로 선택을 신앙에 종속시키는 자들은 말도 안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또한 바울은 선택의 유일한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발휘하실 때에 그는 그 밖에 모든 원인을 배제하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어거스틴이 우리들이 **우리들의 의지의 결정**(placium을 좋아하여 결심등을 의미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선은 하나님의 계획(beneplacium)에 의한 것으로 인간의 결의(placium)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을 자랑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은 점으로 되돌아 오도록 주의한 것은 올바른 일이었다.³⁴¹⁾

338)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I, xxiv, 3.

339) Loc. cit.

340)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300 :**Ergo speciale donum est fides, quo rata fit Dei electio.** ...Quod autem in tanta naturae nostrae corruptela et pravitare aliqui tamen evangelio credunt, eorum bonitati adscribere, sacrilegium est:.. Trahitur ergo miris modis ut velit, ab illo qui novit intus in ipsis hominum cordibus operari,..**sed ut volentes ex nolentibus fiant.**(Lib. 1 ad Bonif. cap. 19.)

341) Ibid., p. 271 :Ergo nimis praepostere faciunt, qui fidei electionem subiiciunt. Deinde quum **unicam electionis causam** statuatur, Dei beneplacitum quod habuit in se ipso, alias omnes causas excludit. Ideo recte Augustinus nos illuc revocari admonet, ne placito gloriemur voluntatis nostrae.

3. 형식적 원인인 믿음에 대하여 성령의 원인 되심

a. 믿음(형식인)에 대한 성령의 사역

(1)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⁴²⁾ 또한 효력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³⁴³⁾

바로 ‘우리의 구원의 뿌리인 믿음이 듣는 능력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듣는 역사에도 근거하지 않은 성령의 역사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는 이 원리가 종교개혁의 순수한 원리요, 개혁주의의 개혁정신인 것이다.³⁴⁴⁾

루터가 그의 95개 조항 발표 조금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행한 갈라디아서 강의는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라 하겠다. 그의 갈라디아서 강의노트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개혁적 차원에서 해석하기를 ‘들어서 난 믿음이란 들을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듣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갈라디아서 3장 2절,5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주어질 때, 인간의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들을만한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요. 듣고자 하는 강한 열심과도 상관이 없이 오직 성령이 역사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

342) *The Humble Advice of the Assembly of Divines, Catechismus Minor* (London, 1647), p. 682 :Quæs. 30. *Quomodo nobis applicat Spiritus redemptionem per Christum acquisitam?* Resp. *Spiritus nobis applicat redemptionem per Christum acquisitam fidem in nobis efficiendo, ac per eandem nos Christo in vocatione nostra efficaci uniendo.*

343) *Ibid.* :Quæs. 30. *Quid est vocatio efficax?* Resp. *Vocatio efficax est Spiritus Dei opus, quo nos peccati ac miseriae nostrae arguens, mentes nostras cognitione Christi illuminans, voluntates nostras renovans, prorsus nobis persuadet, et vires sufficit, ut Jesum Christum amplectamur, gratuito nobis oblatum in Evangelio.*

344)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pp. 14-16.

게 관찰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공로에 의존하지 않으며, 인간의 어떤 지혜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해석정신 이었던 것이다.³⁴⁵⁾

이런 정신은 고전1장 26절에서도 증거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으로부터 기원하거나 인간과 관계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주권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이 해석정신은 종교개혁의 근본적 순수 원리였던 것으로써,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원리가 보이는 교회안에 현저히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³⁴⁶⁾

역시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종교개혁의 근본적 순수 원리였던 그러한 해석정신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인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인쳐지기 전에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⁴⁷⁾ 성령은 경건한 자들의 신앙을 굳게하기 위한 "인"(Seal)이요, "보증"(guarantee)(고후1:22)이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기까지는 의혹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표류하게 된다.³⁴⁸⁾

그러므로 성령에 의하여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성경을 진심으로 의지한다.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에 의해 보증을 받고 있으므로 증명이나 논리에 종속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녀야 할 확신은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얻어진다. 성경이 자체의 위엄에 의해 존경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인쳐질 때에만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자기 자신

345) Loc. cit.

346) Loc. cit.

347)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 vii, 4 : "... ita etiam non ante fidem reperiet sermo in hominum cordibus quam interiore spiritus testimonio obsignetur. Idem ergo spiritus qui per os prophetarum loquutus est, in corda nostra penetret necesse est, ut persuadeat fideliter protulisse quod divinitus erat mandatum.

348) Loc. cit.

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을 초월하여 마치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 인간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확실히 받아들이게 된다. 즉 자기 자신이나 사람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⁴⁹⁾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나 표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인간을 훨씬 초월하는 어떤 것에 우리의 판단과 지혜를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자세히 살펴본 후 그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는 가련한 사람들과 같이 습관적으로 마신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확실한 능력이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끌리고 자극되어 어떤 인간의 의지나 지식에 의한 것보다 더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³⁵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다 그의 증인이라고 선포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언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서 거짓없이 명료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주저없이 주장하기 때문이다.(사 43:10) 그렇다면 이같은 것은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는 확신이라 하겠고 또 이 지식은 최고의 논리가 합의하는,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근거에 있어서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근거위에서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오직 하늘의 계시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확신인 것이다. 오직 참된 신앙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는 것이다.³⁵¹⁾

(3)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그러한 참된 신앙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는 그것만이 오직 참된 신앙이다. 이사야는 새로된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여호와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사 54:13)라고 약속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특권을 모든 인류로부터 구별하여 내신 그의 선민에게만 주시는 것이다.³⁵²⁾ 참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민한 열망에서부터

349) *Institutio 1559*, I, vii, 5.

350) *Loc. cit.*

351) *Loc. cit.*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명하신다. “너희 마음 속에 누가 하늘로 올라갈꼬 또 누가 바다속 깊이 내려갈꼬 말하지 말고 말씀이 네 입에 있음을 보라”(신 30:12,14과 시 107:26의 융합)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해의 보고를 감추기를 원하셨거늘 인류의 대다수가 그렇게 무지하고 우둔하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하거나 불합리할 것은 없는 것이다.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몸된 교회에 접붙혀지기 전까지는 이 “일반 대중”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 이방인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고 생각되기를 바랐던 유대인들까지 선지자들의 교훈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사53:1)라고 그 이유를 첨가한다.³⁵³⁾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믿는 자의 수가 적은 것에 실망이 될 때마다 역으로 하나님의 신비는 그것을 주어 받을 자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마13:11)³⁵⁴⁾

말씀과 성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만약 성령을 통하여 심령 속에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해 준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말씀인 것이다. (시 19:7) 같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설교를 “영의 직분”이라고 불렀는데(고후 3:8) 이는 분명히 그가 성경 속에 표현한 것과 같이 성령께서 본래 자기의 진리에 속하셔서 그 말씀에 마땅한 존경과 위엄이 주어질 때만 그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전에 말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확증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의 확실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이와 모순되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의 확실성을 서로 결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케 하는 성령이 빛을 낼 때에만 비로소 완벽한 말씀의 종교가 우리의 마음 속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그렇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효력있는 그 말씀의 확증에 의하여 그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동일한 성령을 그의 말씀에 부여하여 능력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

352) *Institutio 1559*, I, vii, 5 : “veram demum esse fidem quam spiritus Dei cordibus nostris obsignat. ... promittit Iesaias (54, 13), omnes renovatae ecclesiae filios Dei fore discipulos. Singulari privilegio illic Deus solos electos dignatur, quos a toto humano genere discernit.”

353) Loc. cit.

354) Loc. cit.

없이는 진리의 빛을 모두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령의 빛을 주시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사도들 속에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즉 그 성령의 신탁에 의하여 날마다 말씀을 듣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성령 외에 다른 영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³⁵⁵⁾

(4)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이다.

신실한 백성들은 예언자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시 36:9)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 고 하여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의 우둔함을 보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요 3:27)고 부르짖었다. 그가 “은사”라고 한 것은 본성의 일반적 자질이 아니라 **특별한 조명**이라는 것은 그가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고한 많은 말들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개탄한 것을 보아서 명백하다. 그는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하여 총명을 주지 않는 한 내 말은 인간 정신에 신적인 사실을 알려줄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말한다. 모세 역시 백성들의 배은망덕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신 29:3,4) 만약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불렀다면 그 이상 더 무슨 표현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알게 하는 마음을 특별한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렘 24:7)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비취주는 한도에만 영적으로 총명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³⁵⁶⁾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여 가장 명백하게 확증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요6:44)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아버지의 산 형상이요(골 1:15), 그에게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모든 광채가 나타난 것이 아니었던가?(히 1:3상) 그러므로 그는

355) *Institutio 1559*, I, ix, 3.

356) *Institutio 1559*, II, ii, 20.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앞에 공공연하게 제시되어 있을 때에도 그 형상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방법 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지상에 강림하신 것이 아니었던가(요1:18)? 또 그가 충성되어 자기 사명을 다 하시지 않았던가? 물론 그러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내적 스승인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에 **그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를 전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만이 그에게 나오는 것이다**. 그에게서 배우고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확실히 성령님께서 놀랍고 비범한 능력으로 우리 귀로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다. 주님께서 교회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 그는 구원받기 위하여 모이게 될 사람들은(사 54:7)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라”(요6:45, 사 54:13)고 가르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서의 택한 자들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나 더러운 자들 까지 함께 받을 그런 종류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³⁵⁷⁾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그 마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새롭게 된 자에게만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논의하고 나서 누구보다 더 분명히 말했다(고전 1:18이하). 즉, 그는 모든 인간의 지혜는 우미하고 허망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그것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킨 후(고후 1:13), 결론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전 2:14) 고 말한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 본성의 빛에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영적 신비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태만으로 인해 그가 이러한 신비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인가?**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므로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신비들은 인간의 총명이 찾지 못하도록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만 밝혀진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비추어 주지 않을 경우 그들은 미련하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고전 2:9)을 보고 듣고

357) Loc. cit.

생각하는 눈과 귀와 정신을 찬미하였다. 실제로 그는 인간의 지혜를 휘장에 비유하여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마련케 하신 것”이라고 선포한다(고전 1:20)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비밀을 통찰할 수 있는 예민한 총명을** 인간의 지혜로 돌릴 것인가? 칼빈은 이에 대해서 답한다. “아니다. 그런 미친 짓은 집어 치워라!”³⁵⁸⁾

(5)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암흑이다.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인간으로부터 제거시킨 것을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다. 즉 그는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엡1:7)라고 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엡1:18) 라는 말 외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 분명히 그들이 새 계시를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는 무지몽매하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한다.(엡 1:18)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마음은 그들 자신의 소명을 알 정도로 충분한 지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³⁵⁹⁾

다윗은 바람직한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율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그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하소서**”(시 119:18)라고 기도한다. 이 표현을 통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 위에 비칠 때, 그것은 태양이 지구 위에 떠오르는 것과 같으나, “**빛들의 아버지**”(약1:17)라고 불리우는 **그 분이** 눈을 뜨게 해 주지 않는다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령이 그 빛을 비추어주지 안흔 모든 곳은 암흑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장 뛰어난 사도들은 교사로부터 옳게 그리고 충분히 교훈을 받았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이전에 들은 바로 이 교리에 의하여 그들의 정신을 가르치는 “진리의 영”(요 14:26)이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생은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다.(행 1:4)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심으로서 그분에게 그것이 우리

358) Loc. cit.

359) *Institutio 1559*, II, ii, 21.

에게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조명을 받을 때에 한해서만 그의 신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서슴없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 이상의 지성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자는 그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무지하다.³⁶⁰⁾

(6) 우리 의지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선을 추구할 수 없다.

인간 존재 전체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면 틀림없이 죄의 주요한 자리인 의지는 가장 튼튼한 끈으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 의지가 성령의 은혜보다 앞에 온다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빌2:13) 라는 바울의 말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고 싶은 욕구마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³⁶¹⁾

우리는 우리의 구원 전체와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다(행 4:12). 구원의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다른 곳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우리가 구원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예수라는 바로 그 이름에 의해서 배웠다.(고전 1:30)³⁶²⁾

(7)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켜 주시는 띠로서의 성령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우리의 “머리”(엡4:15)이며,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롬 8:29)이며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되며(롬 11:17)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갈3:27)고 한다. 그 이유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기까지 자라나지 않는 한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제공된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니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건대, 우리로 하여금 그리

360) Loc. cit.

361) *Institutio 1559*, II, ii, 27.

362) *Ibid.*, II, xvi, 19.

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들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더 높은 견지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³⁶³⁾

요컨대,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주시는 띠(bend)이다.³⁶⁴⁾

(8)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어떻게 또 왜 받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결합되실 뿐만 아니라 증보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맞볼 수 없기 때문이다.³⁶⁵⁾

(9)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

① 성령은 증거하는 분이시다.

우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포용하신 그 풍성하신 자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 불리우신다.³⁶⁶⁾

② 성령은 의의 싹을 나게 하신다.

성령은 은밀하게 물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열매맺는 땅으로 만들어 의의 싹을 내게 하시므로 자주 “물”이라 불리운다. 때로 성령은 깨끗케 하시고 정화시키는 능력으로 인하여 그렇게 불리우신다. 즉 에스겔서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의 “더러움을 씻으시기” 위해 “맑은 물”을 약속하시기 때문이다(겔36:25).³⁶⁷⁾

③ 주의 손으로서의 성령

요컨대 성령은 하늘에 속한 모든 부요가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 미치는 “샘”(요 4:14)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써 그의 힘을 행사하시는 “주의 손”(행 11:21)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성령은 힘있게 감화시킴으로써

363) *Institutio 1559*, III, i, 1.

364) *Loc. cit.*

365) *Institutio 1559*, III, I, 2.

366) *Institutio 1559*, III, i, 3.

367) *Loc. cit.*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향과 동기부여에 의해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은 무엇이나 그의 은혜의 열매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받은 것은 다만 어두운 마음과 사악한 마음 뿐이다. (갈 5:19-21)³⁶⁸⁾

(10) 성령의 역사로서의 믿음

① 믿음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이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표현하기 위해 보통 사용되는 용어들은 주로 믿음과 관련된다. 믿음에 의해서만 성령은 우리를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데, 이는 요한이 가르친 바와 같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천국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 불리우고 (참조 계 3:7), 성령의 조명은 우리 통찰력의 예리함이라 불리우는데, 이는 옳은 말이다.³⁶⁹⁾

② 믿음은 그리스도안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하고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신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에 계시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 된 것이다.³⁷⁰⁾

③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

성령은 믿음을 생기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인도될 때까지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신다. 성령은 믿음의 근원이며 원인이다. 진실로, 믿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요6:65)하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말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가

368) Loc. cit.

369) *Institutio 1559*, III, i, 4.

370) *Ibid.*, III, ii, 7.

얼마나 신비하고 고상한가를 생각하지 않거나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지각하는데 있어 얼마나 둔한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⁷¹⁾

④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는 것같이,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높이 들려 우리의 오성을 초월한다. 그때에 영혼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하자면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 이전에 눈이 부셔 볼 수 없었던 그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응시하게 된다.³⁷²⁾

⑤ 성령이 없이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실 때 동시에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이셔서 우리로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하게 하신다.³⁷³⁾

⑥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를 누린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만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가르친다. (롬 8:16)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 (고후 13:5). 요한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한다.(요일 3:24, 4:13)

성령의 특별한 사역인 믿음을 성령에게서 분리시키려는 것은 성령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³⁷⁴⁾

(11)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이끄신다.

371) Ibid., III, ii, 33.

372) Ibid., III, ii, 34.

373) Ibid., III, ii, 35.

374) Ibid., III, ii, 39.

바울이 “성령의 사역”(고후 3:6)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만일 우리 속에 계시는 교장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시지 못한다면(참조 요 6:44, 12:32, 17:6), 교사들이 아무리 외쳐도 무효할 것이기 때문이다.³⁷⁵⁾

(12) 보다 고상한 지식으로서의 믿음

믿음은 일반지식에 대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칼빈은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 부를 때, 이것은 인간의 감각적 지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종류의 이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각을 훨씬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초월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요한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른다. 요한은 신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선포한다. (요일 3:2) 그러한 그들은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 가르침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통해 더욱 강하여 진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지식이 이해가 아니라 확신이라고 결론 짓는다.³⁷⁶⁾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은 성부하나님의 사랑이고, 질료인은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며, 형상인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라고 할 때, 이때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닌 성령의 조명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였다.

주께서 영생을 상속하도록 자비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영생을 소유하게 할 때, 그의 일반적 경륜을 따라 선행을 수단으로 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³⁷⁷⁾

이상과 같이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에게서는 원인(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신다.)을, 아들에게서는 질료(質料)(성자의 질료인), 그리고 성령에게서는 효력(성령의 원인되심)을 얻는다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다.³⁷⁸⁾

칼빈은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375) Ibid., III, i, 4.

376) Ibid., III, ii, 14.

377) Ibid., III, xiv, 21.

378) Ibid., IV, xv, 6.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그 모든 부분이 우리의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행위를 믿거나 자랑하는가?”³⁷⁹⁾

IV.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구원의 서정과 관련한 믿음에 대한 내용들

오늘날 성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큰 흐름이자 동시에 큰 문제는 성경을 인간론 중심으로 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이유와 결과로 복음의 성격이나 선포의 내용도 크게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지금 당신이 결정하면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마치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구원의 방식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의 결과는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서정의 근원적 뿌리의 파괴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런 구원의 서정의 내용이 그렇게 인간의 의지에 달리도록 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그 구원과 관련해서 속죄의 성격에서 제한속죄가 거부된다는 것이다.

예정론은 구원의 서정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구원의 원인과 구원의 서정은 어떤 관계를 갖는것인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 체계가 성경론으로 시작해서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삼위일체와 창조와 섭리와 관계, 예정론과 구원의 성취, 서정과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다. 즉,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의 전 체계 자체는 인간이 어떤 조그만 선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는것인가 관련해서의 그 신인 협동설에 대해서 부정하게 하기 위한 틀이라 하겠다.³⁸⁰⁾

성화의 방식이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 가는 그런 방식일 때, 구원의 신적인 방식도 파괴되기 때문이다.

379) Ibid., III, xiv, 17.

380)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성경연구소 강의 (2001년 4월 2일) 내용 중에서 인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만사와 구원의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보았다.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바탕으로 이하에서, 역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인간이 무슨 역할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님을, 구원의 서정(성화) 역시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행하시며 그 원인이 되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선을 행할 의지를 주심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음을, 전 생애의 과정이 그분께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A. 믿음의 정의와 의미

하나님과 그리스도: 신앙의 대상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입양하신 자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단순한 견해나 평범한 신념에 의해서 그러한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게도 기만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참된 특성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 거기에 믿음의 특성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실로 믿음이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 7:3)이란 내용도 첨가해야 할 것이다.³⁸¹⁾

칼빈은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겨난다고 하며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하고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신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에 계시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인친 바 된 것이라고 하였다.³⁸²⁾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별지어주는 그러한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며, 영원한 구원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다.³⁸³⁾

381) *Institutio 1559*, III, ii, 1.

382) *Ibid.*, III, ii, 7.

1.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직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그것 만이다.³⁸⁴⁾ 이사야는 새로된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사 54:13)라고 약속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특권을 모든 인류로부터 구별하여 내신 그의 선민에게만 주신다. 참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민한 열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명하신다. “너희 마음 속에 누가 하늘로 올라갈꼬 또 누가 바다속 깊이 내려갈꼬 말하지 말고 말씀이 네 입에 있음을 보라”(신 30:12,14과 시 107:26의 융합)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해의 보고를 감추기를 원하셨거늘 인류의 대다수가 그렇게 무지하고 우둔하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하거나 불합리할 것은 없는 것이다.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몸된 교회에 접붙혀지기 전까지는 이 “일반 대중”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 이방인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고 생각되기를 바랐던 유대인들까지 선지자들의 교훈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사53:1)라고 그 이유를 첨가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믿는 자의 수가 적은 것에 실망이 될 때마다 역으로 하나님의 신비는 그것을 주어 받을 자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마13:11)³⁸⁵⁾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확증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의 확실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의 확실성을 서로 결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하는 성령이 빛을 낼 때에만 비로소 완벽한 말씀의 종교가 우리의 마음 속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³⁸⁶⁾

믿음에 대한 정의에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포함한다. 믿음의 정의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7:3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

383) Ibid., III, ii, 13.

384) Ibid., I, vii, 5 : “veram demum esse fidem quam spiritus Dei cordibus nostris obsignat.”

385) Loc. cit. : “non alios comprehendere Dei mysteria nisi quibus datum est.”

386) *Institutio 1559*, I, ix, 3 : “verbum ipsum non valde certum nobis esse nisi spiritus testimonio confirmetur.”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³⁸⁷⁾

그러므로 믿음은 신앙심을 빙자한 무지에 있지 않고 신앙의 지식에 근거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시하지 않으면 끝없는 미로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믿음을 무지에 두는 자들은 믿음을 모호하게 정의함으로써 믿음의 완전한 의미를 약화시키고 거의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맹신”이라는 허구를 만들어 냈다. 믿음은 무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 지식은 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³⁸⁸⁾

“맹목적” 믿음이라는 로마 교회의 교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요17:3)에 근거하고, 교회를 떠받드는 것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⁸⁹⁾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제시하는 대로, 즉 복음의 옷을 입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목표로 정해지신 것처럼,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올바른 길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길에는 확실히 은혜의 보고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 만일 은총의 보고가 닫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거의 유익을 주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근거가 된다. 만일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믿음은 무너진다. 그러므로 말씀없이 믿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은 그 자체가 거울과 같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말씀으로부터 지각된다고 주장한다.³⁹⁰⁾

우리가 믿음을 “지식”이라 부를 때, 그 지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감각적 지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종류의 이해를 의미하지 않는다. 보다 고상한 지식으로써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각을 훨씬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은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초월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요한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른다. 요한은 신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선포한다. (요일 3:2) 그

387) Ibid., III, ii, 1.

388) Ibid., III, ii, 2.

389) Ibid., III, ii, 3.

390) Ibid., III, ii, 6.

러한 그들은 합리적인 증거를 통해 가르침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통해 더욱 강하여 진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지식이 이해가 아니라 확신이라고 결론 짓는다.**³⁹¹⁾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올바른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³⁹²⁾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를 소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의 사색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인자하심을 증거하실 때에만 생긴다.**³⁹³⁾

믿음에 대하여 말씀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선 믿음과 말씀의 관계를, 다음에는 그 결과인 구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사실이 확증된다.³⁹⁴⁾

이와 같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므로, 칼빈은 교회를 통한 말씀 교육의 그 가치와 그 의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자녀를 일순간에 완전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만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즉, 목사들에게 하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손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양식을 멸시하는 사람이 모두 기근과 굶주림 속에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음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고취시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바울의 말과 같다(롬 10:17)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롬1:6),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복음 전파에 의해서 나타내신다.**³⁹⁵⁾

B. 약속과 믿음

믿음과 약속의 관계는 무엇인가?

391) Ibid., III, ii, 14.

392) Ibid., III, ii, 6.

393) Ibid., III, ii, 31.

394) Loc. cit.

395) Ibid., IV, i, 5.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외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인간의 마음은 오직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하고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신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에 계시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인친바 된 것이다.³⁹⁶⁾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의 약속을 필요로 한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 약속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다. 믿음은 원래 약속으로 출발하여 약속으로 근거하며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라 하였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생명은 계명이나 징벌에 대한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 대한 약속과 너그러운 약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요구하는 조건부의 약속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떨며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구원의 약속으로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³⁹⁷⁾

믿음이 은혜에 대한 약속만을 토대로 삼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사람은 값없이 주신 약속을 붙잡기까지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결하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견고한 조건을 가질 수 없다.**³⁹⁸⁾

즉, 사람은 값없이 주신 약속을 붙잡기까지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없는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성실한 마음으로 주와 언약을 맺은 주의 종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를

396) *Institutio 1559*, III, ii, 7.

397) *Ibid.*, III, ii, 29.

398) *Ibid.*, III, ii, 30.

나타낸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자비의 약속들은 당연히 이 목적 즉, 우리가 그 유익을 주시는 분을 경외하며 공경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선대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항구적인 의무를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써 경외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로 결정되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신자들의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활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실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³⁹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때문이요, 그 약속을 실행하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C. 중생과 믿음

칼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중생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가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그의 유익을 즐기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가르쳤지만, 우리가 느끼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더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장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회개와 죄 용서가 복음의 요체라고 하는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눅 24:47, 행5:31) 회개와 죄 용서 곧 새로운 생활과 값없이 얻는 화해, 양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양자를 다 얻는다.⁴⁰⁰⁾

진정한 회개, 중생은 믿음을 떠나서 성립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⁴⁰¹⁾

칼빈은 그리스도안에서의 중생을 다루면서, 회개의 두가지 구성 요소를 죽임과 살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때에 일어난다고 하면서 자신은 회개를 중생이라고 해석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러한 중생의

399) Ibid., III, xvii, 6.

400) Ibid., III, iii, 1.

401) Ibid., III, iii, 5.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도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실로 이러한 회복은 한 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때로는 서서히, 선택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버리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을 거룩한 성전들로서 자기에게 성별되게 하신다고 하였다.⁴⁰²⁾

칼빈에 의하면, **중생의 목적**은 신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사이에 조화와 일치를 드러내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미 받은 자녀로서의 양자됨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다.(갈 4:5, 뵤후 1:10)⁴⁰³⁾

D. 믿음에 의한 칭의(이신칭의)

칼빈은 그의 강요에서 칭의의 개념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주시는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한다. 또 칭의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말한다.’⁴⁰⁴⁾ 칼빈은 칭의 역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그 원인임을 말하고 있다.

신자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비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⁴⁰⁵⁾

이렇게 칭의는 값없이 죄를 용서하는데 있다고 가르칠 때, 이것은 의로 가는 길을 너무 쉽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⁴⁰⁶⁾

동시에 그들은 이신칭의를 통해서 선행이 폐기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을 우선은 그대로 내버려 두자! 우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성립하는 칭의를 꿈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다.“ (고전 1:30)⁴⁰⁷⁾

402) Ibid., III, iii, 9.

403) Ibid., III, vi, 1.

404) Ibid., III, xi, 2.

405) Ibid., III, xi, 1.

406) Ibid., III, xvi, 1.

407) Loc. cit.

이와 같이 그는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선행을 배제하거나 배치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칭의를 행위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선행을 하지 말라든지 행위가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의지하여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닻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도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후사들이 되어 우리가 홀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복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⁴⁰⁸⁾ 이렇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여 있는 것이다.

속죄, 용서, 의롭게 하심은 신앙 이후와 신앙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실제상의 의미에서 그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여 있는 것이다.⁴⁰⁹⁾ 즉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증보자로서 은퇴하지 않으신다. 구원의 적용은 성취와 똑같이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적용을 없이함으로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이때 적용에조차도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일조차도 역시 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칭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복음 전체가 회개와 죄 용서라는 두 표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주께서 자기 백성을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성령에 의한 성화를 통해서 그들을 진정한 의로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육을 죽이며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전심으로 갈망하게 하려는 것이다.⁴¹⁰⁾

E. 믿음과 성화

: 성화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인 되심

408) *Institutio 1559*, III, xvii, 1.

409)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deel 3&4 (Kampen, 1998), p. 520.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p. 2에서 재인용.-(Verzoening, vergeving, rechtvaardigmaking, unio mystica, heiligmaking, heerlijkmaking enz., zij komen niet tot stand na en door het geloof, maar in objectieven, actieven zin zijn zij in Christus aanwezig;)

410) *Institutio 1559*, III, iii, 19.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5문에서 성화(聖化)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 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즉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때가 되매 시간 세계에서(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적용 받아 그들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이다.’⁴¹¹⁾

이때에 성화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⁴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로사상과 신인협동에 대한 문제가 늘 문제로 남아있다. 그 성화의 성격은 섭리일반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하며 또한 신인협동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⁴¹³⁾

속죄, 용서, 의롭게 하심, 신비적 연합(unio mystica), 성화(거룩하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등은 신앙 이후와 신앙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실제상의 의미에서 그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여 있다.⁴¹⁴⁾ 즉, 우리의 신앙을 통해

41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은 새로 지어주시는 마음과 영을 소유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실제로, 개인 인격적으로 성화(聖化)되어 간다. 그들이 받는 **이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덕(功德)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및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박윤선 역 (서울: 영음사, 1989), p. 87.) :*“Quotquot efficaciter vocantur, ac regenerantur, cor novum habentes novumque spiritum in se creatum, sunt virtute mortis et resurrectionis Christi per verbum eius spiritumque in eis inhabitantem ulterius sanctificati, realiter quidem ac personaliter: (The Humble Advice of the Assembly of Divines, A Confession of Faith (London, 1647), p. 629.*

412) 칼빈은 성화는 선택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그의 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 2:13) 바울은 이같은 말을 하므로써 **신앙과 거룩과를 하나의 샘에서 나오는 시내(川)처럼 영원한 선택으로 이끌어내고 있다.**”(「존 칼빈의 神學論文」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 385. -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300: *ut Paulus monet, qui eos elegit ab initio mundi in salutem, in sanctificatione spiritus et fide veritatis (2 Thess. 2, 13) Quibus certe verbis et fidem et sanctificationem ab aeterna electione, tanquam a fonte rivus, deducit.*)

413)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성경연구원 강연 (2001년 3월 19일) 내용 중에서 인용.

414)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deel 3&4 (Kampen, 1998), p. 520.

서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성화된 것으로 그때 그것이 이제 처음 생겼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여 있으며, 또한 그의 고난과 죽음의 열매들일 뿐이라고 하였다.⁴¹⁵⁾

그래서 이런 성화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성화의 그 인과론 문제**, 또는 성화는 왜 그렇게 신인 협동사상에 대해서 비판하는지, 특별히 거기에 ‘인간은 반(半)하고 또는 하나님은 반(半)하고’라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칼빈이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다. 즉, 칼빈은 성화에 있어서의 신인협동사상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은 무슨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며⁴¹⁶⁾ 그 확장과 연장이 그러한 배경이 되고 있다.⁴¹⁷⁾

즉 인간에게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인간이 갖는 어떤 가치도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근본적으로, 그 자체로서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피조물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결정적으로 신론과도 연결되어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 본래 죄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인간의 가치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에 영광을 돌릴만한, 보충한다거나 또는 무엇을 더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때문에 덮어져서, 입혀져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요, 주된 사역은 하나님이신 것이다.⁴¹⁸⁾

우리로부터의 그 원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인, 인과론에서 선후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인 것이며 원인은 아닌 것이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p. 2에서 재인용.

415) 김영규, 2001년 3월 19일.

416) 칼빈은 성화로 구원에 이르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살후 2:13) 바울은 이같은 말을 하므로써 신앙과 거룩과를 하나의 샘에서 나오는 시내(川)처럼 영원한 선택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청결케 하였기 때문에 선택받게 되었는가.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다.” (「존 칼빈의 神學論文」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 385. -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300: Quid enim? An quia se ipsos sanctificaturi erant, ideo electi sunt? Atqui nominatim Paulus hoc esse spiritus Dei opus asserit.)

417) 김영규, 2001년 3월 26일.

418) Loc. cit.

다.⁴¹⁹⁾

성화에 관련해서 인간의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부터 하나님을 보충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⁴²⁰⁾

칼빈은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내세운 어거스틴의 유명한 명제들의 핵심을 인용하여, “은혜가 모든 선행에 앞서고 그것은 인도하는 의지가 아니라 수종하는 의지이며, 앞서가는 의지가 아니라 뒤따르는 의지이다. (omne bonum opus gratiam praecedere, et id comitante, non ducente: pedissequa, non praevia voluntate)”⁴²¹⁾라고 하였던 것이다.

펠라기우스의 “행위가 은혜보다 앞선다.”라는 말에 반박해서 “은혜가 모든 선행에 앞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그것은 선행조차도 은혜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⁴²²⁾

이것은 곧, 하나님이 선행의 원인이 되신다는 말이다. 즉 어거스틴이 반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먼저 활동하신다”는 것이며 그에게 소원을 두도록 역사하신다⁴²³⁾는 것이다.” 그리고 ‘원하게 된 사람의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뒤를 따르신다(Dominum praevenire nolentem ut velit: volentem subsequi ne frustra velit).’⁴²⁴⁾는 것이다. 이렇게

419) Loc. cit.

420) Loc. cit.

421)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 iii, 7.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에서 재인용.

422) 김영규, 2001년 3월 19일.

423) 칼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의지를 자유롭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욕구를 일어나도록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토록 많은 또한 이토록 격심한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저들의 의지는 그 자신의 연약성에 굴복하게 되어 그 결과로 도저히 인내할 수가 없게 되고 말 것이다. 저들이 연약한 까닭에 넘어지며 그와 같은 정신이 되지 않던가 혹은 하면 된다는 정신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에 도움이 부여되고 의지(意志)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만 절대로 의지하거나 넘어지거나 미혹되거나 하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연약한 까닭에 넘어지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연약과 싸워서 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존 칼빈의 神學論文」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 344. -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76: Subventum ergo est infirmitati voluntatis humanae, ut divina gratia indeclinabiliter et inseparabiliter ageretur, et ideo quamvis infirma non deficeret, nec infirmitate aliqua vinceretur.)

424)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 iii, 7. 김영규,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

하나님은 원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결심케 하신다. 다시 말해서 **결심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헛되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다.** 그렇게 그분의 은혜는 면밀하다는 것이고, 세세하다는 말이다. 즉, 내가 결심하기 전에 결심의 내용의 모든 것은 그가 다 준비하시고 또 결심한 것을, 또 그것으로 끝나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될 그런 성격이 없도록, 계속해서 그 결심 이후에 있는 내용도 다 은혜로 주신다는 말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영속적인 은혜의 효과인 것이며, 또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⁴²⁵⁾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적어도 인간이 협동하는 단계다. 이렇게 늘 착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자유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자유의지를 말할 때는 좀더 은혜의 다른 양태로서의 형식으로서 그렇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이 은혜는 form이 아주 독특한 form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모양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형태이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유의지 자체는 은총의 형식이요, 독특한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길이다.⁴²⁶⁾

결과적으로 칼빈은 성화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대한 협력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⁴²⁷⁾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제 2권 3장 이후에서 구원의 원인들과 구원의 서정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어서 공로사상에 대한 그의 비판의 근거들에 있어서 신론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인간론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기독교론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죄의 용서 기타 다른 죄의 용서의 성격과 다른 근거들이 무엇인가를 기술하고 있다.⁴²⁸⁾

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에서 재인용.

425) 김영규, 2001년 5월 28일; 「존 칼빈의 神學論文」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 342.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에 관하여 스스로 정하신 것을 그의 능력의 팔로 끊임없이 지켜주고 계신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신(自信)과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같은 정도로 확실한 것이다. 또한 그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같은 선물을 항상 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저들은 자기들의 계획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서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76 : **Ex istis nemo perit, quia omnes electi, et secundum propositum, non suum, sed Dei.**

426) 김영규, 2001년 5월 21일.

427) 김영규, 2001년 4월 2일.

그 다음에 큰 주제로 성화에 있어서 칼빈의 신인 협동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칼빈의 해석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동역자란 고린도전서 3장 9절(“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의 칼빈의 해석은 어떠한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칼빈이 그러한 제목으로 썼던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성화에 관련해서 인간의 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인간은 그 존재자체부터 하나님을 보충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이해함이 없이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칼빈의 사상을 이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하겠다.⁴²⁹⁾

앞에서 다루어진 바 있는 내용들이 이곳에서 다시 다소 중복되게 되는 성격이 있게 되었으나, 성화의 그 원인과 출발은 그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간략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의지의 전환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은총의 결과이다.**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이 행하시는 구속사업에서 나타난다.⁴³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1:6)고 했을 때 착한 일의 시작이란 말을 통하여 그가 회심의 기원 자체가 그 의지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음은 의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의를 위한 사랑과 욕망과 열심을 불러일으킴으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의를 향해서 기울이고 형성하여 방향을 잡아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인내에 순응시킴으로 그의 일을 완성시킨다.**⁴³¹⁾ 어느 누구도 그 자체가 약한 의

428) 김영규, 2001년 4월 9일.

429) Loc. cit.

430)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정을 움직인 자들만이 진실로 당신 자신에게 오게 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내적인 방법으로 계획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가르쳐 주시며 그와 동시에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을 아는 지혜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능력을 부여하여 주신다.」 라고 (「그리스도의 은총과 원죄에 관하여」 1권 13장에서 말해 주고 있음) 성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다.” (「존 칼빈의 神學論文」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 340. -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74 : Christus efficaciter hoc doctrinae genere ad se trahi pronunciat, quorum mentes et corda Deus compellat. Sic enim interius docet eos, inquit Augustinus, qui secundum propositum vocati sunt, simul donans et quid agant, scire, et quod sciunt, agere.)

지를 돕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선을 창조하였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혹자는 자체의 힘이 약한 의지를 돕기 위하여 주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할지 모르나,) 성령께서는 다른 곳에서 의지 그 자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선언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겔 36:26-27)⁴³²⁾

또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의지를 돕거나 부패한 의지를 시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의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신다(“소원을 두신다”)고 한다.(빌 2:13)⁴³³⁾

의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다. 그것은 신자가 의지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먼저 은혜를 통하여 작동된다.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모든 선행에는 은혜가 먼저 작용하며, 의지는 은총의 인도자로서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종자로서 그 뒤를 따른다고 하였다. 또한 성경에서 분명히 지적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은혜가 의지를 앞지른다는 의미에서 의지는 ‘수종자’라 칭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개조된 의지는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의지가 수종자가 되어 앞서가는 은혜에 복종하는 것을 사람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없으면 은총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은총이 없으면 의지 또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크리소스톰의 말은 잘못이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의 말에서 본 바와 같이(빌2:13), 은총이 의지까지도 움직인다는 것을 부정하는 생각이다. 인간의 의지를 은혜의 시종자라고 부를 때, 선한 일을 하는 의지에 은혜의 기능에 다음가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의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유일한 목적은 구원의 첫 동인을 인간의 공적에 둔 펠라기우스의 그 악한 교리를 논박하는 것이

431) 칼빈은 성화를 할 힘도 우리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더욱이 저들에게 주어진 인내의 선물은 단순히 그것으로 저들이 하고자 생각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 인내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같은 것을 어거스틴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존 칼빈의 神學論文」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 343. -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76 : Si quidem non tale modo illis perseverantiae donum confertur, ut postea declarat, quo possint si velint: sed quo non nisi perseverantes sint. Quod optima ratione confirmat.)

432) *Institutio 1559*, II, iii, 6.

433) Loc. cit.

다. 은총이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주장한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는 비(非)자발적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보다 앞서 행하시며, 자발적인 사랑이 잘못 행동하지 않도록 그의 뒤를 따른다’고 여러번 말하지만, 선행의 창시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이 그의 너무나 명백한 뜻이었다.⁴³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분명히 선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기원한다고 믿는 데에는 쉽고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의 원인은 사람들 밖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인간이 지닌 올바른 의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가 택함을 입은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결론이 나온다.(엡1:4)**⁴³⁵⁾ 여기에 또 하나 비슷한 이유가 있다. 즉, 선한 것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은 믿음에서 유래함으로 우리의 믿음 자체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하므로 충심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태어난 우리가 선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회심에 있어서 두 가지 원리 즉, 그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겔 36:26)원리를 제시해 주실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의로 전향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의 것은 제해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을 채우라는 사실을 널리 증거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한 곳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렘

434) *Institutio 1559*, II, iii, 7.

435) *Ibid.*, II, iii, 8; 칼빈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에서 인간의 올바른 의지, 인내가 하나님의 선택에 기인함을 밝힌다. “그리스도는 저들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도 그 수효에서 저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불러내기까지는 저들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이같은 최후의 인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돌려야 할 것을 누가 깨닫지 못할 것인가.** 얼마의 사람이 신앙에서 탈락되는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는 멸망의 위협의 밖에 있다고 단언하고 계신다. .. 저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누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10:18)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존 칼빈의 神學論文」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 342. -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75. : *Iam quod nimum ex eorum numero se eicere pronunciat, quin potius repositam in tuto esse omnibus vitam, donec excitet eos in novissimo die: quis non videt finalem, ut vulgo loquuntur, perseverantiam Dei electioni similiter adscribi?*)

32:40)라고 하였다. 또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아픔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라고 하였다. (겔11:19) 그는 여기서 우리의 회심은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라고 증거한다. 다른 어떤 사실이 이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의지에 선하고 바른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을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변화될 때까지는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또 중생한 후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또 중생한 후에는 선한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로부터 유래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⁴³⁶⁾

성경 전체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하므로, 나면서부터 전심으로 악을 행하도록 되어있는 우리가 선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라는 말이다.⁴³⁷⁾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 하시는가?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며, 스스로 그 지배 아래로 들어간다. 우리는 인간이 죄의 멍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으로서는 결심을 통해 선을 갈망하거나 노력을 통해 그 선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어거스틴은 어디에선가 인간의 의지를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에 비유하고 하나님과 마귀를 기수에 비유하고 있다.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주권 아래 놓여 있으며 그 권세에 의해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 의지가 마귀의 간계에 사로잡혀 필연적으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른다는 뜻이다.⁴³⁸⁾

칼빈은 어거스틴에게 의존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들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와 성결, 경건 및 순결은 모두 하나님의 은사임을 증거하는 구절은 수없이 많다고 증거하고 있으며, 몇몇 계명은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 우리 것이 되지만, 그 선물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것이 된다.⁴³⁹⁾

또한 성화가 하나님에게서 기원함이 성경에서 나타난 성령의 칭호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다. 성경에서 성령은 자주 ‘물’이라 불리우시는데, 이는 성령은 은

436) *Institutio 1559*, II, iii, 8.

437) Loc. cit.

438) *Institutio 1559*, II, iv, 1.

439) *Ibid.*, II, v, 15.

말하게 물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열매맺는 땅으로 만들어 의의 싹을 내게 하시기 때문이다. 요컨대 성령은 하늘에 속한 모든 부요가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 미치는 “샘”(요 4:14)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써 그의 힘을 행사하시는 “주의 손”(행 11:21)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성령은 힘있게 감화시킴으로써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향과 동기부여에 의해 행동하게 된다.⁴⁴⁰⁾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선한 것은 무엇이나 그의 은혜의 열매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받은 것은 다만 어두운 마음과 사악한 마음 뿐이다. (갈 5:19-21)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악하고 무절제한 욕망들을 지속적으로 없애버리시고 소멸시키시는 한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열렬한 헌신으로 불타오르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시 “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정당하다.(눅 3:16)⁴⁴¹⁾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는 우리의 부정과 불결을 씻어버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케 하신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많은 죄와 연약함에 얽혀있는 형편속에서 성령의 성화를 통해 정결케 된다. 그래서 완전과는 아주 거리가 먼 우리는 꾸준히 전진해야 하며, 비록 죄 속에 얽혀 있지만 매일 그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⁴⁴²⁾라고 함으로 성화가 성령의 사역임을 드러내고 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 성령은 믿음을 생기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인도될 때까지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신다.⁴⁴³⁾

그리고 칼빈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칭의)을 다루면서 그 목적

440) 어거스틴의 말을 통해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심을 기술하고 있다. “어거스틴이 말한 바, 다음과 같은 말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들은 자신들이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바 궁핍을 또한 충분히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문을 두드리고 구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견인의 선물에 대하여」) (「존 칼빈의 神學論文」<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p. 370. - Johannes Calvinus,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p. 292: divinae esse beneficentiae non tantum ut aperiatur pulsantibus, **sed etiam ut pulsemus et petamus**.)

441)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II, I, 3.

442) Ibid., III, iii, 14.

443) Ibid., III, ii, 33.

을 자신의 성령에 의한 성화를 통해서 그들을 진정한 의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⁴⁴⁴⁾

또한 칼빈은 중생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도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로 그러한 회복은 한 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때로는 서서히, 선택받은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버리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을 거룩한 성전들로서 자기에게 성별되게 하신다⁴⁴⁵⁾고 하여 하나님께서 성화의 원인이 되심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전 생활에는 일종의 경건의 실천이어야 한다고 하였다.(살전 4:3,7 엡1: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3장 성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되고 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은 새로 지어주시는 마음과 영을 소유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실제로, 개인 인격적으로 성화(聖化)되어 간다. 그들이 받는 이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덕(功德)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⁴⁴⁶⁾ 하나님의 말씀과 및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된다.⁴⁴⁷⁾ 성화의 내용은, 그들에 대한 죄악의 지배 관계가 전체적으로 멸절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정욕이 점점 더 약화되어 죽어가는 동시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생명과 힘을 얻게 되어, 점차 그들의 실생활에 성결이 이루어진다. 이런 성결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⁴⁴⁸⁾

444) Ibid., III, iii, 14.

445) Ibid., III, iii, 9.

446) 행20:32; 빌3:10; 롬6:5,6

447) 요17:17; 엡5:26; 살후2:13

44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박윤선 역 (서울: 영음사, 1989), p. 87. :*“Quotquot efficaciter vocantur, ac regenerantur, cor novum habentes novumque spiritum in se creatum, sunt virtute mortis et resurrectionis Christi per verbum eius spiritumque in eis inhabitantem ulterius sunctificati, realiter quidem ac personaliter: totius corporis peccati dominium in eos destruitur, eiusque variae libidines debilitantur indies magis magisque ac mortificantur; illi interim magis magisque in omni gratia salutari vivificantur et corroborantur indies, ad praxim verae sanctimoniae, qua quidem destitutus nemo unquam videbit Dominum. (The Humble Advice of the Assembly of Divines, A Confession of Faith (London, 1647), p. 629.*

F. 믿음의 확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나 표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인간을 훨씬 초월하는 어떤 것에 우리의 판단과 지혜를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는 자세히 살펴본 후 그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는 가련한 사람들과 같이 습관적으로 마신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확실한 능력이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끌리고 자극되어 어떤 인간의 의지나 지식에 의한 것보다 더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⁴⁴⁹⁾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하여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다 그의 증인이라고 선포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언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서 거짓없이 명료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주저없이 주장하기 때문이다.(사 43:10) 그렇다면 이같은 것은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는 확신이라 하겠고 또 이 지식은 최고의 논리가 함의하는,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근거에 있어서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근거위에서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오직 하늘의 계시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확신인 것이다.⁴⁵⁰⁾

1. 확신도 성령으로부터 기인한다.

확실히 우리는 믿음이 확실하고 확고한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의심의 기미가 없는 확증이나 어떤 불안에 의해 침식당하지 않는 확신은 상상할 수 없다. 반면에 우리는 신자들이 그들의 본래 가졌던 불신앙과 부단히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⁴⁵¹⁾

그리고 믿음이 보증하는 것은 세속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음은 다음과 같은 확신으로 만족한다. 곧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

449) Johannes Calvinus, *Institutio 1559*, I, vii, 5 : "talīs denique sensus, qui nisi ex coelesti revelatione nasci nequeat."

450) Loc. cit. : "talīs denique sensus, qui nisi ex coelesti revelatione nasci nequeat."

451) *Institutio 1559*, III, ii, 17.

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확신**은 내세를 기대하는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단정한다.⁴⁵²⁾

믿음이 은혜에 대한 약속만을 **토대로** 삼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사람은 값없이 주신 약속을 붙잡기까지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결하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견고한 조건을 가질 수 없다.** 즉, 사람은 값없이 주신 약속을 붙잡기까지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없는 것이다.⁴⁵³⁾

2.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주를 누린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만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가르친다. (롬 8:16)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고후 13:5). 요한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한다.(요일 3:24, 4:13)⁴⁵⁴⁾

이와 같이 칼빈은 확신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⁴⁵⁵⁾

믿음의 확신을 어느 한 시점에 국한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믿음은 본질상 현재 생활이 지나간 후에 있을 미래의 영생 불멸을 바라보는 것이다. 신자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믿음을 통하여 하늘에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⁴⁵⁶⁾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선택의 보증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선택을 보게

452) Ibid., III, ii, 28.

453) Ibid., III, ii, 30.

454) Ibid., III, ii, 39.

455) Ibid., I, vii, 5 : “quam tamen meretur apud nos certitudinem, spiritus testimonio consequi.”

456) Ibid., III, ii, 40.

하는 거울이며, 우리가 그를 통해 볼 때에는 아무런 자기 기만도 없는 것이다.⁴⁵⁷⁾

말씀과 성례가 우리에게 대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눈앞에 제시할 때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한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며, 더욱 강하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런 확증을 새김으로써 효력이 나타나게 하실 때이다.⁴⁵⁸⁾

이상에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매 서정의 원인되심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았다.

457) Ibid., III, xxiv, 5.

458) Ibid., IV, xiv, 10.

V. 결 론

“당신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어야 한다”고 했을 때의 그 믿는 행위는 어떠한 인간의 의지의 결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이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의 원인은 예정론에 대한 확고하지 못한 신학이요, 이러한 의식의 결과는 구원을 얻는데는 나의 의지의 결단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하겠다.

그로 인하여 구원받음에 대하여 그릇된 자기 자신의 공로의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또한 전(全) 신앙생활에 공로주의(자신이 무엇을 행하였을 때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되는 공로의식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가 과급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본다.

이런 공로주의는 칼빈이 싸웠던 신학적 내용이었고 개혁신학이 줄기차게 적대하여 싸워왔던 알미니안 신학이며, 이러한 신학이 현대 개신교 안에, 그리고 장로교에 마저도 만연해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서론에서 문제 제기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과제로써 우선 성도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의 그 구원의 원인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사실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 위에서 복음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전파되어야 하는지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진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원인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칼빈은 이러한 구원의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먼저 유효적 원인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선언한다. 또한 질료적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신 것, 그리고 형식적 원인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목적과 관련해서의 원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칼빈의 상기 인과론에 따라 그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들은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마치 인간의 의지의 결정에 의한 믿음, 즉 형식적 원인이 그 자신

의 구원의 절대적 원인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칼빈에 따라 인간의 믿음의 방식조차도 사실상은 그 방식으로 볼때, 형식적 원인으로서는 있는 것이고, 더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근원적 원인은 어느 시기에 부르심에 비로소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머니 배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만세 전에 그분의 뜻 안에 있었고, 삼위일체 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요, 인간의 공로, 인간이 하는 역할은 근원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것,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결국 예정,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의 원인중 하나인 형식적 원인도 역시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음을,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동기와 논문 방향에 의하여 먼저 칼빈의 구원론이 근거한 4가지 인과론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결국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위의 원인들에 대해서 논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그렇게 우리 밖에 있음’(omnes salutis nostrae particulas ita extra nos constare)⁴⁵⁹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으며 이런 전제 아래서 구원의 원인 중 하나인 형식적 원인도 역시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음을,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구원의 원인들로 드러낸 4가지 원인들 즉 유효적 원인(동력인, *efficientis causa*), 질료적 원인(*materialis causa*), 형식적 원인(혹은 기구적 원인, *formalis vel instrumentalis causa*)인 믿음, 목적과 관련해서의 원인인 목적인 (*finalis causa*)중 형식적 원인에 대하여 깊이 다루었는데, 먼저 형식적 원인인 믿음의 기능은 그리스도의 받으신 유익을 받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형식적 원인인 믿음은 그 성격이 ‘구원의 2차 원인’이며, “마음의 어떠한 행위도 배제하는, 선물을 받는 성격으로써의 방식을 취한다”는 것으로 증거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믿음의 근원과 적용자 되시는 성령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이 주제로 삼았던 형식적 원인에 대해서 더욱 중점적으로 그리고 자세

459) Johannes Calvinu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II: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Brunsvigae, 1864), III, xiv, 17.

히 다루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형식적 원인인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의지에 근원하지 않으며(사람의 이해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절대적 원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최종의 원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그 원인이 있으며(유효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질료적 원인이 되어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정된 자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의 형식적 원인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절대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인식되며, 또한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 믿음, 즉 구원의 형식적 원인의 그 근본적 원인, 최종적 원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하심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강요에서 기술되는 ‘형식적 원인으로써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에서 다음과 같은 논지가 도출되고 있다.

즉 첫째, 형식적 원인인 믿음은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둘째, 형식적 원인인 믿음은 구원의 전적인, 유일한 원인이 아니며, 그것은 구원의 4가지 원인중의 한 원인(형식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그 형식적 원인인 믿음은 더 근본적인 원인들에게로 소급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람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에 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원인이 되신다. 둘째,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 형식인 즉,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나로부터 발원하는 의지의 결단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드러내었던 것이다.

결국은 본 논문에서 드러내고자 한 바는 칼빈의 다음의 내용으로 함축할 수 있겠다.

“믿음은 선택의 역사이지만,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까지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떤 이유로 선택을 믿음에 의존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라야 선택이 효과를 나타내며 여기서 그 타당성을 얻는 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실 때, 우리는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며 **결과가 원인을 압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⁴⁶⁰⁾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뿌리인 믿음이 듣는 능력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듣는 역사에도 근거하지 않은 성령의 역사에

460) Ibid., III, xxiv, 3.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이 원리는 종교개혁의 순수한 원리요, 개혁주의의 개혁정신인 것이다.⁴⁶¹⁾

이 원리는, 이 해석정신은 종교개혁의 근본적 순수 원리였던 것으로써,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원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 현저히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⁴⁶²⁾

종교개혁의 근본적 순수 원리였던 이러한 해석정신을 우리는 역시 칼빈의 기독교강요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통하여 확인한 바, 종교개혁의 근본적 순수 원리였던 그 내용은 그 자체로써 현 시대에 대한 종교개혁이라 하겠다. ‘우리의 구원의 뿌리인 믿음이 듣는 능력에 근거한 것도 아니요, 듣는 역사에도 근거하지 않은 성령의 역사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 증거들을 들어 증명하고자 하였음이 본 논문의 목적이요, 이러한 진리에 대해 무지함과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처하게 된 현실태를 향하여 진리를 진리로서 분명히 드러내고자 함이 이 논문의 목적이었음을 다시금 밝히면서 인간의 이해의 영역에서 볼 때, 가장 큰 구원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형식적 원인으로서의 믿음에 대하여 바른 자리를 잡으며,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바, 구원이후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열매맺음의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원인도 역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이다.

461)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pp. 14-16.

462) Loc. cit.

참고 문헌

I. 1차 자료

Calvinus, Johanne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II: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Brunsvigae, 1864.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칼빈, 존. 「기독교강요」 김종흡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II. 2차 자료

Calvinus, Johanne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VIII: *De Aeterna Dei praedestinatione (1552)* Brunsvigae, 1870.

Augustinus. *Aurelii Augustini Opera*. Pars XVI, I: *De Trinitate* Turnholti, 1968.

Augustin.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 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III: *On the Trinity*. Edited by Philip Schaff, Translated by Arther West Hadda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887.

Bavinck, Herman. *Gereformeerde Dogmatiek*. Kampen, 1998.

Bucanus, Guilelmus. *Institutiones theologicae seu locorum communium Christianae Religionis ex Dei verbo et praestantissimorum theologorum orthodoxo consensu expositorum analysis*. Genevae, 1609.

Donner, J.H. en van Den Hoorn, S.A.. *Acta of Handelingen Nationale Synode te Dordrecht(ten jare 1618 en 1619)*, Te Leiden Bij D. Donner. 1669.

Heppe, Heinlich. *Reformed Dogmatic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Heppe, Heinlich & Bizer, E., *Die Dogmatik der evangelischen-reformierten Kirche*, Neukirchen, 1935.

Luther, M. *De Servo arbitrio*, 1525.

Leydecker, Melchior. *Dissertationes Historico-Theologicae de Spiritu S. Operatione in Origine Universi.....*, Trajecti ad Rhebum, 1696.

The Humble Advice of the Assembly of Divines, Catechismus Minor. London, 1647.

The Humble Advice of the Assembly of Divines, A Confession of Faith. London, 1647.

칼빈, 존. 「존 칼빈의 神學論文」 김진수, 김기수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 김종흡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 _____. 「17세기개혁신학」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2000.
- _____. “도르트 회의.”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0년.
- _____.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년.
- _____.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강의안, 2001년.
- _____.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 _____. “Guillimus Bucanus(?-1603, 로잔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조직신학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강의안, 2001년.
- _____. 『예정론과 구원의 서정』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Th.M. 2001년 2학기 강의. (녹취록).
- _____. 『칼빈의 성화론에 대해서(공로사상과 신인협동설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년 1학기 강의. (녹취록).
- _____. 『Guillimus Bucanus(?-1603, 로잔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조직신학에 대해서』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2001년 1학기 강의. (녹취록).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박윤선 역. 서울: 영음사, 1989.
- 헤페, 하인리히. 『개혁과정통교의학』 이정석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